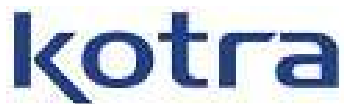


나이지리아

정보수정일자: 2009. 12. 31

작성처: 라고스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1
- 정치사회동향 /2
- 한국과의 주요이슈 /7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9
- 주요 산업 동향 /12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9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20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2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24
 - 대한수입규제동향 /28
 - 관세제도 /28
 - 주요인증제도 /30
 - 지적재산권 /36
 - 통관운송 /37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39
- 외국기업 투자동향 /41
- 우리기업 투자동향 /42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48
- 진출형태별 절차 /49
- 투자입지여건 /55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58
- 조세제도 /60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62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64
- 물가정보 /66
- 바이어발굴 /67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68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71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73
- 이주정착 가이드 /77
- 출장가이드 /79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95
- 유관기관 웹사이트 /97



1992 MAGELLAN Geographix/SM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 명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위 치	아프리카 대륙 중서부(북위 42°~14°, 동경 2° 20'~14° 30') 서쪽은 베냉, 동쪽은 카메룬, 남쪽은 대서양의 기네만에 접해 있음.
기 후	기네만과 사하라 사막의 영향을 받아 건기와 우기로 구분되며 남부와 북부의 기후가 상이, 남부 기네만에 가까운 지역은 고온 다습하며 북쪽 사하라 사막에 가까운 지역은 고온 건조 ○ 건기: 11~3월(하마탄 현상: 사하라 모래바람, 12~2월) ○ 우기: 지역에 따라 남서쪽은 5~8월이, 남동쪽은 5~10월, 내륙 지방은 5~10월
면 적	923,773 km (한반도의 약 4.2배)
인 구	146.3백만(2009년 EIU 추정치), 인구증가율 2.9%
수 도	아부자(Abuja, 91년12월 Lagos에서 Abuja로 이전)
주요도시	○ 라고스(1,700만 명, 2015년까지 2,200만 명으로 증가 예상) ○ 아부자(500만 명), IBADAN, KANO, KADUNA, PORT HARCOURT
정부형태	삼중구조- 연방정부, 36개 주 정부, 774개 지방 행정정부
국가원수	Umaru Yar'Adua(우마루 야라두아) 대통령
정치형태	양원제(상원: 107석, 하원: 354석)
언 어	영어(공용어), Hausa어, Yoruba어, Ibo어 등 각 토착어
종 족	약 374개 종족, 이중 하우사(Hausa), 이보(Igbo), 요루바(Yoruba)족이 전체의 40%차지
독 립 일	1960년 10월 1일(구 영국령)
주요종교	헌법상 국교 지정 금지, 기독교(35%, 남부), 회교(40%, 북부), 원시 종교
국 방	8만2,300명(육군 6만8,900명, 공군 1만370명 해군 8,630명, 2008년 기준)
문 맹 율	39.2%(2008년 기준)
의료시설	○ 병원침대 보급률 - 2,780명: 1 (2008년 기준) ○ 의사 보급률 - 4,982명: 1 (2008년 기준) ○ 간호사 보급률 - 1,920명: 1 (2008년 기준)
통 신	○ 나이텔(나이지리아 텔레콤, 재 민영화 추진 중) ○ 전화보급: 1대 당 28.8명(2008년 기준) ○ 미디어: 20여 종의 일간지, 12종의 주간지, 4종의 경제지 등 ○ 휴대폰(MTN, CELTEL, VISAFONE, MULTILINKS, GLO, Starcom)
석유 정제소	4개, 나이지리아 석유공사(NNPC)가 운영

나. 한-나이지리아 관계(2009년 5월 기준)

국교 수립	1980년 2월
체결 협정	경제과학기술협정(1982), 항공문화협정(1985 가서명) 이중과세방지협정(2007), 해운협정(1989)
교역 규모	수입 0.8억불, 수출 2.4억불(2009년도 3월 기준)
교 역 품	- 수입 품목: 원유, 가스 등 연료에너지 - 수출 품목: 합성수지, 승용차, 기타석유화학제품, 축전지, 무선전화기, 화물자동차, 칼라TV, 시멘트, 가열난방기 등
교민 (교민 및 체류자)	총 약 580여 명 ○ 아부자 (대사관, 지상사 등) 약 40명 ○ 라고스(분관, 상사주재원, 자영업자 등) 약 150명 ○ Port Harcourt(플랜트 건설 현장의 기술자 및 근로자 등) 약 390명

자료: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EIU Report, 미국 CIA FACT (2009.5월 기준 최신 통계 자료)

다. 주요 경제지표

국내총생산(GDP)	1,803억 달러(2009년 기준 추정치, EIU Report 2009)
1인당국민소득	1,901달러(2009년 기준 추정치, EIU Report 2009)
실질경제성장률	6.8%(2009년 기준 추정치, EIU Report 2009)
화폐단위	1 Naira(N) = 100 Kobo
환율	공식 환율: \$1=N151.31 시장 환율: \$1=N151.81 (2009년 9월7일 기준)
외채	82억 달러(2009년 기준 예상치 EIU Report 2009 기준)
외환보유고	598억 달러(2009년 기준 예상치 EIU Report 2009 기준)
무역수지	317억 달러 흑자(2009년 기준 추정치, EIU Report 2009 기준) - 수출 768억 달러 - 주요 수출 품목: 원유, 천연가스, 코코아, 고무, 면화 - 수입 450억 달러 - 주요 수입 품목: 공산품, 기계류, 화학제품, 식품류, 각종 소비재
은행 (2008년)	- United Bank for Africa, Union Bank of Nigeria - First Bank of Nigeria 포함, 25개 은행(3,560여 개 지점)
외국직접투자	129억 달러(2008년 기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추정치)
산업구조	- 농업: GDP의 40% 차지, 대다수 농업종사자 - 석유: 석유보유량 320억 배럴 2010년까지 400억 배럴 보유예상 - 하루 평균 1.20백만 배럴 생산(2008년 기준) - 향후 약 30년 매장량 보유 - 제조: 소규모 단순 제조업 대부분, GDP의 2% 차지 - 라고스주, 칼라바, 포트코트 및 인근 지역(60% 이상 제조활동)
주요상공업도시	Lagos, Onitsha, Kano, Ibadan, Port Harcourt, Aba Maiduguri, Jos, Kaduna, Warri, Benin, Nnewi
주요상업복합체	- 정제 및 석유화학공업: Kaduna, Warri, Port Harcourt - 철강산업: Ajaokuta, Warri, Oshogbo, Katsina, Jos - 비료공업: Onne- Port Harcourt, Kaduna, Minna, Kano - 천연가스: Bonny - 알루미늄 제련소: Ikot Abasi, Port Harcourt
주요항구	Lagos(Apapa, Tin-can Island), Warri, Port Harcourt Onne Deep Sea and Hub Port, Calabar(EPZ)
주요공항	Lagos, Kano, Port Harcourt, Abuja, Enugu, Kaduna, Maiduguri Ilorin, Jos, Owerri, Calabar, Yola, Sokoto
국제기구가입	UN(60.10), OAU, ILO, FAO, UNESCO, WHO, IFC, IDA, IMF, ICAO, UPU, OPEC, 비동맹, ECOWAS, GATT, WTO, BIE, AU

2. 정치 사회 동향

가. 국내 정세 개관

2007년 4월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가 광범위한 부정선거로 치러졌다는 비난이 야당과 국제사회로부터 제기됐으나 이로 인한 대규모 시위나 정치적 불안정은 발생하지 않았다. 야라두아(Yar'Adua) 신임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전임 오바산조(Obasanjo) 대통령의 절대 적인 영향력 하에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일정 수준 전임 오바산조(Obasanjo) 대통령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점진적으로 야라두아(Yar'Adua)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 국무부는 2007년 8월 ‘Political Dynamics Affecting the Business Climate in Nigeria’ 보고서에서 야라두아(Yar'Adua)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복잡한 정치적 환경 아래 신중히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09년 들어 야라두아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직면해 있다. 2008년 10월부터 나이지리아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유가의 하락 및 나이지리아 원유가스 생산지인 나이지 델타 지역의 분쟁으로 원유가스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예산이 삭감되었으며 국내 실물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또한 최근 나이지리아 각 지역에서 종교간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인명피해를 비롯한 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9년 9월 현재도 나이지리아에서 진행되거나 또는 입찰 예정인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지속 진행중인 가운데, 이렇다 할 뚜렷한 결론을 보이지 않고 있어 외국인의 투자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경제발전이 더디게 진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유, 천연가스 및 전력산업의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시키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 성과, 수익 및 효율성 등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인 관계로 신규 프로젝트 전무하며, 외국인 기업들은 진출을 꺼리고 있다.

최근 야라두아 대통령의 건강 이상증후에 대한 루머가 확산되는 가운데 2011년 나이지리아 대통령 재선 시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란 대내외적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야라두아 대통령은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재검토 및 나이지 델타 지역의 분쟁, 종교간 분쟁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나. 현 정부의 주요 현안사항

만성적 유류 및 전력부족 해결과 기초적인 국민 생활수준 향상이 단기적 해결 과제이며, 장기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구조적 부패 척결과 도시기반시설,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 자본의 재건 등이 향후 민선 정부의 업무 성과를 판정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야라두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의 시장 불간섭 및 민간주도 경제 성장을 골자로 하는 시장지향적 경제 개혁 및 개방 정책 지속 추진을 천명(2007년 7월, Financial Times 기자회견)하였다. 신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전임 행정부의 국가 경제권한위임 개발전략(National Economic Empowerment and Development Strategy: NEEDS)과 유사할 것임을 시사하며, 성과 점검을 통해 NEEDS-2를 수립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NEEDS : 빈곤퇴치, 국부창출, 고용창출 및 재교육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일종의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2003년~2007년)

기본목표

- ▷ Empowering People and Improving Social Service Delivery
- ▷ Fostering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in the Non-Oil Private Sector
- ▷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and Improving Governance

야라두아 대통령은 또한, 민주주의(Democracy), 도덕통치(Good Governance), 자유로운 기업경영(Free Enterprise) 및 법치주의(Rule of Law) 등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활기차고(Reinvigorated), 평화롭고(Peaceful), 안전하고(Secure), 안정된(Stable) 나이지리아 건설을

목표로 하는 7대 국정과제(Seven Point Agenda of Priorities in Terms of Reform)를 발표 (2007년 10월)하였다.

7대 국정과제

- ▷ 전력공급 개선(Improving the Electricity Supply)
- ▷ 농업부문 육성(Boosting the Agricultural Sector)
- ▷ 고용기회 확대(Increasing Employment Opportunities)
- ▷ 수송체계 개선(Improving the Dilapidated Transport System)
- ▷ 토지 소유권 개혁(Reforming Land Ownership)
- ▷ 보안조치 강화(Strengthening Security, especially in the Niger Delta)
- ▷ 교육제도 개선(Improving the Education System)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 과도한 외채부담 완화, 민영화 조치의 지속적 이행 등의 처방이 필요하다. 석유 생산 지역인 Niger-Delta 지역 주민들은 석유 생산에 따라 여타 지역은 발전하는 대신 정작 자신들의 공동체는 피해화 되고 있다며 끊임없이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있어 사회적 불안정과 함께 국가 경제에 큰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이의 조화로운 해결 또한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다.

2008년 11월 Plateau State에서는 회교도와 크리스트교간의 종교대립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2009년 2월 Bauchi State에서도 종교간의 대립으로 많은 사고와 피해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지난 2009년 5월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도 회교도와 크리스트교간의 종교대립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40여 년간 계속되어 온 종족간 갈등 완화와 최근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회교율법 Sharia를 둘러싼 종교분쟁 방지 등이 나이지리아 정치정세 안정을 위해 해결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관계를 해소하고 협조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2007년 잠시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든 나이지 델타 지역은, 2008년 상반기부터 다시 무장 단체의 활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납치사건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9년 7월에는 무장단체 세력이 라고스항 부근의 석유시설을 파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무장단체의 활동이 나이지 델타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정부와 무장단체(MEND)간의 자금지원 부분에서 일부 마찰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나이지 델타 지역의 정치적 안정은 현 야라두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풀어야 할 숙제이며, 2011년 대통령 재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치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 국가조직

1) 개요

나이지리아는 수도지역(FCT)과 36개 주(State)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며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다.

2) 행정부

□ 대통령

현 대통령(국가원수 겸 군 총사령관, 영문 공식 직함은 President and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은 알하지 우마루 야아두아 (Alhaji Umaru Yar Adua)이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재선까지만 가능하다.

□ 부통령

현 부통령은 굿럭 에벨레 조나단(Goodluck Ebele Jonathan)으로 대통령 유고 시 직무를 승계한다.

□ 내각

각 연방부처별로 각각 1~2명의 각료가 있으며 큰 부처의 경우 장관(Minister) 이 외에 Junior Minister라고 할 수 있는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을 두고 있다. 전 오바산조 정부 출범 이후 문화 관광부, 환경부, 경찰부가 신설되어 부처 수는 총 33개로 증가했으며 Abubakar 정부 시 폐지한 석유자원부 장관직과 Abacha 정권 이래 군 출신 국가 원수가 겸직하던 국방 장관직이 부활했다. 매주 수요일 오전, 대통령, 부통령 및 전 각료가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 주지사

전원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현재 주지사는 총 36명이며 주지사 임기는 4년으로 재선까지만 가능하다. 주지사는 주 의회의 인준절차를 거쳐 주장관(Commissioner)을 임명한다. 대통령, 부통령, 각주지사가 참석하는 주지사 회의(Council of State)에서 연방 정부와 각 주가 관련된 주요 국가적 사안을 결정한다.

□ 대통령 특별 보좌관

대통령은 헌법 규정에 따라 수명의 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현재 대통령 특별 보좌관직은 아래와 같다.

- 비서실장(Chief of Staff in the Presidency)
- 석유 및 에너지 담당 보좌관(Presidential Adviser on Petroleum and Energy)
- 국가 안보 보좌관(National Security Adviser)
- 정치 담당 보좌관 (Special Advisor on Political Adviser)
- 국제관계담당 보좌관(Special Advisor on Int'l Affairs)
- 언론 공보 담당 보좌관(Special Assistant in charge of Media and Publicity)

□ 경찰

경찰청장은 경찰 고위간부로 구성된 경찰위원회(Nigeria Police Council)의 건의를 참작,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주의 경찰장관(Commissioner of Police)은 연방정부 내에 설치된 Police Service Commission에서 임명한다.

□ 14개 연방위원회 설치

헌법 규정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Code of Conduct Bureau), 주지사 회의(Council of State), 국가 안보 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 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연방 공무원위원회(Federal Civil Service Commission) 등이 설치되어 있다. 여타 연방 위원회에는 Federal Character Commission, Federal Judicial Service Commission, Independent National Electoral Commission, National Defense Council, National Judicial Council, National Population Commission, Nigeria Police Council, Police Service Commission, Revenue Mobilization Allocation and Fiscal Commission 등이 있다.

3) 입법부

입법부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임기 각 4년)되어 있으며 상원의원은 36개 각 주별 3명과 연방수도 아부자 1명 등 총 109명이며, 하원의원은 유권자 17만 명 당 1인을 선출(현정원 360명)한다. 상원은 대통령이 요청한 각료에 대해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군대 해외 파병 시 사전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원 모두 각종 입법권, 예산 심의권, 연방재정 지출 승인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 정족 수

- 의사 정족 수: 양원 공히 총 정원의 1/3 출석
- 의결 정족 수: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단순 과반수
- 법안은 상·하 양원을 통과해야만 정식 법률로 완성(단 대통령이 동의한 법안의 경우 상원 또는 하원 중 한곳에서만 2/3 다수결로 통과될 경우 정식 법률로 완성)

○ 활동

- 연간 최소 181일 이상 개회
- 활동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부처 관련 업무를 심의할 경우 해당 기관장의 출석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검직 금지: 상·하원 의원이 대통령, 부통령, 주지사, 부지사, 연방 각료, 주 정부 장관,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 될 경우 의원직 상실

○ 특기사항

- 상원의장은 대통령, 부통령에 이은 연방정부 서열 3위
- 양원 합동 총회 시 상원의장이 의장이 되며 상원의장 부재 시 하원의장이 의장이 됨.

4) 사법부

연방 사법권은 대법원(Supreme Court), 연방 공소원(Federal Court of Appeal), 연방고등법원(Federal High Court)에 속하며, 수도 아부자에 고등법원(High Court of the Federal Capital Territory, Abuja), 회교 공소원(Sharia Court of Appeal of the Federal Capital Territory, Abuja), 관습 공소원(Customary Court of Appeal of the Federal Capital Territory, Abuja)의 3개 법원이 있고, 주의 사법권은 주의 고등법원(High Court of State), 회교 공소원(Sharia Court of Appeal of State), 관습 공소원(Customary Court of Appeal of State) 및 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원이 속한다.

□ 대법원(Supreme Court)

대법원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1명과 최고 21명까지의 판사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연방과 주 및 주 상호간의 분쟁과 연방 공소원으로부터의 공소 사건 심리를 하고 있다.

□ 연방공소원(Federal Court of Appeal)

연방 공소원은 원장 1명과 49명 이하의 판사들로 구성됨. 이들 중 이슬람법 전문가 3명 이상, 관습법 전문가 3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된다.

□ 연방고등법원(Federal High Courts)

연방고등법원은 재판장 1명과 여러 명의 판사들로 구성된다.

□ 수도권 고등법원, 회교공소원, 관습 공소원

재판장 1명과 여러 명의 판사들로 구성된다.

□ 주법원: State Courts

주 고등법원(High Court of State)은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지사가 임명한 재판장 1명과 판사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주는 필요하다면 이슬람 민사법을 다루는 이슬람법 공소원(Shari a Court of Appeal)과 관습법 공소원(Customary Court of Appeal)을 둘 수 있다.

라. 정치제도

1) 정당

나이지리아에는 현재 아래와 같이 6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다.

- People's Democratic Party (PDP)
- All People's Party (APP)
- Alliance for Democracy (AD)
- All Progressive Grand Alliance (AGPA)
- National Democratic Party (NDP)
- United Nigeria People's Party (UNDP)

이 중 PDP는 북부와 동남부 이보족 지역에 강력한 기반을 두고 있고, APP는 북서부 일부와 북동부 일부 및 중부 지역에, AD는 서남부 요루바족 지역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2월 민선 대통령 선거에서는 PDP의 오바산조 후보가 총 유효투표의 62.78%를 획득,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기타 상·하 의원, 주지사, 기초 단체선거를 모두 PDP가 석권, 여당으로서의 독보적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야라두아 대통령은 거국 내각 구성이라는 취지하에 야당인 APP와 AD출신 인사 일부를 내각에 포함시키고 있다.

2) 헌법

현행 1999헌법(99년 5. 5 공포)은 1979년 헌법을 직전 헌법으로 규정, 현 헌법의 근간임을 명시하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국인 근로자 납치사건 발생

2006년 6월 6일 리버스주 코손채널 가스 설비 공사를 진행 중이던 대우 건설 및 가스 공사 직원 5명과 현지인 1명이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07년 1월 10일 바엘사주 오구에서 가스관로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던 대우건설 직원 9명과 현지인 1명이 피랍됐다.

또한 2007년 5월 3일 리버스주 아팜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대우건설 임직원 3명 등 12명이 피랍되는 등 지속적으로 치안이 불안해지고 있다.

나이저 델타 지역은 대우건설, 현대 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많이 있으며 수주 가능성이 높은 건설 프로젝트 또한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나이저 델타 지역의 무장세력들과의 지속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며, 현재 피랍 및 피습 사건은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나이저 델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협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09년은 한국인 근로자 납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외교부는 나이지리아를 출장 자재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나이지리아에 대한 주의단계를 높였다.

나. 중국과의 플랜트 수주 경쟁

나이지리아는 원유, 전력, 건설 대형 플랜트 사업이 2007년 1월, 65개 유전광구 국제입찰 실시 하였으며, 2010년까지 가스 발전소 22기를 건설할 계획(전력생산 능력: 12,000 MW)이다.

대규모 자본력과 노동력을 앞세운 중국이 나이지리아 시장에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2008년을 “아프리카의 해”라고 선언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공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앞세워 차별화된 전략으로 나이지리아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자원외교 활성화

석유공사는 심해광구 2개(OPL322, OPL 323)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정유공장 건설, 가스 파이프라인 및 철도건설을 약속했다. 이에 포스코 건설은 2006년 Port Harcourt-Abuja Maiduguri 1,500km 철도 건설 입찰권을 받았으며, 석유공사는 포타코트에서 아부자까지 석유 파이프 라인을 건설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철도건설 사업은 사업추진의 한계로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철수한 상황이다.

2007년 12월, 산자부 차관을 비롯한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포스코 건설 대표 등이 나이지리아를 내방해 나이지리아 발전소 연계 유전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 및 동 프로젝트에 대한 신 정부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2008년 5월 나이지리아 심해 OPL321광구, OPL323광구에 참여 중인 한국 컨소시엄이 최근 나이지리아 석유부(Ministry of Petroleum)로부터 동 광구에 대한 광구 분양 무효 통보를 받았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탐사계약상 한국 측의 지분에 해당하는 서명 보너스 323백만불 중 231백만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구분양을 무효화하고 한국 측의 서명보너스 기납부액은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컨소시엄은 이번 나이지리아 정부의 일방적 광구 분양 무효 조치에 대해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구성하였으며,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외교적 검토를 하는 한편, 법원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09년 8월 나이지리아

법원은 나이지리아 정부의 일방적인 광구 분양권 무효조치에 대해 불합리함을 판결, 우리나라 석유공사의 1차 승소를 판결하였다. 현재 3개월 이내 나이지리아 정부가 항소하지 않는 이상 광구 분양권은 다시 석유공사가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많은 국가가 진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원외교 활동은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중국이 대형 플랜트를 수주함으로써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이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 외교적인 차원에서 자원개발 확보 및 수주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라. 한국산 제품 반덤핑 규제현황

나이지리아는 한국산 제품 반덤핑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중국산 제품의 반덤핑 및 불법 수입으로 인해 나이지리아 국내 시장장식 및 제조산업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 이종과세 방지협정

한-나 이종과세 협정이 2007년 체결된 바 있으나, 양국 정부 간 이종 과세 협정 시행의 지연으로 인해, 과세 부담 증가 및 이종 과세 협약이 체결된 타 국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개요

1) 경제성장: 2009년 및 2010년 실질 GDP 증가율, 2.7% 및 4.4%로 하락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제유가 급락하였으며, 나이지 델타 지역 테러단체의 원유생산 설비 및 파이프라인 무장공격 등 정정불안과 OPEC의 쿼터 감축(170만 배럴)에 따른 원유생산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6년 이후 나이지리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금융, 통신, 건설 및 도소매 등 비석유 부문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따라 투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지리아의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

구 분	2006	2007	2008	2009(추정)	2010(전망)
실질 GDP 증가율(%)	6.0	6.2	6.3	3.0	4.4
명목 GDP(십억 달러)	127.3	144.4	182.7	133.8	145.3

자료: IMF,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entral Bank of Nigeria

2) 물가: 2009년 및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율, 11.0% 및 8.5% 전망

식품 및 원료 가격 안정, 국제유가 급락 및 원유생산 감소에 따른 재정지출 및 민간소비 위축 등 인플레이션 안정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및 유동성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느슨한 통화정책 기조와 주정부에 배당된 잉여 원유계정(Excess Crude Account) 지출 등의 영향으로 초과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지리아의 물가상승율/대부이자율 추이 및 전망

구 분	2006	2007	2008	2009(추정)	2010(전망)
소비자물가 상승율(%)	8.2	5.4	11.6	11.4	8.5
대부 이자율(%)	16.9	16.9	15.5	17.0	15.0

자료: IMF,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entral Bank of Nigeria

3) 대외부문: 나이라화 가치 약세 전환 및 경제의 대외 건전성 악화 전망

나이지리아의 대외부문 추이 및 전망

구 분	2006	2007	2008(추정)	2009(전망)	2010(전망)
대미 평균환율(N/달러)	128.7	125.8	118.6	151.1	165.0
무역수지(백만 달러)	28,031	23,167	31,296	△5,265	10,791
경상수지(백만 달러)	13,796	2,317	4,662	△-8,445	△-5,640
외환보유고(백만 달러)	42,299	51,334	53,002	47,538	42,288
대외부채(백만 달러)	7,693	7,693	8,050	7,716	8,509

자료: IMF,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entral Bank of Nigeria

나이지리아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구 분	2006	2007	2008	2009(추정)	2010(전망)
실질 GDP 증가율(%)	6.0	6.2	6.3	3.0	4.4
명목 GDP(십억 달러)	127.3	144.4	182.7	133.8	145.3
1인당 GDP(달러, PPP)	1,679	1,795	1,910	1,934	1,981
인구(백만 명)	140.4	143.3	146.3	149.3	152.2
인구 증가율(%)	2.1	2.1	2.1	2.1	1.9
소비자물가 상승율(%)	8.2	5.4	11.6	11.4	8.5
대부 이자율(%)	16.9	16.9	15.5	17.0	15.0
재정수지(%/GDP)	△0.6	△0.6	△2.7	△5.3	△4.0
- 재정수입(%/GDP)	11.8	13.5	10.8	7.9	10.5
- 재정지출(%/GDP)	12.4	14.1	13.5	13.2	14.5
무역수지(백만 달러)	28,031	23,167	31,296	△5,265	10,791
- 수출(백만 달러)	59,144	61,816	76,781	43,320	53,924
- 수입(백만 달러)	31,113	38,649	45,485	38,055	43,133
경상수지(백만 달러)	13,796	2,317	4,662	△-8,445	△-5,640
외환보유고(백만 달러)	42,299	51,334	53,002	47,538	42,288
대외부채(백만 달러)	7,693	7,693	8,050	7,716	8,509
대미 평균환율(N/달러)	128.7	125.8	118.6	151.1	165.0
대미 연말환율(N/달러)	128.3	118.0	132.6	158.0	167.5

자료: IMF,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entral Bank of Nigeria

주: 외환보유고는 Excess Crude Account(2008년 기준 200억 달러)

나이라화 가치는 지난 2006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국제유가 급락 및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2008년 11월 말 이후 20% 이상 하락하였다.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원유 수출액 급감의 영향으로 경상수지가 2008년의 52억 달러 (GDP의 2.9%) 흑자에서 2009년 및 2010년에는 138억 달러 (GDP의 11.7%) 적자 및 95억 달러(GDP의 7.3%) 적자로 돌아서는 등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이지리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 민간 부문에 대한 여신 급증 → 금융기관의 부채관리 부실화 우려
- ◇ 금융 및 자본 시장의 지속적인 급성장 가능성에 대한 회의 고조
→ 투자가 정서 악화 및 이에 따른 투자자금 조달 애로 가중
- ◇ 석유 부문으로부터의 재정수입 감소 → 사회 기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재정지출 및 민간 투자지출 위축
- ◇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수요감소 → 나이지리아 기업의 매출 감소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의 급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2008년 11월 말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진입하였으며, 금융권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9년 2월 나이지리아 내에서 고소득군이며 안정적인 분야로 간주되었던 은행권에서 수천 명 수준의 인원 정리 작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현지 언론에 보도되었다.

나이라화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외 부문(경상수지 및 외환보유고)의 건정성에 힘입어 2008년 11월말까지는 달러당 117~118나이라를 유지하였지만,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나이지리아의 외환수입 감소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야기된 세계적인 실물경기 침체가 나이지리아 경제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에 따라, 달러화에 대한 나이라화의 공식 환율은 2008년 12월 첫째 주의 달러당 125나이라에서 둘째 주에는 130나이라로, 셋째 주에는 135나이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외환시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이라화 환율이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달러화에 대한 나이라화의 공식 환율은 지난 2009년 1월 10일 150나이라로 급등한 바 있으며, 2009년 5월 8일 기준으로 145.51나이라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나이지리아 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환전상이나 암시장에서는 달러당 170~190나이라에 거래되고 있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 1월 15일 야라두아 대통령,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국제유가 급락 등 경제환경의 급변에 대처, 나이지리아의 거시 경제지표 안정을 위한 글로벌 금융위기 특별위원회 (Presidential Steering Committee on the Global Crisis)설치하였다.

나이지리아는 건실한 경제 기초, 나이지리아 금융시장에서의 미미한 외국자본 비율(5% 미만), 선진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규모 미미 등으로 2008년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다.

나이지리아는 제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며, 주요 공산품과 생필품(식료품, 생활용품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인상 시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규모 재정 적자로 인해 그간 상당한 규모로 지급되었던 보조금(유류 보조금, 전력 보조금 등)이 축소·폐지될 경우,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며, 실업자 증가 등과 결부될 경우에는 대규모 시위 등 사회 불안 현상이 노정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다. 시장 지향적 경제 개혁 및 개방 정책과 사회기간시설 확충 지속 추진

야라두아 대통령은 빈약한 나이지리아 경제를 전환시키는 것이 새 행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두고 있으며, 2007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나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두 번째 우선 과제도 경제, 세 번째 우선 과제도 경제” 라고 천명하였다.

한때 사회주의자였던 야라두아 대통령은 또한, 오바산조 전 대통령의 시장 불간섭 및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골자로 하는 시장 지향적 경제개혁정책 지속 추진 약속하고, 신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는 국가 경제 능력 및 개발전략(National Economic Empowerment and Development Strategy)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전력공급 확충, 농업 부문 육성, 식량 불안 해소, 부패와의 전쟁, 연방정부 규모 감축, 토지 소유권 개혁(토지 소유권 자유화) 등을 정책 우선 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야라두아 신정부의 중장기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오바산조 전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의 빈곤 퇴치, 국부창출, 고용창출 및 재교육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경제개발 5개년 중장기 계획(The National Economic Empowerment Development Strategy ; NEEDS)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2003년~2007년)

아울러 야라두아 대통령은 기존 NEEDS를 기반으로 2010년까지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경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제금융위기 및 유가하락, 국내경기침체 등 경제전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정책의 시행이며, 현재 전면 중단된 프로젝트의 재개 및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향후 나이지리아 경제개발에 직접적인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 NEEDS의 기본 목표

- Empowering People and Improving Social Service Delivery
- Fostering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in the Non-Oil Private Sector
-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and Improving Governance

2007년 5월 취임한 야라두아 신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민주주의(Democracy), 도덕통치(Good Governance), 자유로운 기업경영(Free Enterprise) 및 법치주의(Rule of Law) 등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활기차고(Reinvigorated), 평화롭고(Peaceful), 안전하고(Secure), 안정된 (Stable) 나이지리아 건설을 목표로 하는 7대 국정과제(Seven Point Agenda)를 발표한 바 있다.

2. 주요 산업 동향

2007년 기준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3.7% 이상이며 원유 생산 부문이 31.4%, 도·소매 유통 부문은 14.8% 내외, 금융, 보험업 및 공공서비스 부문은 7.6% 내외의 수준인 반면, 제조업은 2.5% 수준에 머물러 경제구조가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지나치

게 편중되어 있다. 특히 석유부문을 제외한 소비재 제조업은 극히 낙후되어 있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아라두아 현 정부는 농업부문의 근대화와 낙후된 제조업의 육성을 위해 해외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참고로 2009년 9월 기준 2008년의 산업별 GDP 배분 현황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가. 건설업

□ 건설업체 현황

나이지리아에는 약 280여 개의 건설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건설회사가 회원으로 있는 건설업자협의회 성격의 FOBACEC(FEDERATION OF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 CONTRACTORS)가 있다. 그러나 내국 업체들은 소형 주택이나 건물건설에 치중하고 있고 사회 간접자본 건설은 그 동안 독일계 JULIUS BERGER 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기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계 건설업체들이 정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나. 원유, 가스

원유의 경우 OPEC 확인 매장량은 160억~170억 배럴(세계 9위)이나 확인 매장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미확인 매장량까지 합하면 400억 배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Nigeria산 Bonny 유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고급 경질유임) 2007년도 원유 생산량은 대략 일산 245만 배럴로 추산되며, 이 중 210만 배럴/일을 수출함으로써 절대적인 석유 의존 경제 상황에 놓여 있다.

가스의 경우 확인 매장량은 2.4조 m³이며 추가로 1.84조 m³의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기준 LNG 가스 생산능력은 8.7백만 톤/년으로 세계 7위이며 2015년까지 연간 30백만 톤을 생산, 세계2위 가스 생산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원유 생산 현황

나이지리아의 석유시추는 1908년 시작됐으나 2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해 중단됐다. 1958년 7월 나이지리아 석유시추 독점권을 갖고 있던 SHELL이 OLOIBIRI 유전에서 일일 5,000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면서 나이지리아의 원유개발이 본격화됐다. 1977년 나이지리아 정부가 석유공사인 NNPC를 설립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이했으며 1996년에는 토착기업 및 다국적 기업을 포함, 약 57개사가 동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도 있다. 1979년 이후부터 일일 약 23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여 전 세계 8위, OPEC 회원국 중에서는 6위의 원유 생산국가로 부상했다.

그러나 최근 원유가스 생산지인 나이저 델타 지역에서 무장단체 세력의 활동이 극심해 지고 있으며,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원유생산은 급격히 감소하여 2008년 12월 기준 일산 120만 배럴에 그치고 있다.

2) 참여회사 현황

나이지리아의 원유생산은 Shell, Mobil, Chevron, Agip, Elf, Texaco 등 6개의 석유 메이저들과 Phillips, ESSO BP STATOIL, CONOCO DUPON 등 관련분야 다국적 기업들과 48개의 토착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6개 석유메이저 회사들은 나이지리아 석유공사(NNPC)와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해 참여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측 지분은 각각 60%이며 SHELL의 경우에만 나이지리아 정부가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 광업

석탄은 동부 Enugu를 중심으로 27억 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석유산업에 밀려 생산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석탄 생산과 수출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 재정 상태로 볼 때 많은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생산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Plateau주 Jos에서 채굴되는 주석은 석유생산 이전까지 나이지리아 광업의 주종이었으나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잠식 방지제, 피막처리제의 원료인 콜럼바이트도 생산이 감소되는 추세이다.

시멘트의 원료인 양질의 석회석이 풍부하나 설비 노후화와 경기부진으로 시멘트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시멘트 생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준비함에 따라 시멘트 플랜트 및 연관 플랜트 투자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광석도 Oyo, Kwara 주를 중심으로 다량 매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으나 기존 제철소 가동상의 문제점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기타 금,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와 우라늄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화강암, 대리석도 풍부하여 외국과의 합작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라. 섬유산업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제2의 섬유 생산국가이기도 하며 인구 1억 3,000만 명의 서부 아프리카 최대 섬유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섬유산업은 비교적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으며 80년대 초에는 약 190여 개 공장이 가동되어 약 20만 명의 인력이 고용됐으나 1980년 후반 많은 공장이 폐쇄됐고 최근에도 수입 제품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공장들의 폐업사태가 늘어 2007년 기준 약 18여 개만 가동 중에 있어 고용 인력도 5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나이지리아는 신제품은 물론 중고 의류 등 많은 물량이 불법으로 수입되는데 전체 섬유류 수요의 약 90%가 수입되고 나머지 10% 정도만이 자체 생산되는 것으로 섬유 제조업자 협회인 NTMA(NIGERIAN TEXT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관계자는 추정하고 있다.

마. 철강산업

2007년, 나이지리아에는 1개의 철광석 가공공장, 1개의 제철소, 3개의 철봉 및 철근 생산공장과 1개의 공작기계 생산공장, 1개의 알루미늄 생산공장이 있으나 이들 공장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가동되는 곳이 없다. 특히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제철소를 목표로 70년대 말에 건설이 시작된 AJAOKUTA 제철소는 막대한 건설비 투입에도 불구하고 약 98% 공정이 된 상태에서 건설이 중단되어 재건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공장들도 시설 노후, 유지 보수 불이행, 운영자금 부족, 원료 구득 어려움 등 많은 이유로 가동이 되지 않거나 3~4% 시설 가동률 유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중 나이지리아 철강산업의 중추라 할 수 있는 AJAOKUTA 제철소는 러시아 기술과 설비를 도입해 1단계 공사로 BILLET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2단계로 철판 생산 공장 건설까지 계획했으나 20년이 지난 2006년 기준, 1단계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대표적인 투자 실패 사례로 여겨졌으나 야라두아 신 정부의 재건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바. 농림수산업

1) 농업

광범위한 기후, 토양조건으로 인해 전통적, 근대적 방법을 이용한 다양한 농작물 생산이 가능해 북부의 건조한 사반나 지역은 사탕수수, 기장, 옥수수, 낙화생, 면화 등을 재배하며 중부 belt 및 남부 지역에서는 카사바, 양, 플란틴, 옥수수 등이 주로 재배되며 미곡은 강 유역, 코코아는 서남부, 야자유는 동남부에서 주로 생산된다. 국토 중 하천, 호수 면적을 뺀 9,100만ha 중 경작지는 3,030만ha로 33%에 불과, 대부분의 농가가 3 에이커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농이며 영농 방법도 원시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가의 비료가격, 원시적 도로망, 관개시설 부족이 농업발전의 장애 요소이기도 하다.

2) 임업

국토의 약 10%에 달하는 96,061km²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갖고 있으나 95%가 연료용으로 벌목되고 5%정도만 산업용으로 생산되고 있다. 주요 목재 종류는 Obeche, Abura, 마호가니 등이다.

3) 수산업

수산물 생산은 어망, 어선부족, 저장창고 및 가공공장 부족으로 많은 제약이 있으나 정부는 식료품 자급체제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해수, 담수, 양식 어업의 진흥을 계속 추진 중이다.

사. 선박, 항공산업

1) 조선

나이지리아의 조선산업은 발전도가 매우 미흡한데 총 5개의 조선소가 있으며, 그 중 3개는 최대 항구 도시인 라고스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2개는 남동부 원유생산지역인 PORT HARCOURT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현지 통계가 없어 정확한 조선능력은 파악이 어려우며 이들 5개 조선소도 규모가 매우 영세해 주로 여객 운송용 FERRY SHIP, 원유 공급용 소형 선박, 해군군함 수리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항공산업

나이지리아에는 총 27개의 국내 및 국제공항이 있으며 항공기 제조산업은 전무하고 항공기 간단한 정비만이 가능한 수준이다. BELVIEW, ADC, CHACHANGI, ALBAKHAR, EAS 등 약 12개의 민간항공회사가 있어 예전에는 보잉 737 규모의 소형 항공기로 운영됐지만 최근 새로운 항공사들이 들어서면서 항공노선 및 운행 편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Virgin Nigeria는 국내선을 비롯,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가나, 세네갈 등 서중앙 아프리카 국가로의 취항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는 항공기 단순 정비를 제외한 수리 능력이 없어 필요 시 수시로 항공기를 유럽으로 보내 수리한 후 운항시키고 있다.

아. 전력산업

1) 개요

추정인구 1억 3,000만 명 이상, 국민소득 500달러 정도인 나이지리아는 석유산업을 제외한 여타 제조 산업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전력산업 또한 크게 낙후되어 있다. 산업용 전력 수요는 적은 반면 일반 생활전력에 대한 수요가 크며 생활전력의 경우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는 전력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국내 전력생산 및 공급의 권한은 국영기업인 NEPA(National Electric Power Authority)가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시설용량은 5,847MW로 모두 7개의 발전소(화력 4개, 수력 3개)가 가동되고 있다.

이 밖에 3개의 IPP(독립발전사업자)와 주정부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수·화력 발전소가 있으나 이 시설들의 발전 규모는 미약하다. 또한 대부분의 발전 시설들이 관리 부실 및 투자 부진 등으로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이로 인한 전력생산 부진이 현지의 전력 부족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력부족 현상은 도로, 항만, 통신 등의 인프라 부족과 함께 나이지리아 산업발전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 나이지리아의 전력수요

정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나이지리아의 전력수요는 2006년 기준 대기수요 포함 8,000~10,000 MW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NEPA는 전체 공급량의 80% 정도인 2,500 MW 내외를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무용 빌딩, 공장, 아파트, 개인 주택 등은 자가 발전기를 설치, 부족한 전력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수요의 용도별 통계는 자료부재로 파악이 어려우나 나이지리아 제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수요의 대부분은 건물, 주택 등의 조명 및 냉방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이지리아의 전력 공급률이 전체수요(대기수요 포함)의 40% 미만이라는 점과 주재국 정부의 산업개발 우선 정책 추진을 고려할 때 향후 나이지리아의 추가 전력수요는 매우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3) 발전소 대대적 건설

나이지리아는 심각한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전력 수요는 피크 시 7,600 MW이나 전력생산 능력은 3,600 MW에 불과하며, 실제 전력생산은 3,000 MW 정도이다. 연방정부는 2010년까지 1만 MW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19개의 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니제르 델타(Niger Delta, 나이지리아 남부) 지역에 7개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23억 달러의 소요예산이 들어간다.

Niger Delta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이유는 무장단체들이 원유가스 생산 지역인 Niger Delta 지역에서 원유가스 시설들을 파괴함에 따라 이를 무마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 Omoku Thermal Power Station(Rivers State): 100 Mega Watt
- Gbarain/Ubie Thermal Power Station(Bayelsa State): 300 Mega Watt
- Sapele Thermal Power Station(Delta State): 300 Mega Watt
- Ikot Abasi Thermal Power Station(Akwa Ibom State): 270 Mega Watt
- Eyan Thermal Power Station(Edo State): 250 Mega Watt
- Egbema Thermal Power Station(Imo State): 250 Mega Watt
- Calabar Thermal Power Station(Cross River State): 250 Mega Watt

정부는 또한 Geregu(414 MW), Papalanto(335 MW), Omotosho(335 MW), Ala Oji(350 MW) 등 4개의 발전소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는데 소요금액은 3억 5,000달러이다. 이 외에도 30억 달러 규모의 Mambila 발전소가 완공될 예정이며, 민간 부문에 의한 독립 발전소(IPP)도 건설 중이다.

자. 유통업

나이지리아의 유통업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현대식 슈퍼마켓과 같은 체인망은 인도 및 레바논 인들이 대부분의 상권을 점유하고 있고 재래식 시장은 대부분 현지의 IBO족 상인들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철도가 발달되지 않아 대부분의 유통을 도로에 의존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도로망이 연결되지 못하고 기존의 도로사정도 극히 열악해 전국적인 유통업은 발달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물류 인프라 구축이 미미한 상황이다. 다만 라고스, 아부자, 카두나 등 대도시 부근을 중심으로 한 유통망이 전부이다.

현대식 슈퍼마켓의 경우 PARK'N'SHOP, CASH AND CARRY, LEVENTIS 등 세계적인 유통업이 현지에 진출해 있으며 이들 슈퍼마켓 체인은 나이지리아내 1개 도시에 지역별로 약 3~4개씩의 체인을 갖고 있다.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소형 슈퍼마켓은 매우 영세하며 각 지역별 1~2개에 불과하고 이것들도 대부분이 인도인과 레바논인들의 소유이다. 반면 나이지리아인들이 상권을 잡고 있는 재래식 시장은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노점상들을 포함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 도시 어디를 가도 노점상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재래식 시장을 살펴보면 크게 서부의 라고스 상권과 북부의 KANO, KADUNA 시장 상권, 남동부의 ENUGU, ABA, ONICHU 시장 상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라고스 상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시장상권으로 구분된다.

- 라고스 시장: 섬유, 일반잡화, 자수직물을 판매하는 제일 규모가 큰 시장
- BALOGUN시장: 라고스 시장과 인접한 시장
- ALABA시장: 라고스 근교에 위치한 전기, 전자제품 전문 시장
- APAPA시장: 전기 및 잡화 시장
- IDUMOTA 시장: 자동차부품, 의약품,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시장
- OSHODI 시장: 라고스 내 섬유 및 잡화판매시장
- IKEJA시장: 전자 및 잡화판매시장
- YABA 시장: 폴리에스터 직물 및 건축자재, 잡화 판매시장
- ALADE 시장: 잡 제품 전문시장

차. 자동차 산업

나이지리아의 자동차 산업은 1969년도의 단순조립단계를 거쳐 1970년도부터 1974년까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2곳의 승용차 조립공장이 건설되는 등 발전을 거듭했으며 1975년부터 1980년 사이 4곳의 자동차 조립공장이 추가로 건설되는 등 부흥기를 맞은 바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국제원유가 폭락으로 나이지리아 정부가 국가부도를 맞았으며 이후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보호 및 구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신차 및 중고차 수입 자유화 등으로 자동차 생산 산업은 극심한 침체기를 맞고 있다.

나이지리아 자동차 제조 플랜트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35%이상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며, 총 6곳의 자동차 조립공장이 있으나,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곳은 Peugeot Automobile Nigeria Plant(PAN, Kaduna 소재, Peugeot 자동차 조립 생산) 및 Anambra Motor Manufacturing Co. Ltd.(Enugu 소재, Mercedes Benz Truck 조립 생산) 등 2곳(모두 CKD 방식으로 생산)에 불과하며, 그나마 가동률이 극히 낮아 생산능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PAN의 경우 1972년 자동차 생산능력이 일산 264대로 나이지리아 최대 자동차 플랜트로, 나이지리아 자동차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었지만, 2007년 기준 PAN은 생산은 초기 생산능력의 11%에 그치고 있으며, 하루 자동차 생산은 겨우 30대에 달한다.

2007년 PAN은 생산저조로 인해 Alhaji Sani Dauda Motors에게 지분을 양도하게 됐으며, Mercedes-Benz 버스와 트럭을 생산했던 ANAMMCO도 GU Okeke & SOns Ltd.와 Mbanefo & Brothers Ltd.에 각각 지분을 매각하게 됐다. 이는 잦은 정전으로 인한 전력공급 부족으로 생산 라인의 가동률이 매우 낮으며,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합작파트너들이 모두 생산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당분간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영향이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2009년까지 국내 자동차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신차 및 중고 자동차 수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 의약품 산업

나이지리아 의약품 수요는 말라리아 치료제, 진통해열제, 소염제, 비타민,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위장약, 크림 및 연고제, 혈관질환제, 중추신경제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주재국 공식 통계미비로 구체적인 의약품 수요 파악이 어려우나 순수 의약품 시장은 약 1억 7,000만~2억 달러 시장 규모로 추산되며 이 중 약 40%는 130여 개에 달하는 현지 의약품 생산업체에서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60%는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의약품 업체의 주 생산 제품은 수요가 큰 말라리아 치료제 및 진통, 해열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동 분야에서의 자급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들 2개 의약품 계통에서는 전체 수요의 60%를 자체 공급하고, 40%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의약품 분야에서의 수입 의존도는 약 95%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순수 의약품 수입액은 최신 통계 기준 8,200만 달러 규모로 집계되어 있으나 수입상들의 수입 시 관행처럼 되어 있는 UNDER VALUE 및 유럽제 의약품의 밀수 금액 등을 감안할 때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수입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의약품계에서는 의료용 기기까지 포함할 경우 약 4억 달러까지 확대 해석하기도 한다. 특히 인구 1억 명의 방대한 시장규모와 고온 다습한 기후, 열악한 위생상태로 인한 각종 질병의 만연 등 의약품 소비시장으로서의 좋은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말라리아 치료제, 항생제 및 해열제, 종합비타민 등 3개 의약품이 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다. 제조업 일반

일반 제조업의 경우 현지 수요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제조가 시작됐으나 전력 부족, 사회 간접자본 열악, 숙련공 부족 등의 이유로 수입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극히 낮아 식품, 섬유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산품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심하며 일부 공산품 제조업체도 단순 조립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ern Africa States)

1) 창립연도: 1975년

2) 창립목적

- 아프리카 국가 간 경제통합과 지역연합
- 역내 공동번영 및 지역안정

3)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ern Africa States) 회원국

나이지리아, 세네갈, 코트디브와르, 가나, 기니아, 감비아, 라이베리아, 시에라레온, 말리, 니제르, 기니비사오, 부르키나파소, 토고, 베냉, 케이프베르디 등 서부아프리카 15개국으로 구성된다.

4) ECOWAS 통합목표

지역 안정군 설치, 인적 왕래 자유화, 역내 생산 제품 무관세 통관 등 EU 수준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다.

역내 생산제품 무관세 통관의 경우,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그 제품은 회원국 간 무관세로 교역할 수 있는데 현재 70여 개 품목이 무관세 대상품목으로 되어 있다.

ECOWAS는 현재 공동화폐 사용, ECOWAS 중앙은행 설립을 추진 중이다.

5) 공동관세도입 현황과 전망

공동관세는 품목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신문, 서적 등 필수품은 0%, 원자재, 자본재 5%, 중간재 10%, 완제품 20%로 일원화되어 있다.

각 회원국은 공동관세 도입 이전인 2008년 말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자율적인 관세 체계를 유지하며 ECOWAS 15개국 중 라이베리아, 케이프베르디 2개국이 2008년 최종 공동관세에 참가를 확정되었다.

나이지리아는 공동관세를 도입하기로 확정을 하였지만, 관련업계의 반발이 심하였다.

그러나 2008년 11월부터 나이지리아도 ECOWAS 공동관세(CET)를 도입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6) ECOWAS 공동관세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일단 공동관세가 도입되면 2008년부터는 회원국들이 하나의 관세국경을 가지게 되어 ECOWAS에 들어온 상품과 서비스는 역내에서 무관세로 자유로이 이동하게 된다.

공동관세가 시행되면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지고, 개별 회원국의 수입금지가 해제 되어 수입 수요 증가를 가져온다. 또한 15개 회원국 2억3,400만 명의 단일 시장이 출 범한다. 따라서 한국의 서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이 그만큼 유리해진다고 전망할 수 있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HS Co	Section	2006	2007	2008
I	Live animals; animal products	495	63,053	81,017
II	Vegetable products	198,168	325,769	318,661
III	Animal and vegetable fats and oils and other cleavage prod.	-	248	2,908
IV	Prepared foodstuffs;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tobacco	19,066	566,140	705,475
V	Mineral products	57,094,396	51,432,253	73,371,193
VI	Products of the chemical and allied industries	74,473	83,308	596,400
VII	Plastic, rubber and articles thereof	31,556	309,124	989,985
VIII	Raw hides and skins, leather, furskins etc.; saddlery	76,818	387,448	664,035
IX	Wood and articles of wood, wood charcoal and articles	2,282	90,614	62,021
X	Paper making material; paper and paperboard, articles	5,388	263,997	199,535
XI	Textiles and textile articles	18,761	96,227	264,569
XII	Footwear, headgear, umbrellas, sunshades, whips etc.	26,470	65,978	54,049
XIII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ceramic	4,509	16,130	19,059
XIV	Pearls, precious and semi-precious stones, precious metals	0	46	205
XV	Base metals and articles of base metals	13,794	229,725	306,070
XVI	Boilers, machinery and appliances; parts thereof	55,195	48,209	208,497
XVII	Vehicles, aircraft and parts thereof; vessels etc.	437,107	201,967	1,891,126
XVIII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appliances	57,885	3,604	3,651
XIX	Arms and ammunition, parts thereof	-	-	2,716
XX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102	1,168	72
XXI	Works of art, collectors' pieces and antiques	5	42	-
XXII	Special items not classified according to kind	-	-	-
	합계	58,116,472	54,185,050	79,741,244

환율: 2006년: N130, 2007년: N127, 2008년 : N120

자료: Nigeria Trade Summary 2008, 나이지리아 통계청

나이지리아의 주요 수출은 석유 및 가스를 비롯한 광물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작물을 비롯한 1차 산업이 주를 이룬다. 2007년 수출은 541억 달러이며, 2007년에 비해 6.8% 감소하였지만, 2008년 경기호조세로 전환되면서 수출은 797억 달러로 전년대비 47.1% 증가하였다.

나이지리아는 석유 및 가스 등의 광물자원의 수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가발, 가죽, 종이 등 노동집약 산업 및 플라스틱, 철강 등 제조산업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 푸조 자동차 공장(PAN)이 2008년 생산을 재개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광학제품의 대한 수출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HS	Section	2006	2007	2008
I	Live animals; animal products	1,387,627	2,214,164	988,601
II	Vegetable products	1,911,916	2,934,034	901,041
III	Animal and vegetable fats and oils and other cleavage prod.	80,980	186,710	132,608
IV	Prepared foodstuffs;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tobacco	750,832	1,476,256	776,199
V	Mineral products	998,080	1,176,552	949,507
VI	Products of the chemical and allied industries	2,182,473	3,028,584	2,193,105
VII	Plastic, rubber and articles thereof	1,780,390	2,771,667	1,771,029
VIII	Raw hides and skins, leather, furskins etc.; saddlery	4,994	16,017	35,167
IX	Wood and articles of wood, wood charcoal and articles	38,471	58,114	73,073
X	Paper making material; paper and paperboard, articles	707,696	966,688	694,168
XI	Textiles and textile articles	126,414	1,015,915	1,469,175
XII	Footwear, headgear, umbrellas, sunshades, whips etc.	16,967	31,566	57,650
XIII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ceramic	272,677	416,622	549,331
XIV	Pearls, precious and semi-precious stones, precious metals	585	1,912	4,965
XV	Base metals and articles of base metals	2,449,319	4,442,910	3,416,563
XVI	Boilers, machinery and appliances; parts thereof	6,379,802	7,174,365	8,582,251
XVII	Vehicles, aircraft and parts thereof; vessels etc.	2,927,812	4,087,175	4,133,517
XVIII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appliances	317,144	342,785	415,785
XIX	Arms and ammunition, parts thereof	31,517	44	41
XX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113,071	159,043	348,432
XXI	Works of art, collectors' pieces and antiques	68	372	266
XXII	Special items not classified according to kind	-	-	-
	합계	22,478,834	32,501,496	27,492,472

나이지리아의 수입은 2008년 274억 달러로 전년대비 15.4% 감소하였으며, 농수산물, 석유화학제품 및 기계류 수입 감소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나이지리아가 2008년 농업부분의 비약적인 성장 및 비석유산업 부분의 GDP 성장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는 자국의 제조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45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평균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제조산업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 신발, 섬유, 고무 등 기초생활품 이외에도 발전기, 보일러 등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원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를 정제, 가공할 수 있는 기술 및 인프라가 부족하며, 수입을 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익이기 때문에 석유화학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나이지리아는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과 발전소 건설 및 유지보수 등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 보일러, 발전기, 관련 산업 기계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중 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중고 자동차 및 신차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우리나라의 대(對)나이지리아 수출은 2007년에 두 배 가까이 폭증한데 이어 2008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특히 2007년의 23억 7,496만 달러(2006년 대비 1.9배 급증)에 이어, 2008년에도 전년 대비 6.8% 증가한 25억 3,599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의 대(對)나이지리아 수입은 원유도입 중단의 영향으로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대폭 감소하였다.

한-나이지리아 교역 추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1~7월	
				금 액	증감율
교역 규모	1,435,164	2,817,720	2,645,417	705,660	-
對나 수출	809,476	2,374,958	2,535,989	556,483	-72.3
對나 수입	625,688	442,762	109,428	149,177	9,260
무역 수지	183,788	1,932,196	2,426,561	407,306	-

자료: KITA, 2009년 7월 기준

2009년 1/4분기에는 국제유가 급락 및 달러화 강세에 따른 나이지리아의 경제성장 둔화로 對나이지리아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72.3% 감소하였다. 품목별로는 변압기(3,180%), 냉연강판(11,705%), 철강 및 비합금강형강(136,561) 등은 호조세를 이어갔으나, 합성수지(△44%), 승용차(△13%), 기타석유화학제품(△49%), 칼라TV(△17%) 등은 부진하였다. 아울러 최근 대 나이지리아 수출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편이다.

호조품목과 부진품목

호조품목	변압기(3,180%), 냉연강판(11,705%), 철강 및 비합금강형강(136,561) 의약품(48%), 철강재용기(3,374%), 타이어(618%), 화학기계(55%) 컴퓨터 (634%)
부진품목	합성수지(△44%), 승용차(△13%), 기타석유화학제품(△49%), 칼라TV(△17%), 축전지(59%), 무선전화기(28%), 기타섬유제품(△40%), 선박(99%), 시멘트(△56%)

주요 품목별 대(對) 나이지리아 수입 추이

(단위 : 미\$ 천,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1~7월	
				금 액	증감율
천연가스	55,665	111,889	106,666	80,112	-
LPG	0	0	0	45,495	-
용접기	0	349	2	12,250	-
철구조물	29,169	37,931	0	9,568	-

자료: KITA, 2009년 7월 기준

주요 품목별 대(對)나이지리아 수출 추이

(단위 : 미\$ 천, %)

품목명	2006	2007	2008	2009(1월~07월)	
				금액	증가율
합성수지	264,269	310,495	351,052	115,619	- 44
승용차	50,175	103,921	205,681	83,476	- 13
제트유및등유	-	-	-	51,197	-
변압기	21,203	5,035	11,010	26,939	3,108
기타석유화학제품	50,812	64,958	82,962	25,328	- 49
칼라TV	7,679	18,092	36,316	22,347	- 17
축전지	23,664	18,397	62,454	19,626	- 59
무선전화기	26,722	19,146	42,801	17,885	- 28
기타섬유제품	16,423	33,295	42,563	16,221	- 40
선박	-	-	1,318,597	13,216	- 99
자수포	22,472	16,029	19,998	11,819	33
기타정밀화학원료	7,662	18,416	17,170	11,362	21
냉연강판	-	-	138	10,568	11,705
철강및비합금강형강	389	5,530	11,737	9,214	136,561
시멘트	14,397	20,274	31,499	7,525	- 56
의약품	5,142	5,498	10,119	7,198	48
중후판	-	-	15	6,313	-
안료	3,295	6,081	9,069	5,112	- 5
화물자동차	7,521	4,834	37,393	3,729	- 82
공기조절기	569	2,306	9,010	3,504	- 51
기타철강금속제품	6,653	4,366	8,554	3,353	- 29
철강재용기	-	-	96	3,035	3,374
원동기	-	-	4,641	2,989	- 19
유선전송장치	-	-	15,969	2,982	- 53
타이어	5,372	3,934	2,573	2,825	618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	-	-	4,232	2,770	- 14
알루미늄조각품	4,017	4,918	3,956	2,724	30
기타플라스틱제품	2,073	1,914	4,434	2,323	- 16
화학기계	-	-	9,320	2,258	55
컴퓨터	-	-	590	2,110	634
주단강	8,129	1,845	3,773	2,058	663
철강관	4,219	6,628	4,101	2,027	50
주철	-	-	6,456	1,955	- 68
장신구	1,841	2,280	4,354	1,917	- 1
기타기계류부품	280	657	8,392	1,901	- 70
석유화학중간원료	267	307	2,639	1,843	- 27
자동차부품	4,685	3,824	3,612	1,654	- 19

자료: KITA, 2009년 7월 기준

반면, 우리나라의 對 나이지리아 수입은 원유 도입 중단 영향으로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수입이 전무하나, 천연가스와 LPG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3. 수입규제제도

가. 모든 수입제품에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부합평가프로그램 확대 적용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Nigeria)은 2009년 6월 5일, 생명위험제품군(Life Danger Goods)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부합평가프로그램(Standards Organisation of Nigeria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me)을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청(National Agency for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Control)이 관리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제품에 대해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부합평가프로그램 적용 제외품목

- Food Products
- Drugs
- Medicals other than Equipment and Machines
- Chemicals used as Raw Materials
- Military Wares and Equipment
- Aviation related Products
- Industrial Machinery for Manufacturing
- Used Products other than Automobiles
- CKD Bicycle, Motorcycle, Automobiles for Bonafide Manufacturers·Assemblers

이에 따라 제외품목 외의 제품을 나이지리아에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한국사무소에서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부합평가프로그램 확인서를 발급받아 선적서류와 함께 나이지리아 수입업체에 보내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입통관이 거부될 수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11월, 생명위험제품군(장난감, 전기제품 및 전자제품,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부품(CKD, 자동차 유리, 타이어, 배터리 포함), 화학제품, 기계공구 재료 및 가스기기, 종이제품 및 문구류, 방호용 안전장비)에 대한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부합평가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또한 GDP의 1/3, 재정수입의 75%, 외화수입의 95%를 점유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가스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제조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제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수입화물에 대한 전량 검사 등 수입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09년 6월 5일부터 90일간의 과도기간을 거쳐 2009년 9월 5일 통관분부터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제외품목 외의 제품을 나이지리아에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한국사무소에 접촉해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향후 나이지리아 공항 및 항만 등에서 수입화물의 통관이 거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한국사무소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3 두비빌딩 3층
- 전화 : 02-775-5255
- 팩스 : 02-775-5266
- E-메일 : info.seoul.gs@intertek.com
- 담당자 : Monica Kim(General Manager), Rachel Lee, Paul Kim

나. 수입 상품의 도착지 검사제도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5년 1월부터 그 동안 유보해 온 수입품의 도착지 검사(Destination Inspection) 제도를 전격 시행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그 동안 수입 상품의 품질 강화를 목적으로 선적 전 검사제도(Pre-Shipment Inspection)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적 전 검사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허위 보고서를 남발하고, 이에 따른 품질 저하는 물론 밀수와 탈세가 급증했다고 판단한 정부는 이를 방지하고 선적 전 검사에 따른 외환낭비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착지 검사제도를 200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검사 인력 및 장비 부족 등 내부적인 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시행 시기를 계속 유보해 오다 2005년 1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준비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된 도착지 전수 검사는 시행 초부터 당초 목적인 부정행위 방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차치하고 심각한 항만 적체 현상을 야기시켜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처음 제도 도입 시 많은 상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검사 기계(Scanning Machine)의 다량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적체된 수입상품을 신속히 검사하고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의도한 바와 달리 검사 기계의 도입도 지지부진하고 관련 종사자의 교육, 행정적 체계 보완도 미흡한 상태에서 시행된 새로운 검사제도는 또 다른 부정의 소지를 낳고 있으며, 심할 경우 수입 상품이 2~3달 도착지 항구에 발이 묶여 엄청난 비용 부담은 물론 유통 부문에서도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

최근 나이지리아 부두 적체 현상이 완화가 되면서 항만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나이지리아 최대 항만인 라고스 항의 일부 부두에 대한 민영화로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도착지 검사제도로 인한 화물의 하역 및 통관에 발생하는 시간지연 및 부정부패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남아 있다.

다. 수입금지품목 리스트

나이지리아 재무부는 종전 수입금지품목('04.2.25발표)을 조정한 신규 수입금지품목을 '05. 4.6일자로 발효했다. 재무부가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 신규 수입금지품목은 43개 품목군으로 종전 수입금지품목군 18개에 비해 25개 품목군이 증가했다. 수입금지품목으로 자전거 부품 등 13개 품목이 새로 추가되는 한편, 비누세제 원료 등 일부 품목은 수입금지가 해제됐다. 종전에는 수입이 허용됐으나 수입금지 조치에 신규 포함된 품목은 3개월 이내에 나이지리아에 물건이 도착하거나 세관통관이 완료돼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관계 기관에 의해 압수당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불법수입 및 반덤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대량의 컨테이너를 하역한 이후 하역관계자 등과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반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품목의 제품들이 불법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는 바로 국내 시장에 저가로 판매되고 있다.

한국의 대 나이지리아 최대 단일수출품목인 자수직물의 경우, 자수직물 제조를 위한 원단 및 원사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수입금지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자수직물에 대한 수입 금지는 계속 유효하니 우리나라의 수출에는 별 도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확정된 수입금지품목을 검토한 결과,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신규 수입금지품목과 수입금지 해제품목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1) 수입금지 품목(전체)

- 산 조류 또는 죽은 조류(냉동가금 포함)
- 돼지고기, 소고기 및 그 가공품, 양고기, 염소고기
- 새의 알(계란 등)
- 꽃(조화 및 생화)
- 카사바 및 그 제품
- 신선 및 건조 과일
- 옥수수, 조, 수수
- 밀가루
- 식용유 및 지방(공업용 원료 제외)
- 과자류(초콜릿 제외)
- 코코아, 버터, 분말, 케이크
- 스파게티 국수(Lasagne 등은 제외)
- 비스킷
- 과일주스
- 물(생수, 소다수 등)
- 맥주(병, 캔 등)
- 벤토나이트 (Bentonites)와 중정석 (Barytes)
- 시멘트(백시멘트 제외)
- 처방 의약품(세부품목 첨부 참조)
- 일반 의약품(세부품목 첨부 참조)
- 치약
- 비누 및 세제(원료 제외)
- 모기 퇴치 코일, 소독제, 살균제
- 플라스틱 위생용기
- 이쑤시개
- 재생 및 중고 타이어
- 골판지
- 봉투, 일기장, 엽서카드, 달력
- 노트
- 직물 및 그 제품, 섬유사 (수입금지 예외품목 첨부 참조)
- 신발 및 가방(안전화, 스포츠화 제외)
- 칼, 도끼, 삽, 괄이
- 중고 컴프레서, 중고 에어컨, 중고 냉장·냉동고

- 중고 자동차(제조연도 기준 8년 이상 경과)
- 자전거 및 부품
- 손수레
- 가구
- 발전소음방지 케이싱
- 게임기
- 볼펜
- 빈 유리병

□ 기타 재정정책 조치

- 의약품
 - 의약품료 2.5% 관세, VAT면제
 - 국내 생산이 되나 내수 총당이 어려운 의약품 20% 관세
 - 국내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 5% 관세
 - Pharmaceutical Grade Starch(제조업체 5%, 기타 50%)
 - 말라리아 및 에이즈 치료제 0 %
 - 의약품 포장자재 5% 관세
- Manufacture In-Bond Scheme(MIBS)
- 로프 및 케이블 40% 관세
- 스틸 및 화이버 로프 원자재 5% 관세
- 완성차(버스) 10% 관세
- 산업용 기계 및 부품 2.5% 관세, VAT 면제
- 국제기관 기증품 0.5%

2) 신규 수입금지 품목(추가)

- 새의 알
- 옥수수
- 코코아, 버터, 분말, 케이크
- 의약품(일부)
- 소독제, 살균제
- 위생플라스틱 용기
- 일기장, 엽서카드, 달력
- 티슈, 타월, 위생용품
- 여성용 신발, 가방(가죽 및 플라스틱)
- 자전거 부품

3) 수입금지 예외품목(수입 가능)

- 식물성 기름 및 지방 일부(산업용)
- 초콜릿
- 국수류 일부(Lasagna 등)
- 백신멘트
- 섬유(세부품목 첨부 참조)

- 안전화(석유산업사용) 및 스포츠화
- 스타디움용 의자, 가구제조용 fittings & accessories
- 기타 조립 건물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09년 기준 나이지리아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다.

5. 관세제도

가. 개요

수입관세는 IMPORT DUTY와 SUR CHARGE, VAT 및 특정품목에 대한 조합공제금 등 약 4가지로 구분된다. IMPORT DUTY는 CIF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며 SUR CHARGE는 IMPORT DUTY 금액의 7%, VAT는 IMPORT DUTY와 SURCHARGE와 CIF 수입 물품 가격을 합한 금액의 5%를 부과하며, 자동차 부품과 같은 품목은 자동차 부품 조합에 납부하는 LEVY CHARGE(CIF 금액의 약 2%)를 별도로 지불한다.

나. 수입품 검사제도(Form M 및 Clean Report of Inspection 발부 절차)

2005년도부터 나이지리아로 수입되는 개인 사물, 중고 자동차, 병아리, 백신, 이스트 등 상하기 쉬운 품목과 잡지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선적 전 검사는 물론 도착지 전수 검사 병행 검사 방법을 크게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나이지리아 표준국(SON)은 2005년 9월 1일부터 필수 검사 제도의 하나로 품질 표준 검사(SONCAP 증명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중요 공산품 및 기계류 제품들은 출발지에서 나이지리아 표준국이 지정하는 검사 기관(나이지리아 표준국 해외 사무소)으로부터 SONCAP 증명서를 발부받아 도착지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이지리아 표준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판매되는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공식 명칭은 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SON)이라 한다. 나이지리아 수입상들은 은행을 통해 Form M을 작성해야 하고, 은행은 나이지리아가 지정한 검역 기관에 Form M을 송부해야 한다.

은행을 통하여 검역기관에 전달된 Form M과 제반 서류들은 외환송금 여부에 따라 “Valid for Forex” 혹은 “Not Valid for Forex”으로 명시된다. (Not Valid for Forex의 경우는 수입상이 외환송금을 책임지고 은행은 서류 대행) Form M과 Proforma Invoice에는 수입물품의 정확한 명칭 및 세부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Form M은 선적 전 검역기관, 수입상 은행, 나이지리아 세관 및 나이지리아 해운협회(NMA)에 각각 1부씩 보내야 한다.

Form M은 선적 전 검역기관 사무소나 나이지리아 대사관, 국내은행, 나이지리아 은행 해외지점 및 관련 은행에서 구할 수 있다. 외국에서 작성된 Form M은 외국소재 선적 전 검역기관을 통해 나이지리아의 지정 은행 혹은 수입자 은행에 보내진다. 검역제외품목과 재무장관이 승인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은 검역기관의 CRI(Clean Report of Inspection) 발행이 필수적이다.

수입상은 선적 전 검사기관이 검사를 종결한 후 CRI(Clean Report of Invoice)를 발급할 수 있도록 수출상에게 72시간 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선적 전 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수출상은 선적 전 검사기관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고, 선적 전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때는 최소한 3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검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순수 검사수수료 제외)은 수출상이 부담한다. 검사통지를 받은 선적 전 검사기관 요원이 검사를 하고자 했을 때, 검사 준비가 미흡하여 검사 시점을 연기하거나 다시 검사해야 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는 수출상이 부담 해야 한다.

다. 수입관세율

1) 수입관세

나이지리아 수입관세는 품목별로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품목별로 5~150%
- 항구 개발비(Port Development Fee): 관세의 7%
- 아프리카 경제협력 자유무역기구 부담금(ETLS): 관세의 0.5%
- 부가가치세(VAT): 관세의 5%
- 선적 및 검역비: FOB의 1%

2) 관세 장벽 문제

관세는 원유 수출 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단행된 주요 관세 개정안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정부는 총 230개 품목(주로 원자재, 지금(base metals), 원자재)에 대해 최하 2.5%까지 관세를 인하한 반면 플라스틱, 고무, 알루미늄 제품 등의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65%까지 관세를 인상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옥수수나 쌀과 같은 농산품은 각각 70%, 100%로 관세율을 인상하고 있고, 동 수입 금지 품목은 2007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이후에는 관세화할 예정이다.

빈번한 수입정책 변화와 일관성 없는 관세 징수로 인해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종종 심각한 상업적 병목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나 완성품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여 해외 수출업체나 국내 생산업체들에게 사실상 많은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3) 통관 장벽 문제

나이지리아의 고질적인 악습 부두 관행(port practices)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수입업체들은 장기간의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로 인한 정박 및 하역 비용이 매우 높으며, 통관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은 수입품 밀수나 고의적인 저평가(under-valuation)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100% 직접 검사 프로그램의 시행을 한층 더 강화했으나 사실상 모든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만한 시스템이나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착지 전수 검사 제도는 심각한 항만 적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4) 각종 검사제도에 따른 장애(표준, 시험, 라벨링, 인증)

SPS 기준·시험·라벨링 관련 규정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절차의 번잡함으로 인해 수입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물, 약품, 화장품 및 살충제 수입품은 제조업체와 적절한 국가기관으로부터 발행된 분석확인증(certification of analysis)을 구비해야 한다.
- 특정 동물 제품이나 식물, 씨앗, 토양 등은 반드시 적절한 검사 확인증을 수반해야 한다.
- 내국법에 의거, 나이지리아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미터법(the metric system)으로 표기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관세와 일관성 없는 수입 및 라벨링 규제 적용은 고부가가치의 시한성 제품(perishable products) 수입에 막대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고, 빈번한 부처 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과 통관 가이드라인의 변경은 나이지리아에 입항하는 물류의 지연원인이 되고 있다.

라. 관세율 알아보는 법

나이지리아의 관세율을 알아보는 방법은 나이지리아 관세청으로 연락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관세청은 수도 아부자 및 주요 항구에 위치하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COSTMS OFFICE IN NIGERIA
 - 주소: 3-7, Abidjan Street, Zone 3, Wuse, Abuja
 - 전화: 234-09-5234680, 5234681
 - 팩스: 234-09-5234690
 - 웹사이트: www.customs.gov.ng
- Apapa Port
 - 주소: Custom House, Apapa Port
 - 전화: 234-1-5873746, 5873829, 5870100
- Tin-Can Island Port
 - 주소: Custom House, Tin-Can Island, Port, Lagos
 - 전화: 234-1-5453241, 5803991
- Lagos Industrial Custom House
 - 주소: Custom House, 21 Road, Festac Town, Lagos
 - 전화: 234-1-880431, 884198

6. 주요인증제도

가. 나이지리아 식약청(NAFDAC)

의약품수출에 있어서 주재국 정부차원의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으나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나이지리아 식약청(NAFDAC)에 엄격한 검사과정을 거쳐 등록한 후, 동 기관에서 발급하는 수입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등록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비용, 기술적 자료 제출은 통상 공급자(수출업체) 측에서 부담 또는 지원하는 것이 관행이다.

1) National Agency for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Control

- 주소: Plot 2032, Olusegun Obasanjo Way, Zone 7, Wuse, Abuja,
- 전화: 234-9-5240995, 5240996
- 팩스: 234-9-5240994
- E-메일: nafdacdg@nafdacnigeria.org
- 홈페이지: www.nafdacnigeria.org

2) 약품 등록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

1993년의 법률 15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되지 않은 어떤 의약품도 제조되거나 수입, 수출, 광고는 물론 유통시킬 수 없다.

3) 등록 시 필요사항

- 제조업자는 의약품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 외국 제조업체는 등록된 회사 혹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 외국 제조업체는 제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및 법적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현지 대리인을 위임해 Power of Attorney(위임장)를 제출해야 하며, 공증된 위임장 원본을 NAFDAC에 제출해야 한다.
- 수입품의 경우, 제조업체는 제조국가 보건당국으로부터 발급된 제품제조 허가여부 증명 서류와 제조회사 허가증(Manufacturer's Certificate)을 제조국가에 설치된 나이지리아 대사관으로부터 공증받아 제출한다.

4) 등록 절차

NAFDAC 등록부서에 제조자명, 제품명(브랜드명), 효능 및 설명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FORM D-REG/001)는 제품당 약 4달러 정도이며, 수취인이 NAF DAC으로 되어 있는 은행 Draft를 끊어 구매할 수 있다.

5) 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 제반 서류 복사본 5부
- 약품 샘플 3봉
- 약사로 활동할 수 있는 최근 연간 허가증(Superintendent and Production Pharmacists' License)
- 나이지리아 약사협회(Pharmacists Council of Nigeria, PCN)에서 발행한 회사등록 허가증
- 약품 각각에 대한 신청서는 제품별로 작성해 따로 제출해야 하고, (여기에서 약품이라 함은 각각의 약품 공식표시를 의미한다) 다른 효능을 가진 약 성분에 대한 등록은 한 서류에 같이 신청할 수 없다.

6) 포장 및 라벨링

- 라벨링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포장 시 제품 브랜드명과 상품명에 기재해야 한다. 상품명은 브랜드명과 같은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제조업자의 주소, 일련번호, 제조 일자 및 유통기한, 복용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인 경우 설명서가 동봉되어야 하며, 복용의 징후, 증상, 성분 함량 표시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상품명은 브랜드 명과 함께 명확하게 명기해야 한다.
- 이미 등록된 상품명, 포장, 라벨과 비슷하거나 혼동의 여지가 있는 의약품들은 등록할 수 없다.
- 외국어로 표기된 의약품들은 영문 해석이 동봉되어야 한다.
- 수입의약품의 포장과 설명서는 원산지의 것과 동일해야 한다.
- 이러한 사항들을 어겼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
- 등록허가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은 5년의 유효기간을 둔다.

7) 유의사항

- 제품이 등록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광고 허가를 주는 것은 아니며, 광고는 별도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기관의 승인 없이 광고를 낸 경우 등록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NAFDAC은 유효기간 안에 허가취소, 연기, 변경의 권한이 있다.

8) 등록(갱신)비용

- 전문 의약품
 - 수입 허가: 80.00달러
 - 절차 비용: 1,069.00달러
 - 등록허가증: 757.00달러
- 일반 의약품
 - 수입 허가: 80.00달러
 - 절차 비용: 80.00달러
 - 등록허가증: 602.00달러

9) 현지 수입관세 및 부가세

- 현지에서 제조하는 의약품의 경우: 20%
- 외국에서 제조되어 수입하는 경우: 5%
- 원재료 수입관세: 2.5%
- 정부 정책에 의거 수입되는 말라리아 치료제(Artemisinin, Lumefantrine Amodiaquine active): 0%
- 에이즈 치료약: 0%

여기에 아래와 같은 준 조세액이 추가 부과된다.

- 항구 개발비(Port Development Fee): 관세의 7%
- 아프리카 경제협력 자유무역기구 부담금(ETLS): 관세의 0.5%
- 선적 전 검역비: FOB의 1%

10) 외국 제조품 등록 지침

- NAFDAC에 등록되지 않은 규정품을 나이지리아로 수입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며, 외국 제조업자의 현지 에이전트들은 나이지리아 시장에 부합한 규정품들이 수입되기 전에 NAFDAC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위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미등록 상품은 항구에서 보세창고로 넘어가며, 비용은 수입상이 지불해야 하고, 이 경우 수입상의 기소뿐만 아니라 반입된 제품들은 Commission of the offense가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자산 혹은 부동산과 함께 정부에 압류 조치된다.
- 그러나 나이지리아 식약청은 적은 수량의 샘플 제출용 미등록 제품에 대해 수입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허가증(수입하려는 미등록 제품의 수량을 명시해야 함)은 the Federal Secretariat, Phase II, 2nd and 5th Floors, Ikoyi, Lagos에 있는 NAFDAC 등록부서에 가면 취득할 수 있다. 수입샘플이 도착해 항구에 있는 NAFDAC 검사자에게 이 허가증을 제출하면 다른 일반 수입품과 같은 방법으로 취급되나 제품이 항구에서 통관되기 전에 수입상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미등록제품 샘플의 수입허가서
 - 항구검사비조로 끊은 은행 어음
 - 미 기입 항목 없이 작성된 Customs Bill of Entry
 -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of the Product)
 - 제품의 규제, 단속을 하기 위해 원산지 정부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제조증명서 및 자유거래서(Certificate of Manufacture and Free Sale)
- 이러한 규제를 강화,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샘플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 제조업체 이름
 - 제조업체 주소
 - 제품명(필요하다면 브랜드 및 속명 기재)
 - 제조일자
 - 유통기한 혹은 Best Before Date
 - Batch Number
 - 보관 및 사용 방법
- 등록절차는 등록서류를 사서 서류를 작성한 후 샘플 및 등록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다른 제반 서류들과 함께 등록부서(Registration Division)에 제출하면 된다. 공증을 받은 Power of Attorney는 필수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는 외국 제조업자가 나이지리아 현지 에이전시를 선정하여 대리인으로서 인정한다는 문서이다. 서류작성 및 제출은 실제등록 절차의 시작을 의미하며, 자국 내 제조 제품의 등록절차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11) 화장품 등록서류 및 절차

□ 등록서류 및 필요사항

- 제조업자가 작성한 화장품 등록신청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 외국 제조업체의 경우,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맡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현지 등록된 회사 혹은 개인 대리인을 뒀야 한다.
- 외국 제조업체는 제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및 법적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현지 대리인을 위임 Power of Attorney(위임장)를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 원본은 공증 받아 NAFDAC에 제출해야 한다.

- 현지 대리인에 관련하여 위임장을 받은 법인 혹은 개인은 법 규정 하에 수입제품이 유해 물질과 연관되어 있거나, 증명서의 범죄 악용·허위로 표기되거나, 모조·부식성의 혹은 표준 이하의 화장품 수입을 국가당국에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수입품의 경우, 제조업체는 원산지에서 판매를 위한 제품 제조 허가가 있는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Manufacturer's Certificate)
- 제조 허가증은 제조국가 보건당국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야 하며, 제조국가의 나이지리아 공관으로부터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등록절차

- 신청자는 NAFDAC 등록부서에 제조자명, 제품명(브랜드명)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에 필요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 신청서류는 각 제품당 해당금액을 지불하여 발행된 수취인이 NAFDAC, LAGOS로 되어 있는 은행어음을 가지고 취득할 수 있으며, 규정품 각각에 대한 신청서는 제품별로 작성해 따로 제출해야 한다.

12) 수입상을 위한 지침

외국제품이 NAFDAC에 등록만 되면 법적으로 수입 및 유통, 판매가 가능하다. 이런 규정 제품의 수입절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수입상은 항구에 있는 NAFDAC 사무소(제품이 항구, 공항 혹은 국경에 도착하면 검사 실시)가 실시하는 검사에 앞서 다음의 서류와 규정품의 정식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 작성된 Customs Bill of Entry
- 규정품의 등록증서
- 원산지 보건 당국에서 발행한 제조증명서 및 자유거래서 원본
- 제품분석 증명서 원본
- 기타 추가 필수 정보:
 - 수취인이 NAFDAC으로 되어 있는 은행어음에 대한 대금지불 영수증
 - 수입상 회사(공장) 주소
- NAFDAC 실험실로부터 사람 몸에 적합하다는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사인한 수입자의 약속 증명
- 우유, 어류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정부기관이 발행한 방사테스트 증명서 복사본이 위의 1~5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수입상이 약사이거나 약사를 고용하고 있다는 증빙서류
- 나이지리아 약사협회(Pharmacist Council of Nigeria, PCN)에서 발행한 최근 연간 등록 허가증/retention of premises(등록자가 실제로 등록된 주소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증서)의 복사본
- 나이지리아 약사협회에서 발행한 최근 연간 Superintendent Pharmacist License 복사본 또는 수입약품이 규제 약품이거나 화학 약품일 경우 마취약(마약성분) 및 규제품목을 취급하는 NAFDAC Directorate에서 발행한 허가 증서가 필요하다.

13) 참고사항(수입금지 의약품)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2007년 자국 의약품 산업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아래 일부 필수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 Paracetamol tablets and syrups
- Cotrimoxazole tablets and syrups
- Metronidazole tablets and syrups
- Chloroquine tablets and syrups
- Hematinic formulations
 - Ferrous Sulphate and ferrous gluconate tablets
 - Folic Acid tablets
 - (iii) Vitamin B Complex tablets (except modified release formulation)
- Multivitamin tablets, capsules and syrups (except special formulations)
- Aspirin tablets (except modified release formulation and soluble aspirin)
- Magnesium trisilicate tablets and suspension
- Piperazine tablets and syrups
- Levamisole tablets and syrups
- Clotrimazole cream
- Ampicillin/Cloxacillin combination capsules
- Ointments penicillin/gentamycin
- Pyrantel Pamoate tablets and syrups

나. 나이지리아 표준 기구(Standards Organization of Nigeria; SON)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5.9.1일부터 자국에 반입되는 특정 기계류에 대해 나이지리아 표준 기구(Standards Organization of Nigeria; SON)에 사전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최소한의 안전요건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이 제도는 수출업자가 수출국에 소재한 SON Country Office(SONCO)에서 선적 전 SONCAP(Standards Organization of Nigeria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이라는 안전인증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SONCAP 안전인증 확인서가 없을 경우 나이지리아 항구에서 통관이 거부되며, 통관이 거부될 경우 선적품을 재수출 하거나 안전테스트가 완료될 때까지 통관이 지연될 수 있다.

1) 안전인증확인서 발급 대상품목

-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유리, 자동차부품 및 CAD, 배터리, 가스 용품, 장난감, 아연도금 철강제품, 발전기를 들 수 있다.

2) SONCAP 확인서 발급절차

- Product Certificate(제품 확인서): 3년 유효
- 제품 확인요청서 RFPC(Request for Product Certification)양식을 기입한 후 검사 보고서(Test Report)를 첨부, SONCO에 제출하면 Product Certificate를 발급받게 되며 reference number가 부여된다.

- 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사유를 명시해 통보되며 필요 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Test Report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SONCAP Certificate는 매 선적 시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는 SONCAP Certification을 나이지리아 수입업자에게 송부하며, 수입업자는 선적품 통관 시 이를 세관에 제출한다.

3) 발급 수수료

- 1개 품목 당 1개월에 18달러씩 부과(최소금액 한도 216달러)
 - (예) 수수료: 18달러x12개월=216달러
- 동일 Test Report 에 있는 품목이나 모델이 다른 경우 2달러씩 추가
 - (예) 수수료: 2달러x12개월x추가 모델 1개=24달러(추가금액)
- SONCAP Certificate 발급
 - 1회 발급 시 180달러(매 선적 시 발급)
 - 수정 본 발급(Amendments) 50달러
 - 사본 발급(Duplicates) 50 달러
- 한국 사무소(SONCO in Korea)
 - 주소: 3F, Doobee Building, #11-3, Jeong-Dong, Joong-Gu, Seoul 100-120, Korea
 - 전화: (82) 2 775 5255
 - 팩스: (82) 2 775 5266
 - E-메일: info.seoul.gs@intertek.com
 - 담당자
 - General Manager : Monica Kim / Operations Manager : Rachel Lee
 - Senior Export Coordinator : Paul Kim

7. 지적재산권

가. 관련 협약 가입 현황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일원이며, 세계저작권 조약(UCC), 베를린 협약,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현재는 WTO 규정과 합치된 IPR 제도의 법적 근간을 확립할 법안을 의회 계류 중이다.

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제도적인 역량 부족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는 IPR 문서의 불법 변경이 만연하다. 나이지리아는 상기 협약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고, 포괄적인 IPR 법규의 존재 및 나이지리아인들의 IPR에 대한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해적활동 (piracy)이 만연해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약품, 비즈니스 및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음악, DVD 및 기타 소비재품의 복제품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서적류 불법 복제 문제도 심각하다. 이러한 불법 복제품은 나이지리아에서 제조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및 인도 등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수입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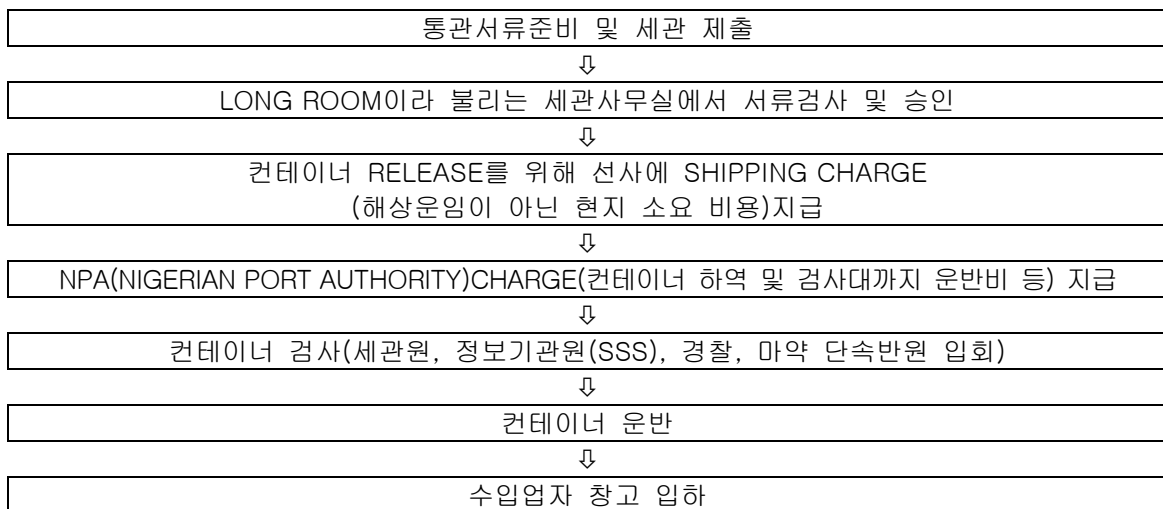
특허권 및 트레이드마크 관련 법 집행도 미약한 상황이고 법 절차의 진행도 느린 한편 부패의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방송법은 국내 방송사가 외국 방송사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한 외국 프로그램을 방영하거나 동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 동 규정은 일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케이블 사를 중심으로 외국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방영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8. 통관/운송

가. 통관절차

통관은 나이지리아의 민간 통관업체가 대행해 주고 있으며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나. 소요비용

20FT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할 때 관세 및 제반 소요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수입관세: CIF가격에 수입관세율을 적용 부과
- SUR CHARGE: 수입 관세 액의 7 %
- VAT: 전체수입액, 수입관세, SUR CHARGE를 총 포함한 금액에 5%
- 기타 SHIPPING CHARGE(컨테이너 담보금 포함), NPA CHARGE, BLOCK STOCKING MONEY(컨테이너 조기 하역을 위해 중간에 있는 컨테이너를 위로 올리는 급행료 성격의 비용), 통관사 수수료, 통관 컨테이너 창고까지의 운송료 등이 필요하며 전부 합해 대략 25만 나이라 정도가 소요된다. (환율: 미\$ 1= N 145.51, 2009.5.8 기준)

다. 수입신고 및 필요 서류

수입자 혹은 통관 회사들은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한 Single Goods Declaration(SGD) form을 작성, 신고해야 한다.

- 선적 전 검역기관으로부터 발행된 Clean Report of Inspection(CRI) 복사본

- CRI상의 수입관세 및 지정은행에 지불한 법적 비용 영수증
- SON CAP Certificate
- 수출입자의 사인이 포함된 인보이스(Attested Invoice)
- 은행이 확인한 Form M
- B/L(Bill of Lading) 혹은 Airway Bill 사본
- Packing List
- Certificate of Insurance
- Permits/Health Certificate if applicable

라. 통관 소요기간

기본적으로는 통관 서류를 받은 후 24시간 내에 통관 완료 후 DELIVERY가 원칙이나 현재 신 정부 수립 후 부정부패 단속 강화 차원에서 세관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됐고, 각종 검사(도착 후 전수검사, 마약단속, 등)의 지연 등으로 인한 항만 하역의 심각한 적체 현상으로 통관 소요기간을 예측할 수 없으며 심한 경우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마. 주요 항구

나이지리아 주요 항구는 다음과 같으며, 최근 나이지리아 주요 항구의 물동량을 분석한 결과 최대 항구인 Apapa는 9.34% 증가한 반면, Tin Can Island는 24.47%가 증가했다. 이는 Apapa 항의 심각한 적체로 인해 일부 물동량이 Apapa 항보다 내륙에 위치한 Tin Can 항으로 일부 이동했기 때문이다.

- Apapa Port
- Tincan Port
- Port-Harcourt
- Kano Port
- One Port
- Calaba Port
- Lilypond Port
- Warri Port

바. 한국-주재국 간 운송 소요기간

일반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던칸 항구에서 환적해 나이지리아로 운송된다. 평균 소요기간은 약 35일 정도이다.

사. 감독기관

종래 항구 도착 화물 통관 시 PIDA(Professional Import Duty Administrators)를 공식 통관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이를 1999년 6월 30일부로 폐지했다. 따라서 2008년 기준 아래 3개 기관이 나이지리아의 통관 감독 기관이다.

- Nigerian Customs Service(세관)
- The Port Police(항구경찰)
- The Nigerian Immigration Service and Authorized Agents(이민국)

그 외에 SSS(비밀경찰), 마약단속반원, 특수경찰, NDLEA, Plant Quarantine 등과 같은 특별검사기관 관계자들이 통관에 관여하고 있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환경

현 민선정부의 집권 3기에 들어서고 있으며 2009년 9월 기준, 나이지리아 투자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화되어 있지만, 2008년 12월 국제금융위기의 영향과 더불어 현 정부의 프로젝트 전면재검토 등으로 신규 투자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1962년에 제정된 Exchange Control Act, 1989년의 Nigeria Enterprises Promotion Decree, 1988년의 Industrial Development Coordination Committee와 같은 제도적 걸림돌이 거의 제거되었으며, 대신 투자유치업무를 총괄하는 NIPC (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가 설립되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재 최대 외환 수입원인 원유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연간 7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주요 투자정책

외국인의 투자범위가 확대되어 석유와 Negative List(무기, 마약, 화약, 군 장비)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 투자가 가능하며, 합작투자뿐만 아니라 100% 단독투자도 가능하다. (은행, 보험, 광산업 투자가능) 또한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매매가 가능하며, 자본 및 이윤의 해외송금도 보장한다.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투자진흥위원회(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의 신설로 나이지리아 내 투자확대 방안을 전체적으로 기획, 조정하며 외국인 투자문제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양자 및 다자적 방법에 의한 신속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주재국 정부는 외국 자본의 국내 유치를 위해 각종 조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식품 원자재, 기계류의 수입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공업이나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업 파급 효과가 크고, 국내보존 자원을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각종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며 수입대체품목의 경우라 해도 단순히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생산만 하는 분야는 그 혜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주재국 정부는 2004년부터 2009년 5월 기준, 현지 생산 혹은 대체 가능한 45개 소비재 완제품 품목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하는 등 자국산업 보호 및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강력히 펼쳐 나가려는 의지를 보인다.

- 나이지리아 정부의 투자정책 중점목표
 - 급속한 산업발전
 - 국내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한 자립경제 체제의 확립
 - 수출산업의 육성
 - 고용효과의 증대
 - 산업기술의 습득
 - 무역 증진
 - 산업의 다양화를 통한 균형 있는 산업발전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우선 순위
 - 국산원자재 사용비율이 최소 80%이상인 농업분야

- 국산원자재 사용비율이 최소 80%이상인 석유화학분야
- 국산원자재 사용비율이 최소 70%이상인 농업관련분야(종이, 펄프, 섬유 등)
- 국산원자재 사용비율이 최소 70%이상인 화학공업분야
- 고용효과 증대산업
- 수출 산업

다. 투자 장단점

1) 투자의 장점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대기업이 이미 진출하여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사회주의 노선에서 선회하여 친 서방 자본주의 정책을 펴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 우호적이다.

최근 원유수출가의 인상으로 향후 외환 보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외환부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기술 등을 투자하여 이윤을 대거 취득할 수 있는 취약산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성공률도 높은 편이며, 임금·수도·전기 등이 비교적 싼 편이라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진출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석유,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이것의 수출로 인한 외환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1억 3,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ECOWAS 16 개국 등 서부 아프리카 진출의 거점 지역이기도 하다.

2) 투자의 단점

현 민선정부 출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많은 기대를 받고 있으나 아직 정치가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환율변동이 심하고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근면, 성실성이 크게 부족하며 기술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지도, 감독, 교육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재정긴축으로 외환시세는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고물가에 따른 은행 금리의 인상으로 소비 수요는 감소해 불황을 맞고 있으며, 각종 인프라(통신, 수도, 전기, 도로 등)가 열악하고, 공무원의 부패, 일반 국민의 낮은 교육수준 등으로 인해 근무 및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라.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나이지리아는 한국에서 비행편으로 약 18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선박을 통한 각종 자재 또는 제품 수송 기간은 최소 2개월이 걸리는 원격지이다.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국내의 각종 인프라(전력, 통신, 교통, 교육, 치안 등 제반 분야)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의 대 나이지리아 투자에는 충분한 시간을 투입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가 필수적이다.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의식수준이 지나치게 낮고 열대 기후로 인한 각종 풍토병(말라리아, 황열병 등) 등 질병이 만연해 있어 근무·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임을 사전 주지해야 한다. 또한, 시장조사를 위한 각종 통계 등 "정보"가 크게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를 수차례 직접 방문, 조사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업체를 포함한 많은 외국 기업은 나이지리아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현지 에이전트'를 지정, 간접적인 시장진출을 꾀하고 있었으나 최근 민선 정부의 출범으로 정치가 점차 안정되고 있어 미국, 유럽 및 일본, 중국 기업의 현지투자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시장선점의 포석을 위한 우리 업체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장이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단위: 백만 달러)

지역	2002	2003	2004	2005	2006(상)	합 계
북미	36.16	40.34	4,354.14	5,166.28	1,601.28	11,227.49
남미	0.05	7.14	60.04	24.56	11.76	108.05
아대양주	5.17	1.54	32.12	47.34	39.63	139.12
중동	5.30	6.74	23.27	21.21	13.39	90.99
유럽	200.24	293.66	2,624.30	3,084.68	2,441.52	9,044.67
아프리카	24.30	91.41	173.62	169.04	56.06	538.61
합계	271.22	440.83	7,267.49	8,513.11	4,163.64	21,148.93

주: 2009년 09월 현재 최신 통계

자료: Federal Office of Statistics of Nigeria, Central Bank of Nigeria 2008년 기준

나이지리아는 2002년 오바산조 전임 나이지리아 대통령 취임 이후 적극적인 경제개방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으로 북미 및 유럽 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주종을 이뤄왔으며, 나이지리아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남아공 및 이집트 등 아프리카와 중국 및 일본 등 아대양주 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현재까지 미국 및 유럽 지역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산 업	2002	2003	2004	2005	2006(상)
비석유 부문	인프라	34.23	140.91	178.25	122.57	1,217.91
	농 업	6.00	7.45	8.60	6.98	6.97
	서비스	77.48	86.12	147.75	786.27	40.23
	광물자원	-	-	10.02	10.80	-
	화학의약	0.04	0.08	0.40	0.36	8.32
	제 조	79.03	94.66	260.50	334.80	160.93
	기 타	22.75	12.37	49.09	67.86	21.46
	소 계	219.53	341.59	654.61	1,329.64	1,455.82
석유부문	원유가스	47.71	99.27	6,612.88	7,183.47	2,707.65

자료: Federal Office of Statistics of Nigeria, Central Bank of Nigeria 2008년 기준

산업별로는 2003년 이전에는 비석유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나이지리아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80% 이상을 점유했으나, 2004년 이후 석유 메이저들의 나이지리아 원유 가스 산업에 대한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원유가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석유 부문에서는 인프라, 서비스 및 제조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9월 기준 나이지리아 투자진흥청(NIPC) 및 나이지리아 투자청은 2006년 까지의 통계를 발표한 이후 공식적인 투자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 또한 국별, 산업별 최신 투자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동향

현재 나이지리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은 약 26 개사 내외로, 가발 및 플라스틱 제조 관련 업체가 13개사, 대형 건설업체 3개사, 전기 및 전자 관련 업체 2개사, 기타 6개사 등이 활동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들 한국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근로자 수는 약 8,000명 내외로 대형 건설 회사 및 가발업체 현지 고용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일관련 건설현장에 진출해 있는 건설 업종을 제외한다면 한국의 현지 진출기업이 나이지리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나. 우리나라의 對 나이지리아 투자 동향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투자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신고		투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0	4	1,254	2	543
1981	4	1,122	1	271
1982	2	462	4	593
1983	0	0	1	216
1984	0	0	0	0
1985	0	0	0	0
1986	0	0	0	0
1987	0	0	0	0
1988	1	72	0	0
1989	0	0	0	0
1990	0	0	0	0
1991	0	0	0	0
1992	0	0	0	0
1993	1	200	0	0
1994	1	46	0	0
1995	1	900	1	900
1996	0	0	0	0
1997	1	9,901	2	9,901
1998	0	0	0	0
1999	0	0	0	0
2000	2	10,244	2	10,244
2001	1	60	1	8
2002	0	0	0	0
2003	0	0	0	0
2004	1	1,000	2	180
2005	0	0	0	0
2006	9	316,940	16	123,295
2007	11	13,668	24	25,578
2008	7	3,264	18	10,306
2009	1	1,000	4	2,016
합계	47	360,133	78	184,05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9년 6월 말 기준, 80년의 실적은 68~80년까지의 누계임.

2009년 9월 말 기준 대 나이지리아 투자 금액은 25,578천 달러이며, 나이지리아 초기 투자는 대우 및 삼성 등 대기업들이 건설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이후 대 나이지리아 투자는 이동통신과 건설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2002년부터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2004년 제조업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6년부터 원유 및 건설 플랜트 관련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8년 5월 기준, 나이지리아에 설립된 우리기업의 신규 법인 수는 24개이며, 신고건수는 총 44건, 총 신고금액은 3억 5,000달러이다. 총 투자건수는 65건이며, 총 투자금액은 1억 7,000만 달러이다.

2006년 나이지리아 자원 확보를 위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한국석유공사의 해상 유전광구 2개 낙찰, 포스코 건설의 Port Harcourt-Abuja Maiduguri 1,500km 철도건설 등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나이지리아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나이지리아에 2,250MW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나이지리아의 최대 발전소인 라고스 소재 Egbin 발전소(발전용량 1,320MW)를 한국전력이 2007년부터 향후 5년 동안 ROT(Rehabilitate,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전력산업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의 주요 기 투자 및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에 영향을 받고 있다.

1) 현대중공업

□ Bonny Terminal Integrated Project

프로젝트명	Bonny Terminal Integrated Project
발주처	SPDC(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 of Nigeria Limited)
수주금액	746(US\$백만)
수주형태	발주처 원청, 공개경쟁입찰
계약일자	2002. 3. 4
공사기간	2002. 3 - 2008. 4
공사내용	기존 원유정제시설의 UpGrade 및 신설(현 60만 배럴 정제 용량을 125만 배럴로 증설)
향후 추진일정	○ 2002. 3. 공사착공 ○ 2006. 6월까지 기존시설 증설 완료 ○ 2008. 4월까지 전 공정 완료

□ East Area NGL Project

프로젝트명	East Area NGL Project(가스 액화시설 공사)
발주처	CNL(Chevron Nigeria Ltd)
수주금액	500(US\$백만)
수주형태	발주처 원청, 공개경쟁입찰
계약일자	2005. 1. 1
공사기간	2005. 1~2008. 7
공사내용	가스액화 처리시설 건설공사

□ Escravos Gas Phase 3 Project

프로젝트명	Escravos Gas Phase 3 Project
발주처	CNL(Chevron Nigeria Ltd)
수주금액	616(US\$백만)
수주형태	발주처 원청, 공개경쟁입찰
계약일자	2005. 3. 7
공사기간	2005. 3~2008. 9
공사내용	가스액화 처리시설 건설공사

2) 대우조선

□ Delta State Off Shore Plant Project

프로젝트명	Delta State Off Shore Plant Project(AGBAMI, FPSO)
발주처	CNL(Chevron & Texaco)/NNPC
수주금액	1,000(US\$백만)
수주형태	발주처 원청, 공개경쟁입찰
계약일자	2005. 2. 22
공사기간	2005. 1~2007. 12
공사내용	가스액화 처리시설 건설공사

3) 대우건설

□ BRT Expansion Project

프로젝트명	BRT(Bonny River Terminal) Expansion Project(원유탱크 확장공사)
발주처	MPN(Mobile Producing Nigeria)
수주금액	63(US\$백만)
수주형태	발주처 원청, 공개경쟁입찰
계약일자	2005. 1. 1
공사기간	2005. 1~2007. 9
공사내용	기존 터미널 확장을 위한 Site 보강 및 Pentane Storage Tank, Utilities 확장 (65,000 BPD Fraction Train 및 300,000 BPD Storage Tank 확장공사)

□ LNG Train 6 Project

프로젝트명	LNG Train 6 Project(LNG Plant 설치공사)
발주처	NLNG(Nigerai LNG Limited)
수주금액	120(US\$백만)
수주형태	발주처 원청, 공개경쟁입찰
계약일자	2005. 4. 1
공사기간	2005. 4~2007. 7
공사내용	LNG 플랜트 설치 및 부대공사(연 480만 톤 처리용량의 LNG Plant Process Area 내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장공사)

□ Agbami FPSO Module Project

프로젝트명	Agbami FPSO Module Project
발주처	Star Deep Water Petroleum Ltd.(Chevron 자회사)
수주금액	30(US\$백만)
수주형태	주 계약업체 하청
계약일자	2005. 8. 19
공사기간	2005. 9~2006. 8
공사내용	Agbami 지역 신설 FPSO(부유식 원유저장 시추선)의 모듈 및 Flare Boom 제작 공사

□ Escravos Gas to Liquid Project

프로젝트명	Escravos Gas to Liquid Project
발주처	CNL(Chevron Nigeria Ltd)
국내업체명	대우건설
수주금액	72(US\$백만)
수주형태	발주처 원청, 공개경쟁입찰
계약일자	2006. 2
공사기간	2006. 2~2008. 2
공사내용	34,000 bpd Liquid Product 생산을 위한 Process Plant설비공사

□ EGG2 Pipeline Project

프로젝트명	EGGS(Eastern Gas Gathering System)2 Pipeline Project
발주처	PDC(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 of Nigeria Limited)
수주금액	100(US\$백만)
수주형태	발주처 원청, 공개경쟁입찰
계약일자	2006. 2
공사기간	2006. 2~2008. 8
공사내용	40"x56km 가스파이프라인 EPC공사(총 연장 56km의 40인치 파이프라인 설치)

□ QIT Tank 5002 Repair Project

프로젝트명	QIT Tank 5002 Repair Project
발주처	MPN(Mobile Producing Nigeria)
국내업체명	대우건설
수주금액	8(US\$백만)
수주형태	주 계약업체 하청
계약일자	2005. 12. 13
공사기간	2005.12~2006.12
공사내용	50만 배럴 용량의 원유탱크 보수공사

□ Gbran/Ubie Integrated Oil & Gas Project

프로젝트명	Gbran/Ubie Integrated Oil & Gas PJ.
발주처	SPDC(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 of Nigeria Limited)
국내업체명	대우건설
수주금액	880(US\$백만)
수주형태	발주처 원청, 공개경쟁입찰
계약일자	2006. 1. 9.
공사기간	2006. 1~2008. 12
공사내용	1.4 Bil SCFD(Square Cubic Feet Per Day) 처리규모의 가스 Plant 및 12만 BPD 원유 생산 규모 Flow Station 부대시설 공사

□ Afam VI Power Plant Project

프로젝트명	Afam VI Power Plant Project
발주처	SPDC(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 of Nigeria Limited)
수주금액	475(US\$백만)
수주형태	발주처 원청, 공개경쟁입찰
계약일자	2005. 12. 9.
공사기간	2005. 12~2008. 7.
공사내용	650MW 규모의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 Downstream Project

프로젝트명	Downstream Project
발주처	나이지리아 대통령특별위원회
국내업체명	석유공사 한전 포스코 건설
수주예상금액	3,500(US\$백만)
수주추진형태	컨소시엄 구성, 공개경쟁입찰
수주가능성	100%
발주내용	2250MW발전소 및 1200KM 파이프라인건설
발주 예정시기	타당성 조사 후
향후 추진일정	- PSC 서명조건에 따라 서명 후 3개월 안에 Sterling Committee (3명)와 Working Committee(8명)구성 - 타당성조사 후 SPC설립과 동시 양 Committee는 자동 해산

□ 18" x 11km Oil Pipeline PJ

프로젝트 명	18" x 11km Oil Pipeline PJ
발주처	NAOC(Nigerian Agip Oil Company)
수주 예상금액	20(US\$백만)
수주 추진 형태	원청 단독
수주 가능성	100%
발주 내용	18" x 11Km 원유 수송관 EPC 공사
발주 예정시기	기 발주
향후 추진일정	'07. 상담기 계약 체결 예정

□ SAGG PJS

프로젝트 명	SAGG(Southern Swamp Associated Gas Gathering) PJS - Facilities Package - Pipe Line Package
발주처	SPDC(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
수주 예상금액	400~500(US\$백만)
수주 추진 형태	원청 Consortium
수주 가능성	50%
발주 내용	Bayelsa 주Ogbotobo, Benisede, Opukushi 및Tunu Field로부터 약 120mmsCF/D의 AG,350MMScf/d의 NAG를 Evacuation 하는 Infrastructure 공사
발주 예정시기	기 발주
향후 추진일정	입찰서 제출, 기술사항 평가 중

□ Qua Iboe Terminal(QIT) Gas Flare Elimination PJ

프로젝트 명	Qua Iboe Terminal(QIT) Gas Flare Elimination PJ
발주처	MPNU(Mobil Producing Nigeria Unlimited)
수주 예상금액	100(US\$백만)
수주 추진 형태	원청 단독
수주 가능성	50%
발주 내용	기존 QIT Terminal내 가스 Flaring을 제거 하기 위한 시설 공사
발주 예정시기	기 발주
향후 추진일정	입찰서류 제출, 기술사항 평가 중

□ Obite Combined Cycle Power Plant PJ

프로젝트 명	Obite Combined Cycle Power Plant PJ
발주처	EPNL(Elf Petroleum Nigeria Ltd.)
수주 예상금액	400(US\$백만)
수주 추진 형태	원청 Consortium
수주 가능성	60%
발주 내용	400MW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EPC 공사
발주 예정시기	기 발주
향후 추진일정	'07 1/4 입찰 진행 중

□ O.U.R Gas Pipeline PJ

프로젝트 명	O.U.R(Obite ~ Ubeta ~ Rumuji) Gas Pipeline PJ
발주처	EPNL(Elf Petroleum Nigeria Ltd.)
수주 예상금액	150(US\$백만)
수주 추진 형태	원청 단독
수주 가능성	60%
발주 내용	42" x 46Km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Port Harcourt 북서쪽 75km 지점)
향후 추진일정	'07 1/4 경쟁입찰 진행 중

□ Olo Kola(OK) LNG Plant PJ

프로젝트 명	Olo Kola(OK) LNG Plant PJ
발주처	OK LNG J/V(NNPC, BG, Shell, Chevron, etc)
수주 예상금액	500~1,000(US\$백만)
수주 추진 형태	원청 Consortium 또는 하청
수주 가능성	60%
발주 내용	Ondo/Ogun State 경계 지역에 총 33M TPY 규모 LNG Plant 건설공사
향후 추진일정	'07. EPC 낙찰사 선정 예상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개요

나이지리아 정부는 외국자본의 자국 내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조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초점은 식품, 원자재, 기계 류의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선도 산업이나 대규모 플랜트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다. 또한 산업파급 효과가 크고, 국내 보존자원을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입 대체라 해도 부품을 수입해 단순히 조립 생산만 하는 분야는 그 혜택에서 제외된다.

특히 1999년 5월 출범한 오바산조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정비와 함께 통신, 전력, 석유탐사, 정유수출, 광물, 자원 개발, 호텔·여행업 등의 외국인 투자를 원하고 있다.

또한 비 석유부문 투자지원 강화를 위해 광업 및 농업부문의 외국인 투자에 적극적이거나 사회간접자본 미비로 전력, 원유분야, 통신 등의 대규모 투자에 미국 및 유럽계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을 뿐 일반 소비재 생산분야에는 아직 큰 성과가 없다. 특히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한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아래와 같은 특별 인센티브(Incentive)를 제시 하고 있다.

- 3년 내지 5년간 세금 무 과세(tax holidays)
- 투자액과 투자의 전략적 가치 등에 따라 로열티 지불을 일정기간 유예
- 개발 지역에 대한 도로 및 전기 시설 연결
- 광산 개발 시 외국인 지분을 100%까지 허용

나. 세액감면 인센티브 제도

1) 선도산업에 대한 소득세 면제

공업 발전법(Industrial Development - Income Tax Relief Act 22, 1971년, 1988년 개정)에 따라 선도산업으로 지정된 분야에 투자 시 5년간 제세가 면제된다.

선도산업 지정업종은 곡물, 야채, 과일재배 가공, 코코아제품 제조, 유종가공, 낙농, 축산, 원양어업 및 가공, 제염, 연·아연개발, 제철, 비철금속 정련, 중정석 개발, 나이지리아 원료 사용 기초중간 화약품, 유전굴착 재료 제조, 시멘트 제조, 유리 및 동제품 제조, 석회 제조,

대리석 채석, 가공 도자기 제조, 공업용 화학품 제조, 의약품제조, 외과의용 의류, 피혁제조, 직물, 합성사 제조, 금속제품 제조, 기계류 제조, 고무제품 제조, 국산원료에 의한 망의 제조, 제분, 야자유 플랜테이션 및 가공, 천연고무 플랜테이션 및 가공, 아라비아고무 플랜테이션 및 가공, 목재가공 비료 제조, 상업용 차량 제조 등 총 65개 업종에 달한다.

2) 국내원자재 사용비율 혜택: LOCAL CONTENT

국내원자재 사용 비율이 아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5년간 제세의 30%를 감면하고 있으며, 산업별 국산원자재 사용비율은 농산물제조분야 80%, 농업 70%, ENGINEERING 분야 60%, 화학분야 60%, 석유화학분야 70%이다.

-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다.
 - 1,000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효과가 있을 경우 5년간 15%의 제세 감면
 - 200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효과가 있을 경우 5년간 7% 제세 감면
 - 100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효과가 있을 경우 5년간 6% 제세 감면
- 단순조립이 아닌 부가가치 창출 산업의 경우 5년간 10%의 제세를 감면한다.
- 훈련용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은 종업원, 기술자 훈련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5년간 2%의 제세를 감면하고 있다.
- 수출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총 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 5년간 10%의 제세를 감면하며, 사회간접자본 건설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은 도로, 공업용수,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간에 구애 없이 비용의 20%의 제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 비 경제적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시 세제혜택은 비 경제적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시에는 7년간 전액 세금 면제 및 최초 투자금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
- R&D 분야 투자 시 세제혜택의 경우, R&D 분야 투자 시 비용의 120% 제세 감면 및 나이지리아산 원자재에 대한 R&D의 경우 140% 제세 감면하고 있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외국인 투자의 보호

1995년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 Act No. 16 of 1995 for Foreign Investment)은 외국자본의 기업경영을 인정하며, 투자자본을 보호하고 세액감면 및 외국인 현지채류허가(현지고용 쿼터)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또, 영업에서 발생한 과실(果實)의 해외송금, 소유권 이전 보장 등 외국자산의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나. 외국인 투자형태

외국인 투자 사업활동은 통상 주식회사(현지법인)를 설립하는 형태를 갖는다. 외국인 투자법에서는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 일반 국내기업과 다른 자격을 주고 있다. 참고로 “지점”형태로 영업활동은 현재 인가되고 있지 않다.

다. 지사 및 현지법인 개설

1) 지사 개설

나이지리아는 지사 설립을 할 수 없으며, 연락 사무소 또는 현지법인 설립만 가능하다.

2) 현지법인 설립절차

나이지리아 내 회사 설립은 반드시 현지 변호사를 지정, 설립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데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다.



□ 법인 등록

- 변호사는 아래의 필요서류를 작성, Corporate Affairs Commission(Lagos Liaison Office)에 회사등록을 신청한다.
 - 정관(MEMORANDUM OF ARTICLE)STATEMENT OF AUTHORIZED
 - SHARE CAPITAL OF THE COMPANY
 - 이사회 구성현황 및 리스트
 - 이사회의 이사 선임 증명서
 - NOTICE OF ADDRESS OF REGISTERED OFFICE(회사 위치 통보서)
- 소요경비: CAC 등록 시 소요비용(소요기간: 14일 내외)

CAC 등록 비용

일반기업	등록비용
Registration of Private Company with share capital not exceeding N1 million	N10,000.00
Registration of Private Company with share capital exceeding N1 million but less than =N=2 million	N20,000.00
Registration of Private Company with share capital above N2 million	Add N10,000.00 for every N1 million or part thereof.
공기업	등록비용
Registration of Public Company with share capital not exceeding N1 million	N20,000.00
Registration of Public Company with share capital exceeding N1 million but less than =N=2 million	N30,000.00
Registration of Private Company with share capital above N2 million	Add N20,000.00 for every N1 million or part thereof.

- 회사등록이 완결되면 Corporate Affairs Commission이 회사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교부한다.

□ 사업자 허가

- 회사등록을 완료하면 나이지리아 투자청(Nigeria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에 회사등록 확인증, 자본도입 확인증, 사업계획, 사업장 확보 등의 서류를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나이지리아 투자청(NIPC)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영업을 허가하며, 외국인 쿼터(expatriate quota)를 결정한다.
 - 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NIPC)
 - 필요서류: 소정 양식, 회사설립 등록증, 정관, 이사회 구성 현황 및 지분보유 현황, 사업계획서 사본
 - 소요비용: N 5,000
 - 소요기간: 2~8주
 - 참고사항: 외국인 투자 최소 자본금은 200만 NAIRA
- 변호사는 설립된 회사에서 근무하게 될 주재원의 할당인증서(Expatriate Quota Position) 확보를 위해 회사등록증을 포함한 관련서류를 현지 이민국(Federal Ministry of Internal Affairs)에 제출한다.
- MINISTRY OF INTERNAL AFFAIRS(내무성)
 - 필요 서류: BUSINESS PERMIT 신청서, 비즈니스 영역 및 인원구성 내용서
 - 소요비용
 - 사장 또는 TECHNICAL DIRECTOR 직위: 2,000달러
 - 기타 직위: 2년간 한시적인 체류비자를 제공하며 매 2년 갱신 시 N 2,000 소요된다.
 - 참고 사항: 회사 자본금이 500만 NAIRA 이상이면 2명의 외국인 채용 QUOTA가 자동 부여되며 1,000만 NAIRA 이상이면 4명의 QUOTA가 부여된다.
- 동 절차가 완료되면 Federal Ministry of Internal Affairs는 아래와 같은 증명서를 발급한다.
 - Expatriate Quota Position(주재원 할당인증서)
 - Business Permit Immigration Regulation 1963(영업허가증)
 - Combined Expatriate Residence Permit&Alien Card Scheme(주재원 거주허가증)

- 주재원 거주허가증(Combined Expatriate Residence Permit)을 획득하면 이민국을 재 접촉해 나이지리아 출입국이 자유로운 Reentry Visa를 수령하게 된다.

□ 세금 신고

- 법인 등록을 마친 기업들은 Federal Inland Revenue Service에서 세금신고서(Tax Clearance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한다.
- 세금신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무실의 현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임차계약서 또는 임대주가 작성한 서한을 제출해야 한다.
- 신규 등록 기업이므로 세금신고서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나이지리아 등록 법 인으로서의 증명과, 나이지리아 투자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 서류의 준비가 필요하다.

□ 외국인 쿼터 신청

- 외국인 쿼터(Expatriate Quota)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나이지리아 이민국(Nigeria Immigration Service)로 신청해야 한다.
- 주재원 거주허가증(Combined Expatriate Residence Permit)을 획득하면 이민국을 재 접촉해 나이지리아 출입국이 자유로운 Reentry Visa를 수령하게 된다.
- 외국인 쿼터는 기업의 투자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2~3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단 기업 당 1개의 쿼터에 대해서만 만료일이 없이 발급해 주고 있으며, 나머지 쿼터는 반드시 만료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이민국으로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 주식회사 상장

- 주식회사가 상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한다.
 - 소요 기간: 1~2주
 - 소요 비용: N 5,000(약 39달러)
 - 참고 사항: 실체는 자본금 유입 없이 유입된 것처럼 서류만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관련 브로커를 고용,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

3) 공장설립 절차

나이지리아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공장부지 선정

- 나이지리아의 토지는 모두 국가 소유이므로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임차는 가능하므로 전력, 수도, 교통 및 인구 밀집지역 등을 고려하여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상업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으며 공업지역에 토지를 장기 임차해야 하며, 부지 선정 시 부동산 중개인 및 변호사를 통해 공증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하다.

- 나이지리아 Industrial Estate 관련, 정부는 산업정책에 따라 지역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한 것일 뿐 나이지리아 연방 정부 및 주정부는 Industrial Estate에 대해 부지매입 또는 공장 설립 시 특별히 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없다.

□ 공장부지 매입 또는 임차

- 공장부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서는 약 200만~400만 달러가 소요되며, 토지 가격은 토지 소유자와 협상해야 한다.
- 나이지리아는 토지 또는 건물 임차료가 해마다 그 비용이 연 8~10%씩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단기 임차보다 장기 임차를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 공장설립

-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설립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 설립 절차에 따라 CAC 등록 후 NIPC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장 설립 시, 전력 및 용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나이지리아는 제조 인프라가 열악해 정전이 되었을 때 최소한 제조 공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기를 공급할 자체 발전기가 필요하고, 산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하수 개발도 필요하다. 최근 전 세계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해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한 디젤 구입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바, 공장 설립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투자방식

1995년까지 나이지리아는 “기업진흥법”에 의거, 국내 경제에 대한 중요도, 자국민 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업종별 외국인 투자지분을 제한해 왔으나 1995년 9월 이를 개편, 외국인 투자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석유와 Negative List(무기, 마약, 화약, 군 장비)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에 투자가 가능하고, 50% 이상의 지분 확보를 통해 은행, 보험, 광산업 투자가 가능하며,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매매가 가능하며, 자유로운 양수·양도를 보장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회사는 석유와 Negative List에 포함된 산업을 제외한 전 종목에 걸쳐 단독 혹은 합작투자가 가능하며 지분의 확보, 양수에 제한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다.

1) 합작투자

외국인 투자자와 현지 투자자가 합작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내국인 파트너의 소유지분은 납입자본금의 5 % 이상이면 된다.

2) 투자 유망품목

나이지리아는 청량음료, 섬유, 신발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산업의 다양성이나 기술 수준에 있어 극히 초보적인 단계이며 기간산업 분야도 최근에는 석유화학, 철강, 비료 공단을 준공할 정도로 산업발전의 초기단계이다.

합작투자 유망분야는 주재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나이지리아 기업진흥법(Nigerian Enterprises Promotion Act, 77)에서 정의한 투자 유망한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한국에서 점차 사양화 되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섬유, 신발)
- 생산기지의 이전이 시급한 공해산업(금속가공, 석유화학)
- 자원개발, 확보에 필요한 농·임·광업분야
- 선진국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

참고로 현지 각 주정부에서 우리와의 합작을 요청해 온 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의 합작 희망형태는 대부분이 한국의 설비,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 화학관련분야: 비누, PVC제품(PP shopping bag, PVC flooring, 신발, 파이프), mosquito coil, 살충제 등
- 식품가공분야: 농수산물 가공, 과일 주스 류, 낙농품, 미곡 도정
- 피혁 가공 분야: bag, belt, 신발, 여행용구, 종이류
- 섬유류: 드레스, 양말, 타올, 봉대, 어망
- 의료용품: 봉대, 일회용 주사기 등

3) 투자유망 프로젝트

□ 원유, 가스 개발 및 처리 관련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자 세계 8위의 원유 수출국이며, '05년도 일일 250만 배럴 원유 생산, 연간 250억불의 원유 수입고를 올리고 있다. 현재 나이지리아 지역의 무장단체 활동으로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우리나라의 자원확보를 위해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국가이다.
- 아울러 유전개발, 정제, 처리 및 가스 생산 관련 대형 플랜트 유망하며, 나이지리아 정부는 하류부문(Downstream: 수송, 정제, 판매부분)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는 투자기업에 대해 상류부문(Upstream: 탐광, 개발, 채유 부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대하는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많은 국제 경쟁 입찰이 예상된다.

□ 사회간접자본(SOC) 연계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

- 야라두아 대통령, 빈약한 나이지리아 경제를 전환시키는 것이 새 행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천명했다. 한때 사회주의자였던 야라두아 대통령은 또한, 오바산조 전 대통령의 시장 불간섭 및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골자로 하는 시장 지향적 경제개혁정책 지속 추진 약속했다.
- 신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는 기존의 국가 경제능력 및 개발전략(National Economic Empowerment and Development Strategy)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력공급 확충, 농업부문 육성, 식량불안 해소, 부패와의 전쟁, 연방정부 규모 감축, 토지 소유권 개혁(토지 소유권 자유화) 등을 정책 우선 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 나이지리아는 도로, 철도, 전력, 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이 낙후 외국인 투자 및 민자 참여를 환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잉여 원유계정을 활용한 투자계획 발표한 바 있다.

분야	금액	비고
철도건설	미\$ 83억	Lagos – Minna – Kano with Minna– Abuja – Kaduna (Phase I)
전력생산	미\$ 132억	Niger–Delta Intergrated Power Plants(Phase I): 미\$ 83억 Mambila Hydro Power Project(공사기간: 4년): 미\$ 32억 Combined Cycle for Gereggu, Alaoji, Papalanto and Omotosho Power Plant: 미\$ 17억
천연가스	미\$ 203억	OK LNG Plant 지분투자: 미\$ 98억 OK Pipeline Project 지분투자: 미\$ 20억 Brass LNG Plant 지분투자: 미\$ 85억

□ 중·소형플랜트건설

- 건축자재, 생활용품, 포장용품, 식료품, 화학원료 및 제품 수입이 금지됨으로 인해 관련 제품의 자국생산 수요가 높다. 특히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저가 제품이 시장 점유하고 있지만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품질이 뛰어나다.
- 유망 플랜트로는 생활용품, 의료기기 생산 플랜트, 플라스틱(PET, PVC, 사출성형) 기계플랜트, 종이, 고무, 포장기계 중심의 플랜트 및 농업관련 기계 및 기기를 들 수 있다.
- 나이지리아 시장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것은 단순 수출에서 벗어나 Turn Key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엔지니어 파견, 기술교육 실시 등 다각적인 투자 방법이 요망된다.
- 아울러 KOTRA의 지사화 사업, 시장개척단 및 로드쇼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

6. 투자입지여건

가. 주요 산업단지

나이지리아는 정부에서 일정 토지를 저가로 임대해 주는 INDUSTRIAL ESTATE가 산업단지 개념과 유사한데 주로 1970, 80년대에 조성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들어 조성된 산업단지는 전무하다.

또한 36개 주정부가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단지 파악은 어려우며 주로 주요 도시인 LAGOS, PORT HARCOURT, KADUNA, KANO, ENUGU 등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특정 품목별 구분이 없이 모든 제조업체가 입주 가능하며 유사업종끼리 모이는 특성에 따라 주요 품목별 산업단지는 아래와 같다.

분야별	산업단지
REFINERY AND PETRO CHEMICALS	KADUNA, WARRI, PORT HARCOURT, EMEME
IRON AND STEEL	AJAOKUTA, WARRI, OSHOGBO, KATSINA, JOS
FERTILIZER	ONNE, PORT HARCOURT, KADUNA, MINNA, KANO
LIQUIFIED NATURAL GAS	BONNY
ALUMINIUM SMELTER	KOT ABASI, PORT HARCOURT

나. 자유무역지대

나이지리아에는 남동부 CALABAR지역에 CALABAR EXPORT PROCESSING ZONE이라는 최초의 자유무역지대가 있으며 동 자유무역지대가 99년도에 와서 거의 완료된 상태이나 아직 일부 사회간접자본이 미흡한 상태라 입주 실적은 미미하다.

1) CALABAR EXPORT PROCESSING ZONE 설립 근거

1992년 11월 19일 공포된 NIGERIAN EXPORT PROCESSING ZONE DECREE 1992 (DECREE NO. 63)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 법은 총 29조 및 세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법에는 하기 내용 등이 언급되어 있다.

- 수출가공지대 설립 근거
- 수출가공지대 관리청 설립 근거
- 관리청 의사결정기구 구성 내용
- 관리청의 기능
- 관리청 관리직원 임명방법
- 입주업체 면세 근거
- 허가 발급 근거
- 가공지대내 재화와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방법
- 생산품 수출절차
- 근로허가 획득방법
- 회계절차 및 방법
- 기타

2) 위치 및 면적

CALABAR EXPORT PROCESSING ZONE은 나이지리아 남동부의 CROSS RIVER STATE의 역사적인 도시 CALABAR 시로부터 7km 지점에 위치하며 총 면적은 약 300헥타르다. 참고로 CALABAR 공항에는 현재 국제 및 국내선 총 4편이 운항하고 있어 내륙은 물론 인근 아프리카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다.

- ADC AIRLINE: 하루 3편 국내선을 운항하며 또한 인근 가나,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및 기니 항공과 연결
- NIGERIAN AIRWAY: 국내선을 운항하며 카메룬과 가봉 국제선과 연결
- OKADA AIRLINE: 하루 2회 국내선을 운항
- CONCORD AIRLINE: 국내선 및 적도 기니와 국제선 연결

3) 공단 관리기관

지난 1992년 제정된 NIGERIAN EXPORT PROCESSING ZONE 설립법 제 62호에 의해 수출가공지대 관리를 위해 설립된 관리공단(NIGERIAN EXPORT PROCESSING ZONE AUTHORITY (NEPZ))이 동 단지 내 입주업체의 모든 행정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 공단 본부는 수도 ABUJA에 있고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LAGOS 지역에 연락사무소가 있다.

- NIGERIAN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NEPZA)
 - 4TH FLOOR, RADIO HOUSE HERBERT MACAULAY WAY(SOUTH) P.M.B. 037, GARKI, ABUJA, NIGERIA
 - TEL: 234-09-2343060
 - FAX: 234-09-2343061
- LAGOS LIAISON OFFICE
 - 5 IMAM ABIBU ADETORO STREET, OFF AJOSE ADEOGUN STREET, VICTORIA ISLAND EXT.LAGOS, NIGERIA

4)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동 수출가공지대에 입주하는 모든 투자업체에 대해 다음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100% 외국자본 투자 및 소유권 인정
- 생산제품의 25% 내수시장 판매 허용
- 행정절차를 위한 ONE-STOP 지원 서비스 수혜
 - 신청서 발급 및 승인
 - 회사 등록
 - 공장 건설
 - 설립 허가 등.
 - 수출입 허가 불요
 - 원자재의 면세 수입
 - 자본, 이윤 및 지분의 무제한 과실송금 허용
 - 일정기간 과세면제 및 노동쟁의 불허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 조세 및 관세로부터의 면제
 - 공장건설 기간 중 공장부지 임대료 면제

5) 자유무역지대내 설비 및 시설 현황

- 도로망
- 무제한 급수 및 송전
- 최신 통신시설
- 단지 내 최상의 도로망
- 표준형 공장건설 제공가능
- 각종 음식점 및 위락시설
- 금융기관
- 세관
- 창고

6) 입주유치 업종 현황

- 전기 및 전자제품
- 섬유류
- 기성복
- 목제품 및 수공예품
- 피혁제품
- 석유화학제품

-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 화장품 및 기타 화학제품
- 철강 및 기계류
- 교육기자재 및 스포츠 장비 생산
- 의료장비 및 의료기기
- 제과 및 식품제조업
- 의약품 제조업

7) 입주 절차

- 투자신청 및 투자신청서 접수
- 표준 공장건물 및 산업단지 검사
- 투자신청서 제출
- 투자신청서 심사 및 승인
- 회사설립 등록 신청
- 공장구매 또는 건설
 - 표준공장 구입시: 승인 3개월 이내 공장판매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 계약금 납입 후 5개월 이내 전액 납부
 - 표준공장 임대 시: 1년간 임대료를 선금으로 지급
 - 표준공장 리스임대: 승인 즉시 40% 임대료 지불, 최초 5년 내에 30% 임대료 지불, 10년째 나머지 30% 지불
 - 완비된 공장부지 임대: 승인 후 40% 선금 지급 및 공장 건설, 최초 5년째 30% 지급, 10년째 나머지 30% 지급
- 투자 자본금 송금
- 투자 지출금 평가
- 생산 전 사전 생산시설 검사
- 25% 내수판매 면허 획득
- 소요기간: 투자승인 신청서 제출 후 한 달

8) CALABAR 수출가공지대 투자 시 장점

- 저렴하고 숙련된 양질의 노동력 활용 가능
- 원유는 물론 LIMESTONE, TIMBER, OIL PARM, RUBBER, COCOA, LIVESTOCK 등 풍부한 자원 활용가능
- 가공지대 내 생산 제품의 25% 내수시장 판매 보장
- 가공지대 내 생산품의 대 유럽 및 미국 수출 시 쿼터 미 적용
- 가공지대 내 생산품은 EU 및 로메 협정 체결국 간 특혜관세 적용
- 가공지대 내 생산품은 ECOWAS(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회원국 수출 시 할인관세 적용
- 유럽(5~7시간 비행시간)과 미국(10시간 비행시간)까지 일일 생활권
- 양질의 시설이 완비된 첨단 항구 이용 가능
- 인근 서부 아프리카는 물론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도 약 4시간 이내 항공수송 가능
- CALABAR시로부터 나이지리아 전국에 이어지는 도로망 활용

7. 노동관리

가. 임금수준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높은 편이나 타 대륙에 비해 아직은 경쟁력이 있다.

각 지역별로 상이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가장 임금수준이 높은 라고스(Lagos) 지역은 약 12,000 나이라(Naira)로 나이지리아 법정 최저임금인 7,500나이라 보다 60%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세계적인 유가상승과 나이라 강세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제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있다.

임금 외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매년 1개월 분의 상여금 및 각종 종교 명절 때 비 정기적인 보너스를 지급 정도이며 급여 이외에 지급하는 복리 후생적 경비에 대해 강제하는 규정은 없고 관행이나 고용계약 시 상호 합의에 의한다.

나. 노동분쟁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입증 가능한 해고사유를 들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해고할 수 있다. 이때 피고용인이 불복할 시 중앙 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해결할 수 있다. 사업장 내 노조가 결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노조와 상호 합의하에 해고가 가능하나 이런 경우 대부분 상당한 분쟁에 휩싸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 노무관리 시 유의사항

나이지리아인들의 근본적인 근무 태만과 부정직, 교활함 등 성격의 특성상 노무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정행위나 업무태만에 있어서는 단호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며 반대로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때론 과감한 인센티브를 공여,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지리아 노조(UNION)은 비교는 강성인 편으로 최근엔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는 편인데 이러한 노사분규 방지를 위해서는 고용계약서 작성 시 현지 노동법에 근거해 작성하되 근로자의 의무를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추후 분쟁 시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라. 현지 노동법의 특징

나이지리아는 각종 법률 및 행정명령 등에 의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까다로운 점은 없는 편이며, 영국 식민통치시대 하의 법률이 아직까지 유효한 부분이 있다.

나이지리아는 영국식민지를 받은 다른 국가와 달리 노동법이 고용주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다.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을 규정한 법이 없고, 노동자와 고용주 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조항을 지키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년 근무 시 1개월의 퇴직 수당을 주며, 1년에 2주간의 휴가를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당 40시간(토, 일 휴무)
- 유해위험작업 시간: 1일 6시간, 주당 35시간
- 휴식시간: 연속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
- 휴가: 12개월 근무 시 연 6일의 휴가
- 종교활동: 근로 중 근로자들에 대한 종교활동 허용(특히 무슬림)
- 초과근무: 고용계약 당시 합의에 의해 결정함.

마. 근로계약서 관련

근로계약서는 영어로 2 부를 작성해 양측이 1 부씩 보관한다. 근로조건에 명시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을 명시하며 만일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직이 아닌 일반적이 종신 고용으로 취급된다.
- 해고: 해고에 대한 명확한 협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근무시간: 교대근무, 특정근무, 초과근무에 대한 회사의 규정 및 방침을 명시해야 한다.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 휴일근무 가능성에 대해서 명시한다.
- 연가, 휴가: 연가에 대한 규정, 생리휴가를 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 임금이 지불되는 휴가, 병가 사용조건과 방법 등을 명시한다.

이외 퇴직금, 작업장 안전, 노조활동 등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바. 퇴직금 관련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급해야 하며 대략 근속연수에 최종 급여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사. 실업

나이지리아 연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실업률은 2008년 기준 6.90%로 추정하고 있다. 잠재 실업률이 높은 나이지리아 특성상 정확한 실업률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대략 45%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은 50% 이상으로 보이며 대졸자의 25~35%만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금은 일반 대졸초임의 경우 월 450달러 수준이며 경력 있는 마케팅 관련 노동력 및 주요 금융계통 직원들은 월 1,000~1,500달러에 달하기도 한다. 아울러 건설 현장의 특수직 기술자들은 월 2,000불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조세제도

나이지리아 조세제도는 매우 복잡한데 연방 정부세, 주정부세, 지방정부세, 계약세(자본 이익세, 부가세, 교육세, 인지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를 세부 항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연방정부세(FEDERAL GOVERNMENT TAX)

- COMPANIES INCOME TAX(법인 소득세)
- WITHHOLDING TAX ON COMPANIES(원천세)
- PETROLEUM PROFIT TAX(석유세)
- VALUE ADDED TAX(VAT)(부가가치세)

- EDUCATION TAX(교육세)
- CAPITAL GAIN TAX(재산세)
- STAMP DUTIES INVOLVING CORPORATE ENTRY(인지세)
- PERSONAL INCOME TAX(개인소득세)
- 군인, 경찰, 수도 ABUJA 거주민, 외국기관, 외국인 대상

2) 주정부세(STATE GOVERNMENT TAX)

- PERSONAL INCOME TAX(개인소득세)
- CAPITAL GAIN TAX(재산세)
- STAMP DUTIES(인지세)
- POOLS BETTING, LOTTERIES, GAMING AND CASINO TAX
- ROAD TAX(도로세)
- BUSINESS PREMISES REGISTRATION AND RENEWAL LEVY
- DEVELOPMENT LEVY(INDIVIDUAL ONLY)
- NAMING OF STREET REGISTRATION FEE IN STATE CAPITAL
- RIGHT OF OCCUPANCY FEES IN STATE CAPITAL
- RATES IN MARKETS WHERE STATE FINANCES ARE INVOLVED

3) 지방정부세(LOCAL GOVERNMENT TAX)

- SHOPS AND KIOSKS RATES
- TENEMENT RATES
- ON AND OFF LIQUOR LICENSE
- SLAUGHTER SLAB FEES
- MARRIAGE, BIRTH AND DEATH REGISTRATION FEES
- NAMING OF STREET REGISTRATION FEE
- RIGHT OF OCCUPANCE FEES
- MARKET/MOTOR PARK FEES
- DOMESTIC ANIMAL LICENCE
- BICYCLE , TRUCK, CANOE, WHEELBARROW AND CART FEES
- CATTLE TAX
- MERRIMENT AND ROAD CLOSURE FEES
- RADIO/T.V LICENCES AND VEHICLE RADIO LICENCE
- WRONG PARKING CHARGES
- PUBLIC CONVENIENCE, SEWAGE AND REFUSE DISPOSAL FEES
- CUSTOMARY, BURIAL GROUND AND RELIGIOUS PLACES PERMITS
- SIGNBOARD/ADVERTISEMENT PERMIT

4) WITHHOLDING TAX(원천세): 개인 및 법인의 모든 계약 시 과세

구 분	개인	법인
DIVIDEND, INTEREST & RENT	10%	10%
ROYALTIES	15%	15%
COMMISSION, CONSULTANCY	5%	10%
CONSTRUCTION	5%	5%
CONTRACT OF SUPPLIES	5%	5%
DIRECTOR'S FEES	10%	10%

자료: The Chartered Institute of Taxation of Nigeria, 2008

5) CAPITAL GAIN TAX(재산세)

지분과 주식을 제외한 기타 재산에 대한 세율로 10%이다.

6) VALUE ADDED TAX(부가세)

재화 및 용역 거래 시 부과하며 세율은 5%이다.

7) EDUCATION TAX(교육진흥세)

모든 법인의 순이익의 2%를 부과한다.

8) STAMP DUTIES(인지세)

사안별 인증 시 부과하며 금액은 미미하다.

9) PERSONAL INCOME TAX(개인소득세)

국내 나이지리아인, 외국 거주 나이지리아인, 나이지리아 거주 외국인에 대해 부과된다. 급여, 수당, 퇴직금, 기타 이윤, 보너스, 상여금, 보상금, 권리금 등에 대해 모두 부과된다.

10) COMPANIES INCOME TAX(법인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법인소득 세율은 30%이다.

11) DIVIDENDS AND OTHER COMPANY DISTRIBUTION

주식배당에 따른 과세, 세율은 10% 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재정적자폭 축소를 위해 부가세 등의 과세를 강화하고, 국세청의 대기업체와 개인에 대한 조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세원 확대를 위해 99.1.1부터 25%를 환급해 주던 관세 환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이행관세를 부활시켜 시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주요 산업부흥을 위해 세금우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석유 및 가스 개발 관련 기업체에 대한 세금 우대조치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정 추진을 통한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 개발 사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하고 있으며, 광물개발 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1999년부터 총 37개 품목 군에(3개 품목은 관세인하) 대한 수입관세 상향 조정 및 3개 품목에 대한 소비세를 부활시키고, 2004년부터 국내 제조 산업과 관련된 기계류, 플랜트,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및 한시적 면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이러한 면세제도가 지속될 예정이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가. 개요**

나이지리아 외환시장은 1999년, 종래 외환자유시장(AFEM: AUTONOMOUS FOREIGN EXCHANGE MARKET) 제도에서 IFEM(INTER BANK FOREIGN EXCHANGE MARKET)제도로 변경한 바 있으나 2002년도 다시 AFEM 제도로 변경해 현재의 외환관리제도로 정착했다.

종래 사용하던 AFEM 제도는 모든 외환거래를 중앙은행으로 단일화하고, 매주 수요일 1회에 한해 외환은행이 공급하는 외환을 시중은행들이 BIDDING을 거쳐 외환을 구매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새로 채택한 IFEM 제도는 나이지리아 내 석유회사 등 외환수입이 있는 회사들이 시중은행을 통해 외환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외국인의 대외 송금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민선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모든 외환 규제가 철폐된 상태이다. 현지인은 물론 외국인도 외환구좌 및 현지화 구좌 개설이 가능하며 대외 송금이 자유로운 상황이다. 또한 해외여행자 외화소지 한도액도 폐지 됐다.

나. 환율정책

Charles Soludo 중앙은행 총재는 2005년 6월 일반 상업은행의 최저자본금을 현재 20억 나이라에서 2005년 12월 말까지 250억 나이라(약 1억8700만 달러)로 증액하도록 요청했다. 2006년 이후 나이지리아의 통화 정책은 2004년 1월에 발표된 통화, 신용, 대외교역 및 외환정책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했던 통화정책 2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계속 추진 되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Whole Dutch Auction System을 통한 환율적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은행 이자율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재할인율의 변동과 공개시장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나이지리아 국내 달러화가 부족하게 되자,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2008년 12월 기존 WDAS(Whole Dutch Auction System)에서 RDAS(Retail Dutch Auction System)으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즉 중앙은행과 개별은행간의 환율거래 시스템에서 개별 기업 및 달러 환전을 희망하는 개인이 직접 환율 Auction에 참가하여 입찰(Bidding)을 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환율이 상승하는 악영향을 일으켰으며, 입찰자들간의 과도한 달러구매 경쟁으로 달러 환율은 더욱 급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2009년 5월 8일 기준 대미 환율은 145.51 나이라로 안정이 되었지만, 블랙마켓에서는 178 나이라~180 나이라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과실송금

1995년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 Act No. 16 of 1995 for Foreign Investment)은 외국 자본의 기업경영을 인정하며, 투자자본을 보호하고 세액감면 및 외국인 현지 체류 허가(현지 고용 쿼터)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영업에서 발생한 과실(果實)의 해외송금, 소유권 이전 보장 등 외국자산의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라. 현지자금조달

외국기업이 현지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주거래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 Feasibility Report
- Draft Copy of the Memorandum and Articles
- List of the shareholders, directors and principal officers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자금 규모 및 리스 기간을 서로 협의해야 한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소비자 특성

나이지리아는 석유산업이 전체 GDP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수산업이 국가경제의 기간 사업을 이루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다음과 같은 소비자 특성을 갖는다.

첫째, 아프리카 제1위, 세계 제7위의 산유국으로 기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원유 수출을 배경으로 거대한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유가상승으로 외환보유고가 증가, 부채가 경감되는 등 대내외 경제가 차츰 회복되고, 대미 환율의 하락으로 나이지리아 자국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나이지리아 경제가 호조세로 전환됨에 따라 1980년대 사라졌던 중산계층이 재등장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주택, 자동차, 상품, 보험 등 경제생활 전반에 걸친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둘째,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막대한 상품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내 제조산업이 열악해 기초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자국 제조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45개의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산품의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과 낮은 품질에 이종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시장에는 중국 및 인도산 제품들이 싼 값에 불법 수입되고 있어 나이지리아 제조 산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고 있다.

셋째, 품목별 전문 바이어가 없다. 나이지리아에는 1~2개 전문품목만 취급하는 바이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대외교역이 가능할 정도의 재력이 있다면 한 바이어가 수십 개 품목을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품목별 연관성도 없다. 예컨대 의약품 바이어가 중고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식이다.

넷째, 대형 수입상이 드물고, 수백 명의 소형 수입상들이 여러 제품을 수입, 구매하는 개미군단 수입상들이 위력을 보이는 시장이다. 이러한 바이어들은 주로 두바이, 요하네스버그, 카이로 등 주변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항공편으로 들여오는 보따리 장사꾼들이다. 바이어들은 이들 제품을 높은 품질과 가격으로 시장에서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다섯째, 중고·재고품 처리 시장이다. 나이지리아는 낮은 국민소득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약해 정품의 수입 판매가 쉽지 않다. 따라서 TV, 에어컨, 냉장고, 오디오 등 가전제품을 포함한 발전기, 각종 기계류, 자동차 등은 중고품이 많이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가 1억 4,000만 명으로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대량 수출에 따른 수출 이윤 확보가 가능한 시장임은 부인할 수 없다.

나. 기타 나이지리아 시장의 특성

수입업을 포함한 유통업의 상권은 인도, 레바논, 화교 등이 자금 동원 능력, 국제적인 지사망, 신용도 등을 바탕으로 대부분 장악하고 있으며, 현지인은 소규모로 직접 소매업체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유통구조는 시내에 몇 개의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재래식 구멍가게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최근 가짜 유럽, 미국은행 발행의 수표를 이용한 사기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선적 전 추심 후 입금사실을 확인하였더라도 이후에 문제 수표임이 밝혀져 은행에 대

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많음을 양지해야 한다. (수표거래 절대불가) 또한 무역사기의 원조라 할 만큼 다양한 종류의 국제사기가 성행, 각국의 많은 업체가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요청이나 제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지 KBC 및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심한 빈부 격차로 대다수의 극빈층과 소수의 부유층이 공존해 수요가 이중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인구 대비 전체 구매력은 빈약한 편이다. 수입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수입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는 저가품 및 재고·중고품의 덤핑 시장이기도 하다. 수입관세가 높은 품목에 대한 밀수 거래가 성행하며, 인근 서부 아프리카 제 국가로의 중개 공급지이다.

인도, 레바논계 상인이 상권(유통, 금융, 제조업 전반)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 기업들은 차관 공여를 통한 대형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다. 한국 상품 인지도

중국의 저가제품이 나이지리아 소비시장을 점령하였지만,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품질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을 품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제품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LG가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제품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라. 나이지리아의 유통구조

나이지리아는 물류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국가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부족하여 철도 및 도로 시설이 매우 부족하며, 물류단지 또는 기지가 전무한 실정이다. 도소매상의 구분이 없으며, 항구 주변 또는 상권이 형성된 시장을 중심으로 소매상들이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

마. 유망상품

나이지리아는 철저한 저가품 시장이기 때문에 품질에 관계없이 싼 가격의 물건이 잘 팔린다. 대부분의 공산품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제품은 이미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나이지리아 유망상품은 다음과 같다.

품목명	추천 사유
중소형 기계류 및 플랜트	제조산업 부진 및 공산품 수요 증가
건설 및 플랜트 관련 기자재	건설경기 호황으로 관련 기계 수요 증가
전력송전 및 배전기	전력생산 저조 및 수요 증가
통신기기 및 관련제품	이동통신 가입자 수 대폭 증가
의약품	의료시설부족, 약품에 대한 의존 및 수요가 높음.
비료	전체인구 70% 농업종사, 생산성 증가를 위한 비료 수요 증가
금고	주 거래를 현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공기관에서부터 가정까지 금고 수요 증가
농업용 트랙터 및 기자재	전체인구 70% 농업종사, 생산성 증가를 위한 기계장비 수요 증가
ATM	Debit카드의 사용인구가 증가하면서, 나이지리아 주요 은행들의 ATM 수요가 급증
LCD TV 및 DVD 플레이어	중산층의 소득증가로 가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
군수물품, 작전차량, 방탄조끼, 폭동진압 장비	치안불안 증가로 인해 관련 군수 및 진압 장비의 수요가 높음.

2. 물가정보

(1 US\$ = 150N / 2009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N)
식품류	쌀 1kg	1,200N
	계란 12개	420N
	쇠고기 등심 1kg	1,500N
	돼지고기 등심 1kg	1,000N
	우유 500ml (분말우유만 구매 가능)	120N
	식용유 1.5L (식용유 현지산 기준)	200N
	생수 1L (현지산 브랜드명: EVA)	95N
	맥주 (현지 맥주 STAR 355ml, 1병)	200N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250N
	햄버거 (나이지리아에는 맥도날드 및 버거킹이 존재 하지 않음, 단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현지 햄버거가격 기준)	2,500N
	라고스에서는 한국음식점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의 입맛에 맞는 식당의 1인당 평균 가격	4,000N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 가족, 초과제외 Full Cover, 1년)	의료보험 없음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3,000N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해당사항 없음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450 million N
	디젤 1L	120N
	운전면허증 발급비용	10,000N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 운전경력10년, 대인/대물커버, 1년)	150,000N
교통비	도심 하루 주차료	1500N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해당사항 없음
	시내버스 기본요금 (시내버스에도 종류가 다양함.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용할 만한 시내버스는 아직 존재 하지 않음. 현지인들의 평균 시내 버스 요금기준으로 함)	200N
	택시 기본요금 (미터제로 하지 않고 협상하여 요금을 지불함)	해당사항 없음
	통신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60N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240N
	휴대전화 요금 (Credit 선 구입 충전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통신사간 요금의 차이가 있으나 평균 1분 통화 기준으로 함)	45N
	인터넷 월 사용료 (cobra net이라는 무선 인터넷 기준으로 함)	130,500N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750,000N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2,005,500N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2,644,500N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3,033,000N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67,500N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42,000N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 최소 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고 협상에 따름	75,000N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 최소 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고 협상에 따름	30,000N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100,000N
	주당 법정근무시간	8시간
	출산휴가일수	3달
	연간 국경일수	15일
	주5일 근무 여부	시행 중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1,500N

3. 바이어 발굴

바이어 발굴은 조사대행, 해외 세일즈 출장지원, 시장개척단 사업, 전시회 참가 등 KOTRA 주요사업 참가 및 KBC 홈페이지 인콰이어리 검색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정보 및 통신 인프라가 극히 취약해 현지에서 발간되는 업체 디렉토리, 옐로 페이지 등에 수록되는 정보는 이미 2~3년이 경과한 자료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보로서의 가치는 기대할 수 없으며 웹사이트 등 인터넷상의 바이어 정보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나이지리아는 인터넷 인프라가 열악하고,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운영이 부실하며, 정보 축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터넷으로 나이지리아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KOTRA의 KBC 홈페이지(www.kotra.or.kr/lagos) 또는 바이코리아(www.buykorea.org)를 통해 KBC에서 발굴한 인콰이어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많은 나이지리아인이 각종 인터넷 기반의 한국 수출업체 정보를 열람, 무작위로 사기성 메일을 다량 살포, 사기를 시도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사기성 메일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정확한 제품의 스펙이나 거래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대량구매 제의
- 100% 현금을 선금 지급하겠다는 제의
- 거래 성사 전 무조건 한국 방문을 위한 초청장 송부 요청

이러한 메일 등을 수신할 경우 응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바이어 확인이 필요할 경우 사전 KBC로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KOTRA의 “단순 해외현장 확인” 서비스를 통해 바이어 존재유무, 사업의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해외현장확인정보는 2008년 7월부터 인터넷 신청을 받고 있으며,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의 해외시장개척사업의 해외시장조사대행 서비스를 통해 자세한 안내사항 및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조사기간은 5일~10일(근무일수 기준)으로 고객이 희망하는 확인정보를 받을 수 있다.

□ 바이어 접촉 시 유의 사항

최초 바이어 접촉 시 현지 통신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팩스, e-메일 송신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인터넷 환경이 열악해 대용량의 파일 첨부 송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며, 폭우 등에 기인한 전화선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때에 따라서는 1~2개월간 통신이 두절될 수도 있다. 끈기를 갖고 시도하고, 어려울 경우 KBC에 중계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나이지리아 인의 전화응대 태도는 매우 불친절하기로 유명하므로 담당자가 아니면 전혀 대화가 안되고, 심지어 메시지 전달도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전화 통화 시 이 점을 사전에 인지해 전화 응대자의 일반적인 태도로 비즈니스 관심도를 임의로 단정할 필요는 없음을 참고해야 한다.

상당수의 우리 수출업체는 나이지리아 바이어에게 e-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간단한 거래 제의서를 송부하고 즉각적인 회신이 없는 경우 관련 바이어와의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팩스 또는 e-메일을 보내 무작정 회신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바이어의 입장에서 성의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래 제의서를 우편 송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상담 시 문화적 금기사항

나이지리아는 250 여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민족 사회이며, 일반 생활수준 및 문화 수준이 낮고 여러 종족이 나름대로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다. 다만,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일반적인 예의 또는 비즈니스 에티켓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것 외에 상담 또는 거래 시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는 편이다.

단, 종교 면에서 기독교인과 회교인의 비율이 약 50 대 50 정도로 양분되어 있으며, 회교도의 경우 대부분 매주 금요일에 전통 종교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요일에는 상담이 거의 진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민선 정부 집권 이후 호전됐던 치안문제가 최근 나이저 델타 지역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나이지리아 방문 시에는 가급적 현지 교민의 안내를 받거나, 비즈니스 출장 시에는 KOTRA “해외출장지원서비스”를 신청해 라고스 KBC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KBC, 교민의 도움 없이 입국하였을 경우에는 최소한 믿을 만한 기존 나이지리아 거래선으로 하여금 공항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사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대중 교통 수단이 있긴 하지만 버스, 택시 등 일반적인 교통수단은 치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이 거의 이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용요금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현지에서 무장강도(Armed robber)를 만났을 경우, 절대로 반항해서는 안 되며 시키는 대로 하되 말을 알아 들을 수 없을 경우,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함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 좋다.

나. 수입관행

나이지리아는 소비재 완제품에 대해서는 자국 산업 보호 및 개발을 명분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일부 품목은 고액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상들은 자국의 이러한 고율의 수입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약 50%의 Under Value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대부분의 나이지리아 수입상은 수입제품 가격을 약 50%로 낮춰 동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장을 개설하고, 나머지 금액은 T/T 송금 또는 한국 방문 중 현찰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회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한국 방문 수입상은 수천, 수만 달러의 현금을 지참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총 수입액의 약 20%는 선금으로 T/T 송금하여 국내 업체의 생산 개시를 요청하고, 생산이 완료되는 시점(선적준비완료 시점)에 약 50%의 대금을 신용장을 통해 지불하며, 나머지 약 30%는 물건 접수 후 지급하겠다는 식의 부분 외상 수출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와 관련, 우리업체가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 선금 지급 후 아무런 회신도 없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신용장 개설 등 송금을 보류하고 있다가 약 1~2 개월 후(이 경우 국내업체는 바이어와의 접촉을 위해 최소 10~20차례의 국제 전화, 팩스 및 메일을 송신) 회신 지연에 대한 장황한 사과의 편지와 함께 자금 사정으로 인해 가격을 약 30% 정도 인하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이미 제품을 생산해 놓은 국내업체는 불가피하게 가격인하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둘째, 선금지급 및 신용장 개설을 완료하고, 물품 도착 후 송금하기로 한 약 30%의 잔금은 시간을 끌며 지급을 연기하다가 국내업체가 지쳐서 거의 포기하는 순간에 가격인하를 요구하여 10~20%의 가격 인하 후 잔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나이지리아 수입상의 관행을 사전에 파악, 최초 계약 시 동 관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금 결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는 정부(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의 대형 구매 프로젝트가 많은 편이며, 이러한 수백만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구매 프로젝트 발주 또는 구매계획 관련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주로 관련 고위 인사 측근을 통해 외부에 제한적으로 알려지며 이들 측근을 통해 공급처가 물색되어 최종 계약까지 체결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동일품목 구매 인콰이어리가 동시에 여러 에이전트를 통해 입수되며 저마다 가능성이 큰 실세를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구매선은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1 개 Source일 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 거래 시 유의사항

나이지리아에서 개설되는 신용장은 제3국 은행의 지급 보증을 받을 경우 어느 국가 신용장보다도 안전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나이지리아 수입상은 대부분 신용장 개설 시 신용장 개설금액의 약 12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은행 문턱이 상당히 높아 수입상들이 은행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라 무리하게 UNPAID 등의 고의적 지급 회피를 할 수 없고, 이를 은행에서도 방조하지 않고 있다.
- 제3국 유명 은행과 지급 보증 계약체결 시, 나이지리아 은행에 모든 조항이 불리하게 약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이지리아 수입상의 신용도가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따라서 나이지리아 수입상과의 거래 시에는 다음사항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첫째, 신용장을 직접 DHL이나 우편으로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나이지리아 은행이 개설하고 제3국 유명 은행의 지급 보증을 받은 이른바 Confirmed L/C 라도 제3국 유명은행의 국내 지점인 Advising Bank로부터 수령하지 않고 DHL이나 우편으로 직접 접수한 신용장은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신용장의 특별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신용장의 특별조항에 선하증권(B/L) 원본 1부는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고 나머지는 은행을 통해 송부하라는 등 이상한 특별 조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지 말고 수입상에게 L/C AMEND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조항이 있는 신용장은 사기를 목적으로 개설한 신용장인 경우가 많다.

셋째,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B/L 사본이라도 수입상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이지리아는 B/L 사본을 가지고도 통관 관계자를 매수, 물건을 빼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입상에게 B/L 사본이라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할 경우 단지 Shipping Advice만 짧막하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복합결제 조건일 경우, 잔금 입금 시까지 은행 NEGOTIATION을 최대한 지연해야 한다. T/T으로 약 20%의 선금을 송금하고, 선적 직전 약 30%의 금액에 해당하는 신용장을 개설하며, 나머지 약 50%는 선적을 확인한 직후 제공한다는 조건의 계약을 맺을 경우, 잔금을 빨리 받기 위해 선적 직후 B/L 원본을 첨부하여 은행에 NEGOTIATION하고 선적 사실을 수입상에게 통보하여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B/L 원본이 은행을 통해 수입상에게 가고 있기 때문에 잔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대금 회수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선적 후 은행 NEGOTIATION을 제2 순위로 돌리고, 먼저 바이어에게 선적 사실을 통보하고 B/L 원본은 수출상이 갖고 있으니 잔금을 빠른 시일 안에 T/T 송금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신용장에 은행 NEGOTIATION 기한이 명시되어(예: 21 일) 있으므로 동 기간 안에 최대한 잔금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어떠한 경우라도 수표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 수표거래는 수표의 진위여부를 떠나 사기 사건에 거의 무방비 상태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수표(비록 유럽/미국의 유명은행 수표이더라도)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국내 업체들 중에는 유럽이나 미국의 유명 은행 수표를 받고 국내은행을 통해 추심을 완료한 후 수출하였으나 약 4~5 개월 후 외국 유명 은행으로부터 동 수표 서명이 위조된 가짜임이 밝혀졌으니 동 금액을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은 국내은행이 국내 수출 업체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등 상당한 손실을 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라. 비즈니스 에티켓

나이지리아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측면에서도 에티켓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나라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체질화되어 있어 질서, 약속 같은 것은 잘 지키지 않으며 특히 외국인에게는 기회만 있으면 접근해 구걸 또는 잡제품을 강매하려고 한다.

비즈니스 상담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중에 만나는 나이지리아인은 첫 대면부터 상대방을 "My friend!" 또는 "My brother!" 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비즈니스 상대방에게는 가급적 같이 "My friend!" 등으로 응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국내 출장자 중 연령이 다소 높은 중소기업 사장들의 경우 20 대의 나이지리아 바이어가 "My friend!"라고 부를 때 다소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급적 상담에 악영향이 없도록 현지의 문화를 이해해주는 것이 좋다. 참고로 이곳에서는 초등학교생들이 중년 이상의 외국인들에게 My friend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비록 나이지리아인 자신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나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불쾌해 하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중요한 약속(시간 등)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상담 시 유의사항

나이지리아는 인구 1억 3,00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 최대시장이고 석유, 천연가스 등의 매장량이 많은 자원 부국이지만 품질보다는 가격을 더 중시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구미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가의 아시아산 제품이 더 선호된다.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의 주문상 특징은 소량 주문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주문할 경우 일단 주의가 요망된다. 때로는 국영석유공사(NNPC) 등에서 대량 주문이 있다고 유혹하여 샘플을 챙기고, 중앙은행(CBN)을 통한 해외송금 시 세금 사전납부 필수 등의 해괴한 업무절차를 빙자하여 동 세금액을 사취하려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량 주문은 반드시 KBC를 통해 사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지 수입상은 특하면 "No Problem", "I Will Do It Right Now", "I Will Come Tomorrow With Money" 등을 연발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 와야 오는 것이 나이지리아"라는 것을 명심, 상담 진행 시 사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바이어의 책임전가 행위나 클레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의 복잡한 시내교통, 시내 전화통화의 어려움 등으로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을 감안, 화를 내거나 조금해 하지 말고 느긋한 마음가짐으로 상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나이지리아 로컬 콘텐츠로 현지 직접 진출의 어려움

나이지리아 정부는 경제성장, 고용창출, 기술이전을 위해 석유가스사업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들이 로컬 콘텐츠(현지화) 정책을 적극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로컬 콘텐츠 정책은 석유가스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 다국적기업들이 하청사업을 가능한 한 나이지리아 업체에 맡기고, 많은 나이지리아 직원들을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로컬 콘텐츠 비율은 2005년 25%, 2006년 45%, 2007년 70%로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로컬 콘텐츠를 따르지 않는 기업은 입찰선정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된다. 현지 로컬 기업이 아닌 이상은 나이지리아 입찰 및 투자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나이지리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오일, 가스, 전력 등 관련 산업의 로컬 기업들과 에이전트십 또는 테크니컬 파트너십을 구성해 현지 로컬 기업과 함께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이지리아 의회는 2008년부터 나이지리아 로컬 콘텐츠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안을 상정한 가운데 2009년 현재 의안가결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나이지리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나이지리아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Joint Venture) 및 기술협력(Technical Partnership)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나이지리아의 인적 네트워크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자본 및 기술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나이지리아 프로젝트 및 각종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나. 불안정한 치안 문제

나이지리아 남부 리버주(River State)의 포트코트(Port Harcourt) 지역은 석유 다국적 기업들의 원유시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그러나 원유시추로 인해 주변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농사를 주업으로 하던 농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포트코트 지역에서는 무장단체들이 석유회사 근로자들을 납치하고,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거나 석유시추 시설들을 파괴하는 등 치안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지역은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며, 2006년과 2007년 연이어 한국인 근로자 납치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포트코트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전한 편이지만, 납치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투자의 위험성을 의식한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경제중심도시인 라고스(Lagos), 행정중심수도 아부자(Abuja)를 비롯하여 각 주의 주요 중심도시에서는 무장단체 활동 등이 없으며, 도시 내의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활동 시 생명에 지장을 주는 큰 불안적 요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나이지리아는 인구 1억 4,000명의 거대 잠재시장이며, 많은 기회가 산재해 있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불안정한 치안상태를 나이지리아 전체의 상황으로 인식하지 말고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 불안정한 전기공급

나이지리아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단전이 수십 차례 일어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전력 생산량은 2,600MW에도 미치지 못해 전국적인 전력 수요에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각 건물에는 자가 발전기를 수시로 가동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가 인상으로 나이지리아 국내 유가가 상승하자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한 디젤 값이 동반 상승해 가정 및 회사의 관리 비용이 동반 상승하게 됐다. 따라서 각 사회 전반에 걸쳐 물가가 상승하여 대다수의 많은 서민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전력 확충을 위해 2010년까지 2만 MW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력시스템 낙후 및 만성적 투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ROT(Rehabilitation Operation Transfer) 또는 IPP 방식을 적극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최근 국제금융위기 및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의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 후진국 행정처리

나이지리아는 일산 250만 배럴을 생산하는 석유부국이지만 후진국 특유의 행정처리 및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어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마. 높은 물가

나이지리아의 물가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물가와 비슷하거나 비싼 편이다. 이것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며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45개 이상의 공산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키고 대부분의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지 진출 투자기업들은 높은 물가로 인한 체재비 증가, 소요경비 증가 등 전반적인 비용의 증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주할 주택의 경우 일반 아파트는 평균 1년 임차비용이 5만 달러 이상이며, 관리비(Service Charge)는 연간 1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지 투자 시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경비에 비해 건물의 상태 및 환경은 열악한 편이다.

바. 열악한 통신 및 인터넷 환경

나이지리아는 일반 전화선 및 광케이블이 있지만 유지 및 보수 관리가 되지 않아 현재 사용되고 있는 회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랜드 케이블의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는 나이지리아 통신사업국(NITEL)은 부정부패와 방만한 경영으로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의 통신시장은 무선이 장악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선시장은 초기투자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 요금이 비싼 편이다. 인터넷 속도를 2M 이상으로 사용하고 싶을 경우 약 월 2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위성인터넷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스콜이 내리는 동안 인터넷이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한국과 같은 인터넷 기반의 프로그램, 회사 인트라넷을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투 기업들은 초기 투자 시 이러한 통신환경 때문에 곤혹을 치르곤 한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NOKIA 성공사례

1) 노키아 시장진출 배경

1억 3,5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인구 증가율 못지않게 이동통신시장 역시 급속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말까지 대략 50만 명에 불과했던 이동통신 가입자가 지난해에는 거의 1,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나이지리아 이동통신 수요가 급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영통신공사(NITEL)가 독점으로 운영해 오던 기존의 유선전화망이 관리부실 및 오랜 노후화로 거의 복구불능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선통신을 활성화시키는 게 경제적 측면과 효율성 면에서 기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 마케팅 성공 전략

□ 저가시장 공략

최근 글로벌 시장에선 대당 50달러 미만의 초저가 휴대전화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중고가 휴대전화의 주 시장인 북미, 유럽 등의 시장은 정체된 반면, 중국, 인도 등 저소득 신흥 국가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세계통신연합(ITU)에 따르면 신흥국의 휴대전화 수요는 2010년 연간 6억 5,000만 대로 세계 시장의 6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저가 휴대폰은 선진국 시장에서도 선불 휴대전화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앞지면서 카메라와 MP3 등 다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경쟁하고 있는 사이에 세계 1, 2위인 노키아와 모토로라는 신흥시장에서 초저가 휴대전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초저가 휴대전화 시장의 선두는 단연 노키아이다. 2004년 초부터 대당 100달러 미만의 저가 휴대폰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포문을 열었다. 초저가폰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우선 흑백 액정화면을 사용한다. 통화와 단문 메시지 전달이라는 두 가지 기본 기능을 제외한 카메라, MP3 등의 고급 기능은 최소화했다. 대신 전력 사정이 좋지 않은 나이지리아의 환경을 고려, 배터리 사용시간은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했다.

초저가폰 생산에는 단순히 고급 기능을 제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필요한 부품 수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 배경으로 깔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는 하나의 반도체 칩에 휴대전화의 중요한 부품을 집적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노키아, 모토로라 등은 TI의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

노키아는 현지 제품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통해 나이지리아 시장에서는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각적인 매체를 통한 광고 전략이라고 결정하게 됐다. TV광고로 하루 황금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매 30분 단위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모든 신문, 잡지, 사인보드를 통해서도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할인매장인 SHOPRITE에서 NOKIA SHOP 제1호점을 오픈함에 따라 전략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높은 에이즈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Leadership for Health in Nigeria"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도 증가시키고 있다.

나. LG전자

1) 시장 배경

아프리카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이자 인구도 가장 많은 나라이다. 석유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와 석탄, 주석 등 자원이 풍부한데다 인구도 1억 5,000만 명으로 매력적인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 시장점유율

나이지리아 가전시장의 40% 가량을 LG전자가 점해 2위인 파나소닉, 3위인 필립스를 밀찍이 따돌렸으며, LG전자는 나이지리아 에어컨 시장의 40%, 냉장고 시장의 43%, 오디오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PDP TV 시장의 경우 55%가 LG전자 제품이다.

나이지리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500달러에 불과한 극히 가난한 나라이지만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구만 해도 전체의 12%인 1,800만 명에 달한다. PDP TV, LCD TV, 대형 냉장고 등 고급 가전제품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LG전자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 LG전자의 브랜드 인지도는 60%에 달한다.

3) 홍보전략

LG전자는 주요 시간대에 LG가전제품의 TV와 라디오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 옥외간판, 주요 일간지 및 잡지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 사업을 통해 LG전자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확고히 높이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백색가전 시장의 고급 브랜드로 통하고 있다. 아울러 LG 전자는 SHOP RITE, PARK'N'SHOP 등 나이지리아 주요 쇼핑몰의 전자매장에 자사 제품을 전면에 전시하고 있으며, IKEJA 지역에 쇼룸을 설치해 내방하는 고객들에게 직접 제품을 체험하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린다(가발생산)

1) 시장배경

인종별로 가발시장을 분석해 보면 모발을 길게 기를 수 없는 특성 때문에 흑인들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적으로도 흑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큰 소비 지역을 형성한다.

가격별로 보자면 미주, 유럽 선진국과 그 외 개발도상국, 후진국으로 나뉘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같은 흑인이자도 미주, 유럽 선진국이 요구하는 가발의 조건이 후진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미주, 유럽 선진국의 경우 안전성이 필수 조건이며, 소비자들의 특성상 고품질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인모 내지는 고가 고품질의 화섬유를 요구하고, 원료보다는 완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안전 필수 조건이 없으며, 소비 수준에 따라 저가에서 중가격대를 선호하고 있다.

2) 마케팅 성공전략

- 생산전략
 - 값싼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대량 생산하고 있으며, 전체 가발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3) 브랜드 네임 전략

- 각 제품에 특정 브랜드 네임을 부여했다.
-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네임의 제품을 이용해 다양한 디자인의 모델을 개발했다.

4) 홍보전략

- 주요 신문 및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제품 홍보와 주요행사 프로모션을 통한 기업 및 제품 홍보를 통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거래 미용실을 통한 카탈로그 배포 및 제품 홍보를 통해 현재 아프리카 1위 기업으로 부상했다.

라. 삼성전자

1) 수출전략

삼성전자는 제품의 고급화, 브랜드화 전략을 통해 중국 및 인도산 저가 제품과 차별화 되며, 고가의 일산 TV와 경쟁할 수 있는 삼성전자만의 품질과 기술력을 강점으로 나이지리아 전자제품 시장진출에 성공하였다.

2) 품목명: SAMSUNG Bordeaux Plus

- 가격대 : 약 USD 1,220
- 수요계층 : 부유층 및 중산층 가정, 은행 및 관공서

3) 시장반응 및 히트요인

나이지리아 가전제품 시장의 1위는 지난 2007년 한해 천만대 이상을 판매한 삼성전자 보르도 플러스가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 「파브(PAVV)」라는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차별화된 디자인과 신기술로 나이지리아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삼성전자는 Digital Natural Image Engine, Dynamic Contrast 기술 등을 통해 정밀한 화질을 구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시청이 가능한 넓은 화각을 자랑하고 있으며, PC와 호환이 가능하고 PDP와 비교해 전력소모가 적고 내구성이 우수해 많은 소비자들이 삼성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Bordeaux는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제배되는 와인의 이름으로 단순 TV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우아하고 고급스런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재질과 디자인을 적용 하였다. 이를 통해 TV가 단순 가전제품이 아닌 고가명품이란 이미지를 통해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부유층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나이지리아 부유층은 고가명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으며, 이를 통해 남들과 차별화된 존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 개의치 않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타깃을 하는 삼성전자의 판매 전략이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전문매장, 대형 쇼핑몰에서 자사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고 있으며, 문,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마. 주식회사 태동

- (주) 태동은 나이지리아에 가장 먼저 투자 진출한 업체로서 진출초기 기초 생필품 생산을 위한 플라스틱 사출성형기를 국내로부터 도입, 플라스틱 제품을 소량 생산하면서 현지 기반을 쌓기 시작했다.
- 30년 전 훈미한 정국의 와중에서도 현지에서의 플라스틱 제품 수요가 급격히 늘어 생산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게 되자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엄청난 자금인 100만 달러 정도의 단독투자를 과감히 실행했다.
- 동사는 현지 투자진출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도 현지화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경영, 생산 활동의 모든 면에서 현지에 동화하는 전략을 철저히 구사하여 성공을 거두게 됐다.
- 일반적으로 나이지리아의 노동력은 질적인 면에서 매우 취약하며, 낮은 교육수준과 저급한 국민성,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임을 인식한 동사는 진출초기부터 현재까지 주변 동종업종의 회사와 비교해서 대략 1.5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현지에서는 그 예가 별로 없는 오찬급식을 제공하는가 하면 필요한 경우 숙소를 지원하는 등 종업원의 복리후생에 신경을 쓰는 한편, 현장 노동력의 기술교육에 과감히 투자했다.
- 또한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이 강세를 이루고 있는 현지에서 창립 이래 노사분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 역시 인력관리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동사는 현재 플라스틱 사출 외에 연건평 3만여 평에 달하는 칫솔, 가발, PVC 파이프 등을 생산하는 6개의 공장을 현지에 보유하고 있으며 그간 다져온 내수시장 점유를 바탕으로 좀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강화를 통하여 동사 전 생산제품의 내수 시장 30% 이상 공략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바. 태우장판(주)

- 태우장판(주)은 비닐장판의 경우 국민소득이 높지 않은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 착안,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진출을 과감히 추진해 아프리카 여러 국가 중에서도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이 많은 나이지리아에 큰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 그러나 전력공급 부족, 잦은 폭동 등 정치적 불안과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등 투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주변의 우려와 만류가 있었으나 이러한 위험도는 아프리카 지역 여러 국가의 보편적인 사항이며 인근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는 동종의 비닐장판 공장이 없어 판로가 안정적일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향후 국민소득이 향상될 경우 비닐장판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 설비를 포함, 약 500만 달러 규모의 대 나이지리아 설비 이전 투자를 과감히 단행했다.
- 투자초기에는 당초 예상한 대로 노동자들의 저열한 교육수준과 태만한 의식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열악한 사회 인프라 및 치안불안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고용인들을 상대로 한 꾸준한 기술교육과 친화노력으로 이를 극복해 나갔다.
- 또한 생산설비 완료 후 초기 생산품목의 선정은 낮은 국민소득을 고려, 저가제품 위주의 생산에 주력하기 시작하자, 투자 후 6년이 경과한 현재 동사의 연간 매출액은 100만 달러가 넘어서고 있으며 구매자가 현금을 미리 지불해야 제품을 공급할 정도로 판매에 성공을 거두게 됐다.
- 현재는 나이지리아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국가들 까지 판로를 확장하고 있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정부등록/체류허가(Resident Permit)

RP는 외국인이 나이지리아에 투자할 경우, 나이지리아에 설립할 현지법인을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급되며 이때 설립 자본금, 투자규모 등에 의거 일정수의 RP 쿼터를 주재국 정부에 요청하면 심사 후 RP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지법인 설립 및 RP 획득은 여러 가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한다.

나. 집 구하기

거주할 집은 현지 부동산 에이전트에 의뢰해 물색하거나, 본인이 직접 적정한 주택을 찾아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나이지리아에서 집을 구할 때에는 특히 전기·수도 공급 여부와 치안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즉, 주택에 충분한 용량의 발전기가 구비되어 있는지, 전력청 전기 단절 시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공급(가급적 24시간)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나이지리아의 대부분 빌딩 및 아파트형 주택에는 공동발전기가 1~2대 구비되어 있으나 개인주택 및 빌라 형태의 주택에는 발전기가 없어 입주자가 발전기를 직접 구입해 설치,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발전기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수도의 경우에도 많은 아파트형 주택과 사무용 건물은 직접 매설한 수도 파이프를 통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정수 후 사용하고 있으나, 소형 주택들은 나이지리아 수도국이 공급(유료)하는 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수도국의 식수공급이 중단될 경우, 식수차를 불러 식수를 직접 구입해 탱크에 저장한 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주택의 임차료는 1만~4만 달러/1년 수준이며, 보다 저렴하거나 보다 비싼 주택도 있다.

최근 국제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해 나이지리아 국내경기가 호전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행정중심 또는 상업중심 지역의 주택들은 평균 임차비용이 100% 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지역의 경우 순수 임차료만 약 9만~10만 달러가 필요하며, 별도의 관리비(Service Charge) 1만~1만 5,000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좌개설 방법

다음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현지 USD 계좌 및 현지화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 외국인이 일반 계좌를 개설할 경우
 - International Passport
 - Residential Permit
 - Two Passport Photographs
 - Two References of company
- 외국인이 현지 급여계좌를 개설할 경우
 - International Passport
 - Residential Permit
 - Two Passport Photographs
 - Two References of company
 - Letter of introduction

라. 전화신청

나이지리아의 유선 통신망은 나이지리아 국영정보통신(Nitel)의 방만한 운영과 부실한 통신망 관리로 인해 일부 정부 기관 및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선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유선통신망의 경우 초기 신청비용이 평균 5만 달러이며, 설치기간이 약 1~2개월 소요되지만 현재 유선통신망은 부실한 통신망 관리로 인하여 통화품질이 떨어지며, 불통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최근 가입자 수의 급격한 감소로 나이지리아 유선 통신망을 관리해 오던 개별 통신 사업자 Transcorp는 운영권을 박탈당했으며, 나이지리아 정부는 새롭게 민영화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 중에 있다.

무선통신 서비스는 통화방식에 따라 신청 방법이 상이다. Multi-Links, Globalcom 등의 CDMA 통신 방식을 사용할 경우, 각 이동통신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단말기 가격을 지불하면 번호를 부여받는다. 서비스 가입 이후 24~48시간 이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MTN, Glo, Celtel 등 GSM 통신방식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 사무실 또는 대리점을 방문해 SIM 카드를 구입함으로써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SIM 카드의 가격은 통신사 별로 다

르나 평균 2달러 내외에 구입할 수 있다. 요금제도는 선불과 후불 방식이 있으며, 선불의 경우 전화카드를 구입해 일정 코드를 입력하면 요금이 충전되는 방식이다. 후불제의 경우 사용한 시간별로 요금이 부과된다.

마. 비품 구입

발전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개인용 발전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나이지리아의 기후가 아열대임을 감안해 방(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 기타 식수 저장 탱크 및 디젤 저장 탱크 등도 준비해야 하고, 개인 비품 중 전기 제품은 필히 220V, 50Hz에 맞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바. 자동차 구입

RP가 발급되면 자동차 구입 시 별다른 문제는 없다. 다만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현지 실정상 높은 관세에 의거, 자동차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다. 한국산 신차나 중고차를 수입, 취급하는 한국업체가 있어 이를 통해 손쉽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현지의 많은 수입차 딜러 회사를 통한 구미산 차량 구입도 특별한 문제 없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출발할 때 직접 한국산 차량을 이사화물로 반입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입관세는 동일하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약 20~30%이며, SUV 차량은 50%의 관세를 지급해야 한다.

사. 현지 병원

현지인들이 출입하는 일반 병원은 병원위생이나 의료기술을 신뢰할 수 없으나 외국인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은 대도시별로 몇 개씩 존재한다.

이들 병원들은 평상시 경미한 치료나 첨단 의료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수술은 가능하나 위중한 환자나 첨단 의료 기술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이 어렵다. 따라서 위급환자 발생 시 응급 처치 후 International SOS 서비스를 통해 항공기를 이용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또는 영국, 독일 등 유럽으로 긴급 이송해야 한다. 현지 대사관 및 지상사 직원들은 긴급 후송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특성

나이지리아의 기후는 기네만과 사하라 사막의 영향을 크게 받아 건기와 우기로 구분되며 남부와 북부의 기후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부 기네만에 가까운 지역은 고온 다습하며 북쪽 사하라 사막에 가까운 지역은 사하라로부터 남하하는 열기로 고온건조한 편이다.

□ 남부지방

11~3월은 건기, 남서쪽은 지역에 따라 5~8월이 우기이며, 남동쪽은 5~10월이 우기이다. 강수량 1,788~4,318mm에 기온은 2~4월이 최고, 8월이 최저이다. (평균기온 28~32℃) 우기 동안 비는 강한 바람과 천둥을 동반하며 12~1월에는 사하라 사막의 모래 섞인 하마탄(Hamattan)이라고 하는 회색의 미세한 먼지와 함께 열풍이 불어온다.

□ 북부지방

내륙지방은 5~10월, 접경지역은 6~9월이 우기이며, 강우량은 북쪽으로 갈수록 감소해 평균 508~1,270mm 정도이다. 기온은 3~6월이 최고, 12~1월이 최저이며 평균 13~34℃이나 계절에 따라 기온의 차가 있고 일교차가 심하다.

2) 주요도시의 기후

- 라고스: 나이지리아 남서부 위치
- 카 노: 나이지리아 북부 위치

나라	기온/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라고스	최고	35	34	36	34	33	31	30	30	31	30	34	33
	최저	19	22	22	21	22	22	25	21	21	20	22	22
	강수량	19	21	47	132	282	479	272	61	144	207	72	28
카노	최고	37	40	41	43	40	38	34	33	34	35	37	35
	최저	8	1	13	20	21	19	18	18	19	16	12	11
	강수량	0	0	3	8	78	134	228	312	124	11	1	0

주: 2008년 기준 Nigerian Metrological Agency

3) 출장 시 추천복장

나이지리아 출장 시 필요한 복장은 우기와 건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상담할 땐 가급적 정장(여름용)을 갖추는 것이 좋다. 다음은 정장을 제외한 일반 복장에 대한 추천이다.

- 건기: 건기에는 한국의 전형적인 여름과 비슷한 기후를 보이며, 밤에도 에어컨 없이는 수면을 취할 수 없을 정도의 더운 기후이므로 얇은 옷가지만 필요하다.
- 우기: 여름 복장 외에 추가로 얇은 긴소매 옷가지가 필요하다. 특히 새벽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자다가 추위를 느낄 정도이다.

나. 시차, 근무시간

1)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8시간으로 한국이 24:00일 때 나이지리아는 16:00이다(GMT+1 시간이다. 한국보다 8시간 느리다)

2) 근무시간

관공서, 은행 및 일반직장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관공서: 07:30~15:30(월~금)
- 은행: 08:00~16:00(월~금)
- 일반 기업: 08:00~17:00(월~금)
- 일반 상점 등: 08:00~20:00(월~토), 10:00~18:00(일)

관공서 및 은행관련 일은 가급적 오전 중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근무 시간과 별도로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회교도들의 기도식이 있다. 회교도의 비율이 나이지리아 전체 인구의 약 절반에 달하므로 금요일 오후의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3) 회계연도

나이지리아 정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 주요 단위

구분	단위
길 이	미터법 (Km, Cm, mm 등)
무 게	그램(g), 킬로그램(kg), 톤(ton)
전기규격	220~240V, 50Hz 유럽식 전원 플러그
골 프 장	미터 표시
T V	PAL 방식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나이지리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비자 취득 후에는 최장 1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 비자 발급처

- 주 대한민국 나이지리아 대사관
 - 주소: 용산구 한남동 158(해밀턴 호텔 맞은편)
 - 전화: 797-3280 / 2370
 - 휴일: 토/일요일, 10.1(독립기념일), 양 국가의 공휴일
 - 비자신청: 09:30 - 12:00
 - 비자발급: 13:00 - 17:30

2) 출입국 절차

출입국에 필요한 특별한 절차는 없다. 다만, 출입국 시 공항관리가 임의로 선택해 휴대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검사는 공항관리가 여행자에게 약간의 "돈" 또는 "물품"을 얻어내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인만큼 당황할 필요는 없으며, 유사시 소액의 지출(뇌물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3) 출입국 유의사항

□ 일반사항

입국 시 라고스 공항 이민국에서는 나이지리아를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특히 동양인)에 대해 입국비자를 받았음에도 입국 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입국에는 큰 애로가 없으니 당황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또한 여행자의 뇌물을 기대하는 공항 관리의 의도적인 트집일 경우가 많다.

□ 공항 출영송 및 교통수단

나이지리아는 외국인이 이용할 만한 대중 교통은 전무한 상황이라, 공항 입·출국 시 기존 거래선 등의 출영송이 필수적이다. 치안 상황이 워낙 열악할 뿐만 아니라 시간만 나면 외국인에게 접근,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위해 피해를 가하거나 사기칠 생각을 하는 나이지리아인의 특성을 감안, 교통편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입국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만약 기존 거래선이나 친지 등이 없어 부득이하게 대중 교통을 이용해야 할 경우,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공항 내 여행 안내센터에서 가격 지불 후 차를 렌트해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 택시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하게 이용해야 할 경우엔 나이가 많은 운전자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가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 예방접종

나이지리아 입국을 위해서는 황열병 예방접종 카드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에서 육로를 통해 국경을 통과할 때 황열병 예방접종 카드를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인근지 출장 시 반드시 패용해야 한다.

마. 환율, 환전

1) 화폐단위

화폐단위는 "나이라"(Naira)로 약칭은 "N"이다. 1 나이라는 100코보(Kobo)이며 주화로는 1, 5, 10, 50Kobo 및 1Naira 가 있으나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폐로는 5, 10, 20, 50, 100, 200, 500Naira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 나이지리아 정부는 보다 큰 액면 금액의 지폐 발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99년말경 100Naira 지폐를, 2000년 하반기중 200Naira권 지폐를 도입했으며, 2001년 4월부터 500Naira권 지폐를 추가로 발행한 것에 이어 2005년 말 1,000Naira권 지폐가 발행되어 사용 중이다.

2007년 3월부터 새로운 화폐 발행과 동전 사용이 다시 도입되었다. 동전은 50 코보와 1 나이라가, 지폐권으로는 N5, N10, N20, N50 나이라가 새로 발행되었다.

(자료: 2007년 12월 기준, Central Bank of Nigeria)



2) 환율

나이지리아 정부는 '99.1.1일부로 이전의 이중 환율 (공공부문 환율 US\$1=N22로 고정, 상용변동 환율 당시 US\$1=N85~86)을 상용 변동 환율로 단일화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9월 7일 기준 공식 환율은 Buying US\$1= N151.31 Selling US\$1=N151.81으로 현지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3) 환전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 등의 공식적인 환전소(Bureau de Change)에서 수시 가능하나, 이런 공식적인 곳에서의 환전은 적용 환율이 비교적 낮은 이유로 대부분은 시중 환전소를 이용한다. 즉, 일종의 Open된 환전 마케팅인데 나이지리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많은 나이지리아인이 거의 공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 공식 환율과 시중 환율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4) 신용카드

현지의 신용카드사용은 보편화되지 못한 상태로 특급 호텔, 특급 식당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즉시 결제되지 않는다.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은 이중 결제, 카드 정보 누출 등의 위험이 있고 실제신용 카드 사용 후 이러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종종 있어 신용카드의 사용은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이 밖에 일반 상점, 슈퍼마켓, 시장, 식당, 등에서는 일체 신용 카드 사용이 불가하다. 시스템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위주의 거래를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보다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현금카드(Debit Card)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사용하는 고객의 수가 점차 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기타 주의사항

외국인의 경우, 라고스 공항을 통한 입국 시 공항 주변에서 "Naira를 좋은 가격에 바꿔주겠다"는 나이지리아 인들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들에게서 환전 시 환전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달러의 가치를 나이라로 그 즉시 쉽게 환산 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터무니 없는 비율로 나이라를 환전해 주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 바, 가급적 이들과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바. 교통, 통신

1) 우리나라와의 교통(항공로)

한국-나이지리아 간의 항공편은 비교적 많은 편이며, 대부분 유럽의 주요 도시 및 중동의 두바이와 도하를 경유해 나이지리아로 연결된다. 유럽은 런던, 파리, 및 프랑크푸르트 등 경유지에서 1박 하게 되며 한국 출발일 다음날 나이지리아에 도착하게 된다. 단, British Airways의 경우 런던에서 1박하지 않고 나이지리아로 출발하나 나이지리아 도착일은 한국 출발일 다음날 새벽(06시경)이다. 아랍에미레이트항공을 이용할 경우 경유지인 두바이에서 약 5~6시간 대기후 나이지리아에 도착하게 되며, 도하를 경유하는 카타르 항공의 경우 약 3~4시간 대기후 나이지리아에 도착하게 된다.

평균적인 총 비행시간은 약 18~21시간 내외가 소요된다. (서울-유럽: 약 11~13시간, 유럽-나이지리아: 약 7~8시간 소요 / 서울-중동: 약 11시간, 중동-나이지리아: 약 10시간)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여행할 경우엔 총 2일간의 비행 시간이 소요된다. 유럽 경유지에서 1박을 하지는 않으나, 경유지 공항에서 대략 12시간 정도 대기해야 하고 아울러 한국과의 시차(8시간 차) 등으로 2일이 소요된다. 최근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은 두바이에서 2시간 대기후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을 편성하여 기존 3일이 걸리던 일정을 2일로 단축하였다.

다음은 나이지리아(라고스공항) - 한국(인천국제공항) 간 주요 이용 항공편이다.

- Lufthansa(프랑크푸르트 경유)
- Air France(파리 경유)
- British Airways(런던 경유)
- KLM(암스텔담 경유)
- 아랍 에미레이트 항공(두바이 경유)
- 중국남방항공(북경직항)
- Qatar Airline(도하 경유)

한국→유럽, 유럽→한국 구간은 KAL, ASIANA 등 국적선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하물을 유럽 경유지에서 찾아서 다시 Check-in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유지 숙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어 대부분의 한국 출장자 및 교민들은 상기 유럽 항공사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홍콩-남아공-라고스"로 연결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 공항에서 목적지 가는 방법
 -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국 전 나이지리아 국내 관계자의 공항픽업을 요청해야 한다.
 - 공항픽업 요청이 없을 경우 택시를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한다.

2) 국내교통

□ 택시

택시는 대부분 폐차 수준(벌써 폐차가 되었어야 할 정도의)의 중고차를 노란색으로 색칠해 운행하고 있으며, 치안문제 및 예기치 못한 사고(차량고장) 가능성뿐만 아니라 운전 기사를 신뢰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대부분의 외국인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상황이다.

실제로 나이지리아에서는 비행기 국내선을 제외한 현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택시요금은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일반적 형태이나 승객의 가격협상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기본요금 시스템 및 미터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흥정을 잘할 경우 비교적 정상적인 가격(사실은 아무리 흥정을 잘해도 외국인의 경우, 정상 가격보다 조금 비싼 수준임)에 이용할 수 있지만, 흥정을 하지 않을 경우엔 정상 가격보다 2~10배까지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택시탑승 전 목적지까지의 가격을 협상해야 한다. 우선 택시기사가 요구하는 금액의 절반 이하(1/3수준)를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 시 조금씩 금액을 올려가며 협상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공항주변에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는 시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반

택시에 비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확한 이용요금은 협상 능력에 따라 달라지나, "라고스 공항-Victoria Island"까지의 평균적인 요금수준은 약 N 2,500~3,000 내외이다. (약 1시간 소요됨) 그러나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엔 요금이 다소 저렴한 편이다.

- 약 10분 내외 거리: N 300~400
- 약 30분 내외 거리: N 600~700
- 약 1시간 거리: N 800~1,000

□ 버스

나이지리아에는 한국에서와 같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대형버스는 있기는 하나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승합차(12~24인승 규모, 대부분의 택시가 그렇듯 폐차 수준의 중고 차임)를 노란색으로 칠해 버스로 이용하고 있다. 치안 등의 이유로 외국인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버스 요금 또한 차장(60~70년대 한국의 차장과 동일한 역할을 하나 100% 남자임)과 최소한의 협상이 필요하나, 비교적 정상적인 요금이 정해져 있으며 택시에 비해 많이 저렴한 편이다. 버스정류장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승객이 있을 경우, 아무 곳에서나 정차하며 버스별로 지정된 노선이 있으나 손님이 많은 적당한 노선을 선택하여 목적지가 부합하는 승객을 태운다.

- 약 10분 내외 거리: N 20~30
- 약 30분 내외 거리: N 50~60
- 약 1시간 거리: N 100~150 수준

□ 오토바이

나이지리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중고 오토바이가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명 "오까다(OKADA: 나이지리아 최초의 항공사 이름을 딴 것이다. "비행기처럼 빠르다" 라는 의미로 붙여진 것이다)"라고 불리는 중고 오토바이들은 주로 Victoria Island 등 교통량이 많아 상습 정체되는 특정 지역의 시내에서 주로 이용된다. 노약자나 치마를 입은 여성도 쉽게 탈 수 있도록 50CC급의 소형 중고 오토바이만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라고스에서는 1대의 오토바이에 2~3명이 타고 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때 맨 앞사람이 "오까다 기사" 이며 뒤에 탄 사람은 "승객"인 것이다.

오까다의 이용요금은 택시와 버스의 중간수준으로 시내 가까운 거리는 N 40~60, 비교적 먼 거리는 N80~100 수준이다.

□ 국내선 항공

국내 주요도시를 운항하는 몇 개의 항공여행사가 있으나 제작연도가 통상 20~25년 경과된 노후 항공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안전성 면에서는 극히 취약한 편이다. 실제 2005년도 12월 연속 2번 국내선 항공기가 추락해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례가 있다. 장거리 국내 여행의 경우 육로 이용은 열악한 도로상태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치안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부담을 안고 부득이 항공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주요 국내선 항공사: Bell view Air, Virgin Nigeria, Airo Contractor, Chang Changki

- 주요 국내 항공노선(라고스 기점): Abuja, Kano, Kaduna, Port Harcourt, Enugu, Markurdi 등 주요 거점도시
- 항공요금 및 운항시간: 대략 비슷한 거리에 있어 왕복 25,000Naira(200달러)내외이며 비행시간 역시 1~2시간 내외가 소요된다.
- 탑승 방법: 시내 항공대리점이나 공항에서 표를 구입, 정해진 시간에 탑승하며 좌석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좌석이 일정 비율에 못 미칠 경우 이륙 시간이 무한정 지연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만석일 경우 지정시간 전에 이륙하는 경우도 있어 여행자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니 미리 공항에 나가 대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 국내선박

국내선 승용선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통신

□ 국제통신

국제전화는 비교적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현지 전화국(Nitel)의 조악한 기술수준 및 노후화된 전화선, 설비 등으로 인해 빈번하게 불통 상태(특히 우기 시)가 발생한다.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009+82(한국국가코드) + 2(서울 지역 코드) + 3460-7114(이용자 전화번호)이고 HOTEL에서 국제 전화를 할 경우의 요금은 처음 3분간은 1,650 나이라, 이후 분당 550나이라(약 4,500원/분)이다. 국제전화 요금은 지역 및 통신사별로 요금이 다르다. MTN, Glo 등 GSM 통신방식을 사용하여 한국으로 국제 전화를 사용할 경우 분당 약 400~500나이라(약 3,400원/분)이며, Multilinks, Globalcom 등의 CDMA 통신방식을 사용할 경우 100~130나이라(약 1,100원/분)이다.

□ 국내통신

나이지리아 국영정보통신(NITEL)의 경영 부진과 랜드 케이블의 관리 부실로 대부분의 유선 전화는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GSM, CDMA 등 이동통신 서비스(Multi-Links, MTN, Celtel 등)가 사무실, 가정 및 개인 사용자에게 보편화되어 있다.

2001년 나이지리아 정보통신 시장의 전면 자유화 정책의 영향으로 현재 나이지리아 통신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개별 이동통신사들은 통화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무선 통신망 구축, 백본(Backbone) 구축, 스위칭 장비 도입 등 인프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 확보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하고 있다. 현재 나이지리아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약 5,8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통화의 경우 GSM 통신방식은 분당 평균 약 25나이라(약 230원/분)이며, CDMA 통신방식은 약 7나이라(약 63원/분)이다. CDMA는 GSM보다 저렴하지만 서비스 지역이 대도시 중심으로 한정되고 있으며, 도심 지역 내에서도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통화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GSM 통신 방식은 위성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지역이 넓지만 요금이 CDMA 통신방식에 비해 다소 비싼 편이다.

4) 우편

우편 서비스는 극히 열악하여 일반 우편의 경우 국내외 공히 정해진 일자 및 배달장소에 정확한 배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Delivery 제도(메신저)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국내 우편의 경우 이를 이용한다.

국제우편 역시 일반 우편은 그 서비스의 질을 기대할 수 없어 심지어 2년 전의 우편물이 최근에 배달되는 사례가 있으며 그나마 도난, 분실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국제우편은 가격이 비싼 EMS나 항공우편, 특히 중요한 사항은 필히 DHL 등 특사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특사 배달의 가격은 국제적인 기준에 의거한다.

5) 인터넷 사용 환경

나이지리아 인터넷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높은 요금에 비해 모뎀을 사용하는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Internet Service Provider)로는 21 Century, Netcom Africa 등이 있으며, 개인 사용자의 경우 초기 가입비용 및 장비 구입비용으로 약 30,000 나이라(약 미\$260)이며, 속도별, 시간대별, 패킷용량별로 서비스 요금이 다르다. 기업, 관공서의 경우 가입비용 및 장치 설치비용에 약 8만 나이라(약 미\$ 695)이며, 전용선 또는 공유회선의 속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128kbps(업로드)/256kbps(다운로드) 속도의 공유회선을 사용할 경우 한 달 126787 나이라(약 미\$ 1083/월)이며, 1M 이상의 전용선을 사용할 경우 약 미\$ 3,000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사. 호텔과 식당

1) 호텔

라고스 지역에는 현지인에 맞는 수준의 저급 호텔들은 많이 있으나 한국 출장자가 투숙하기에는 위생 및 안전상 적합하지 못하다. 또한 공항근처 IKEJA(라고스 주도) 지역에 SHERATON HOTEL이 있어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나 외국인 투숙 시 가끔 괴전화가 걸려오기도 해(현지 호텔 고용원을 통해 외국인 투숙객 이름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 야국 출장자들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VICTORIA ISLAND 지역에 위치한 호텔(EKO 호텔, Federal Palace Hotel) 및 한국인이 운영하는 Guest House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나이지리아에서는 한국 음식을 구하기 어려우며, 교통 및 치안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한국에서 온 많은 출장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Guest House"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동 Guest House 이용 시에는 공항 출영송 및 근거리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3식 한식 제공, 세탁 무료서비스, 무선인터넷 사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한국인이 지내기에는 큰 불편이 없다.

참고로 나이지리아는 일반 생활 물가가 상상 이상으로 턱없이 높아 일반 중국식당 및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자주 이용할 수 없다. (1인당 1식에 약 60달러 선임) 또한 기타 나이지리아 음식은 한국인의 입맛에 다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위생상으로도 잘 믿을 수가 없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식사 해결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 실제로 일반 호텔을 이용하는 많은 한국인 출장자들이 식사 해결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호텔명	위치	전화번호	기타
EKO Hotel	Victoria Island	234-1-266-4600 234-1-261-4444	숙박료 \$400~\$450 조식 미포함 세금 봉사료 포함
Federal Palace Hotel	Victoria Island	234-1-262-3116~25	숙박료 \$270~\$300 조식 미포함 세금 봉사료 포함

위의 2개 호텔은 나이지리아 현지에서는 최고급 수준의 호텔로 분류되나, 우리나라 호텔과 비교할 경우 3~4성급 미만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KBC를 통해 예약할 경우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Guest House 현황

Guest House	위치	전화번호	요금
Kim Guest House	Victoria Island	234-1-270-0730, 2341-776-0647, 234-1-776-0648, 234-8033021669	싱글: \$100 트윈: \$80
Koreana Guest House	Ikoyi	234-1-269-3458, 234-1-269-6631, 234-1-794-4378	상동

주 1: KBC는 Victoria Island에 있으며, Ikoyi는 Victoria Island와 접해있는 인근 지역으로 Victoria Island에서 Ikoyi까지는 자동차로 약 10~15분 거리이지만, 교통 체증이 발생할 경우 1시간 이상 소요된다.

주 2: Guest House 주요 서비스: 3식 한식제공, 근거리 교통편의 제공, 세탁 서비스 제공, 국제전화/팩스, 인터넷 사용 가능하다.

2) 식당

한식

식당명	위치	전화번호	상세정보
신한국관	Victoria Island	01-773-6959	N1,500이상/요리당

중국식당

식당명	위치	전화번호	비고
Pearl Garden	Victoria Island	01-776-5637	별도 룸 보유
Golden Gate	Ikoyi	01-269-5337	행사를 보유
Imperial Chinese	Victoria Island	01-261-7854, 4225	중국식
Bangkok Restaurant	Victoria Island	01-461-9124	태국식당
Chinatown Restaurant	Victoria Island	01-774-4477	Mega Plaza 안

기타 음식점

식당명	위치	전화번호	비고
C'era Una Volta	Victoria Island	01-262-1344	이탈리언
Villa Medici	Victoria Island	01-262-1717	이탈리언/프랜치
Pancho Villa	Victoria Island	01-774-2777	멕시칸/아메리칸
Bottles	Victoria Island	01-773-4211	멕시칸/콘티넨탈
Double Four	Ikoyi	01-269-3012	레바논
Il Sorriso	Victoria Island	01-774-9382	이탈리언
International Piano Bar	Ikoyi	01-269-2455	레바논
Santa Fe	Ikoyi	01-269-6111	멕시칸/콘티넨탈
Sherlaton	Ikoyi	01-269-1282	인디언

일반음식점

식당명	위 치	전화번호	상세정보
After Hours	Victoria Island	01-261-3555	○ 요리당 N1,000 이상 ○ 프랑스, 중국, 레바논 및 기타 대륙 음식
Al-Basha	Ikoyi	01-269-2971	○ 요리당 N1,500 이상 ○ 레바논, 대륙 음식
Ciao Ristorante Italiano	Ikoyi	01-269-3763/4	○ 요리당 N1,500이상 ○ 이탈리아, 대륙음식
Shangri-Lai (Eko Hotel내)	Victoria Island	01-262-4600 01-261-3900	○ 요리당 N1,500 이상 ○ 중식, 대륙음식
K's Place	Victoria Island	01-262-4277	○ 요리당 N1,000이상 ○ 일반 대륙음식

현지음식점

식당명	위 치	전화번호	상세정보
The Calabash	Victoria Island	01-262-4257	N500이상/요리당
La Cafeteria	Victoria Island	01-261-2375	N300이상/요리당
Afis Cuisine	Victoria Island	01-615-141	N450이상/요리당
Home Cooking	Ikoyi	01-682-903	N400이상/요리당

아. 관공서 관행

나이지리아 관공서는 현재까지도 컴퓨터 등 사무기기 보급률이 극히 낮아 거의 모든 업무가 수작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고용기회 확대 등을 이유로 실제 필요 인원보다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사무실이 항상 번잡하며 심한 경우에는 책상 하나인 3평 정도의 사무실에 4~5명이 북적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부 민원부서의 경우 민원 해결을 위해 뒷돈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로 외국인을 당혹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도 나이지리아 사회 각계 각층에 만연된 부정부패, 무사안일의 작태는 관공서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어 모든 업무, 특히 민원의 경우 별도의 수고료나 뇌물 없이는 업무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실정이다. 나이지리아인들 스스로 “나이지리아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다”, “This is Nigeria”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자주 쓰고 있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각국의 부패 정도를 측정한 CPI(Corruptions Perceptions Index, 10점 만점)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160개국 중 142위(CPI 지수 2.2)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정부 중앙부처나 장관실 등은 조금 양호한 편이며 고위직일수록 외부 방문객들과의 면담 일정이 하루 종일 잡혀 있어 실제 업무는 차석 등이 맡아 하고, 장관은 결재만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위 공무원 면담 시 공식 면담신청의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동인사와 동향이거나 친인척을 통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면담이 가능한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들과 친인척이거나 동향을 자처하며 대형 프로젝트의 중개를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인사들이 관청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들을 믿어서도 또는 믿지 않아서도 안 되는 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자. 공휴일

1) 2009년 공휴일

2009년도 공휴일 현황

공휴일명	일자
NEW YEAR DAY	JANUARY 1
ID-EL-KABIR	JANUARY 3~4
EASTER FRIDAY	APRIL 10
EASTER MONDAY	APRIL 13
MAY DAY	MAY 1
DEMOCRARY DAY	MAY 29
Id-el-Fitir	미정 (연방정부 발표 예정)
INDEPENDENCE DAY	미정 (연방정부 발표 예정)
ID-EL-FITRI	DECEMBER 9
CHRISTMAS	DECEMBER 25
BOXING DAY	DECEMBER 26

2) 출장 지양기간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과 회교 인이 약 50:50 비율을 보이고 있어 종교와 관련된 휴일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특히 "Good Friday"와 "Easter Monday"는 중간의 토/일요일과 함께 총 4일간의 연휴로 동 기간 중에는 모든 비즈니스 업무가 중지된다. 즉, 부활절 연휴 날짜는 해마다 변경되나 4일간의 연휴는 변하지 않음을 염두해야 한다.

또한 회교 축제일인 "EID-EL-FITRI", "EID-EL-KABIR", "EID-EL-MAULUD"는 해마다 변경되며, 연초에 정확한 날짜가 확정되지 않고 해당 축제일 약 1~2주 전에 날짜가 최종 확정(회교 의식에 따라 날짜를 선택함)됨을 숙지하여 동 축제기간 중에는 출장계획을 잡지 않는 것이 좋다.

차. 여행 시 유의사항

나이지리아는 세계적으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많은 사람이 비공식 충기를 휴대하고 있어 항상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지 체류 시 신변안전 및 소지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귀중품은 가급적 호텔의 금고 등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항상 자신의 행동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몰 이후 주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간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도보가 아닌 차량을 이용하기 바란다. 또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택시보다는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을 렌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혼자서 택시를 타는 것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야간 외출 시 반드시 행선지를 동료에게 알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2007년 1월 대우사건이 발생한 River State의 Port-Harcourt 지역은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 납치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석유시추로 인해 발생한 자연파괴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적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 중심 도시 라고스(Lagos) 및 행정 중심 도시인 아부자(Abuja)는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전한 편이나, 도심 외곽지역이나 교통이 혼잡한 도로 또는 교량(橋梁) 등에서는 강도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나이지리아의 식당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요율은 없으나 지불 후 잔액을 팁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 일부 서비스 업체의 경우 과도한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카. 유용한 연락처

비상연락처

기관명	위치	전화번호
한국대사관(아부자)	Abuja	(234-9) 461-2701
한국대사관 라고스 분관	Ikoyi	(234-1) 271-6295
라고스 KBC	Victoria Island	(234-1) 774-6262 / 262-3253
경찰서	Victoria Island	(234-1) 610743
성마리아병원	Victoria Island	(234-1) 261-8568
성프란세스병원	Ikoyi	(234-1) 269-2305

현지 관공서

기관명	위치	전화번호
이민국	Ikoyi, (Lagos)	(234-1) 269-2850
법무성	Abuja	(234-9) 523-5194
전기공사	Victoria Island (Lagos)	(234-1) 624925
전화국	Victoria Island (Lagos)	(234-1) 616667 / 269-0693
우체국	Victoria Island (Lagos)	(234-1) 613420
수도국	Victoria Island (Lagos)	(234-1) 612897
통계청	Victoria Island (Lagos)	(234-1) 260-1710~4

은행

은행명	위치	전화번호
AfriBank Plc	Ikoyi	(234 -1) 269-2953
Chartered Bank	Victoria Island	(234-1) 262-0380~9
Citizen Int'l Bank	Victoria Island	(234-1) 260-1030~9
Diamond Bank	Victoria Island	(234-1) 262-0740~9
First Bank Plc	Victoria Island	(234-1) 611497
United Bank of Africa Plc	Victoria Island	(234-1) 617239
Intercontinental Bank Plc	Victoria Island	(234-1) 262-2940 ~ 59

국제기구, 경제단체

단체명	위치	전화번호
UNICEF	Ikoyi	(234-1) 603540~6
UNIDO	Ikoyi	(234-1) 682292
ILO	Ikoyi	(234-1) 686177~8
UNESCO	Ikoyi	(234-1) 684037
나이지리아 상공회의소	Maryland	(234-1) 496-4727
라고스 상의	Victoria Island	(234-1) 613901~2
수출진흥공사	Abuja	(234-9) 5233380~9
World Trade Center	Victoria Island	(234-1) 263-5276

타. 기타 유용한 정보

1) 주요 쇼핑센터

나이지리아는 많은 수입품이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주요 슈퍼마켓은 PARK'N'SHOP, MEGA PLAZA, PAYLESS, CASH AND CARRY, SHOP RITE 등으로 외국의 유명 슈퍼마켓 체인이 들어와 있으며 주로 인도, 레바논인이 경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GOODIES, LAFAYETTE, DISCOUNT STORE 등 중소 슈퍼마켓이 많으며 물건 가격은 유럽 이상으로 비싼 편이다.

주요 쇼핑매장은 남아공에서 진출한 SHOP RITE가 나이지리아 제1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유대인 소유의 5층 건물 MEGA PLAZA와 인도인이 경영하는 PARK'N'SHOP이 외국인 주거지역인 VICTORIA ISLAND에 위치하고 있다. SHOP RITE는 대형 할인매장과 푸드코트, 영화관, 서점 및 PC-Outlet 등이 입주해 있어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 생활을 즐기려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매일 찾는 곳이다. MEGA PLAZA는 한국의 백화점과 같은 개념이 아닌 가전제품 위주의 전문 판매장이며 다만 3층에 1개의 중국식당 및 이발소, 미용실,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 등이 입주해 있어 외국인들이 이곳에 모여 차와 음료를 마시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2) 스포츠

라고스의 IKOYI지역에 IKOYI GOLF CLUB이 있으며 1938년 설립된 역사가 긴 클럽으로서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당구, 탁구, 스쿼시 등 다양한 스포츠 및 문화생활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동 IKOYI CLUB의 골프장은 18홀 규모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골프장 시설은 여타 선진국과 시설 면에서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 밖에 라고스 외곽 IKEJA 지역은 IKEJA COUNTRY CLUB이 있으며 9홀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수영을 즐기는 외국인들은 SHERATON HOTEL, EKO MERIDIEN HOTEL, FEDERAL PALACE HOTEL 등 3개 호텔의 수영장 회원권을 구입, 이용하고 수영장 회원권은 가족단위로 연간 800달러 수준이다.

3) 레저

라고스는 해안에 접해 있으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해안 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또한 무장강도들이 출현하는 등 치안 부재로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트를 즐기는 외국인들을 위해 현재 2개의 요트 클럽이 운영 중이며, 매주 다양한 행사와 경기가 개최되고 있다. LEKKI BEACH는 파도가 강해 수영이 불가능하다. 해서 대부분 현지인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집들이 있어 해안가 그늘에서 쉬다 오는 정도로 즐기곤 한다.

4) 한국기관 및 주요 현지 진출기업 현황

기관명	위치	전화번호	비고
한국대사관	Abuja	(234) 802-290-5497	대사 이기동
	Abuja	(234-9) 413-6524	이충면 영사
	Abuja	(234) 802-290-9477	이웅연 영사
대사관 라고스 분관	Ikoyi	(234) 802-290-9476	이점수 분관장
라고스 KBC	Victoria Island	(234-1) 775-5750	곽희윤 관장
	Victoria Island	(234-1) 775-5870	심자용 과장
한인회장	Lekki	(234-1) 776-0648	김태철 회장
Kim Guest House	Lekki	(234-1) 261-5542 (234-1) 288-2678	유수황 사장
코리아나 게스트 하우스	Ikoyi	(234-1) 470-9901 (234-1) 269-3458	강경희 사장
삼성물산	Victoria Island	(234-1) 320-0659 (234) 803-500-5758	위강호 부장
현대종합상사	Victoria Island	(234) 802-309-5280	이수복 지사장
대우인터내셔널	Ikoyi	(234-1) 775-3406	정연호 지사장
대우건설	Victoria Island	(234) 803-328-9740	김귀식 대리
LG전자	Ikeja	(234-1) 790-2527	오이성 부장
현대중공업	Port Harcourt	(234) 802-290-3443	도병길 부장
린다	Ikeja	(234-1) 774-6050	신정욱 지사장
비너스 니나	Ikeja	(234-1) 776-3123	손춘권 지사장
태동	Ikeja	(234-1) 776-261-9103	강태서 대표
플래시	Ikeja	(234-1) 775-3099	남규봉 대표
한국석유공사	Victoria Island	(234-1) 271-6245	이진석 소장
BOPOLY STORE CO., LTD	Ilupeju	(234-1) 496-8493	이재경 대표
대우오토랜드	Ikeja	(234-1) 774-2590	조흥선 대표
한인교회	Ikeja	(234-1) 775-7142	신태운 목사

5) 위성수신 TV 및 한국방송

현지에 DSTV 및 MULTI CHOICE가 있어 가입 시 위성방송을 수신해 CNN 및 BBC 등이 청취 가능한데 DSTV는 위성수신 접시 및 수신기 등의 설치에 약 400달러 정도의 초기 비용이 소요되며 매월 약 86달러의 청취료를 지불하는 대신 약 40여 개의 위성방송 채널을 수신할 수 있다.

케이블 TV인 MULTI CHOICE의 경우 수신기(DECORDER)와 수신안테나 설치에 약 300 달러가 소요되며 매월 80달러의 청취료를 지불하는 대신 약 15개 채널의 방송 청취가 가능하다.

2005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위성방송 수신 가정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KBS WORLD, ARIRANG TV, YTN 방송의 수신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를 시청을 위해서는 별도의 대형 접시 안테나와 DECODER를 설치해야 하며 비용은 대략 600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파. 관광명소

나이지리아의 국가 기간 산업은 원유가스 및 농수산업이며,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개발이 더딘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국가 차원의 여러 시급한 사안(전기, 통신, 수도 등)들 때문에 관광 산업 육성에 눈을 돌릴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관광지라고 일컬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으며, 실제로 나이지리아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방문객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 외교부는 나이지리아의 나이저 델타(Niger Delta) 지역을 여행경보 3단계, 즉 여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나이저 델타 지역에서는 끊임없는 소요사태, 외국인 근로자 납치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9년 무장단체 세력의 활동이 재개되면서 치안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여행을 제한하고 있다. 2008년 11월 및 2009년 2월 나이지리아 곳곳에서 종교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티푸스 등 전염병이 발생하는 등 나이지리아 여행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강도, 강탈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광은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나이지리아의 경제 중심 도시 Lagos를 방문할 경우 다음의 장소를 추천한다.

- Lekki Market
 - 나이지리아 전통 재래 시장
 - 각종 야채 및 과일, 나이지리아 전통 공예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음.
 - 시내 중심으로부터 약 40분 거리(차량 이용)
- National Museum of Nigeria
 - 나이지리아 전통 박물관
 - 나이지리아 고대, 근대, 현대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수장하고 있음.
 - 입장료: N 200(약 1.74달러)
 - 관람시간: 10:00~17:00
 - 위치: National Museum, Onikan, P.M.B. 12556, Lagos
 - Tel : (234-1) 263-6075, 263-4040, 263-4045, 472-0527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가. 2009 포트코트 국제 무역 박람회

개최국가/도시	나이지리아/		
개최주기	매년	최초개최년도	2005년
개최기간	2009.10.02 ~ 2009.10.12	개최규모	300000s/m
전시장	Isaac Boro Park, Port Harcourt		
참가국수	8 개국	개최국 참가업체수	250 개업체
외국참가업체수	11 업체	개최국 참관객수	370,000 명
주요참가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남아공		
전체참관객수	370,180 명	외국참관객수	180 명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종합품목		
부스당 임차료 (㎡ 당)	12,000 원		
임차료수준	조립식 부스 (\$110 s/m) 독립식 부스 (\$70 s/m)		
주최기관	Port Harcourt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Mines & Agriculture		
주최기관 담당자	Mr. Humphrey Ossademe(Chief Executive Officer)		
주최기관 주소	11 Azikiwe Road, Port Harcourt, Nigeria		
주최기관 TEL	234-84-234-307		
주최기관 팩스	234-84-234-307		
주최기관 URL	N/A		
주최기관 e-메일	phccima@hotmail.com		
전시품목	전기, 전자제품, 가정용품, 건축자재, IT, 통신분야, 의료/병원용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 기계부품, 식품제조/포장, 농업용기계/기구, 식음료, 섬유, 화장품, 화학약품, 의약품, 석유/석유화학, 가구, 문구, 금융서비스 등		
비고	포트코트는 나이지리아 동남부에 위치한 River State의 주도로 2백만명의 인구 보유, 나이지리아의 석유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석유 정제시설, 석유화학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1개의 국제공항 및 항구를 각각 보유, 다수의 산업시설과 다국적 오일 메이저들의 나이지리아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최대의 산업도시		

나. 2009 라고스 국제무역박람회

개최국가/도시	나이지리아/라고스		
개최주기	매년	최초개최년도	1981년
개최기간	2009.11.09 ~ 2009.11.16	개최규모	530000sm
전시장	Lagos Trade Fair Complex		
참가국수	25 개국	개최국 참가업체수	1,500 개업체
외국참가업체수	68 업체	개최국 참관객수	1,800,000 명
주요참가국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터키		
전체참관객수	1,801,000 명	외국참관객수	1,000 명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종합품목		
부스당 임차료 (㎡ 당)	130,000 원		
임차료수준	조립식 부스 (\$139/s/m(indoor), Min. 30s/m) 독립식 부스 (\$93/s/m(outdoor) Min. 30s/m)		
주최기관	Lagos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주최기관 담당자	Mr. Mayowa Olanihun(Senior Manager)		
주최기관 주소	Commerce House, 1 Idowu Taylor St., Victoria Island, Lagos, Nigeria		
주최기관 TEL	234-1-774-6617		
주최기관 팩스	234-1-261-1525		
주최기관 URL	www.lagoschamber.com		
주최기관 e-메일	lcci@hyperia.com		
전시품목	가구, 가전제품, 가죽/피혁, 식품류, 건축자재, 계측기, 고무, 플라스틱, 공예품, 공작기계, 광학기계, 금속제품, 주방용품, 문구, 사무기기, 미술품, 방송통신장비, 보안설비, 유리, 도자기, 악기, 의료용품, 의류, 청소용품, 컴퓨터, PC 주변기기, 미용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가발		
비고	나이지리아 최대 규모의 종합 박람회		

다. 2009 나이지리아 인프라 전시회

개최국가/도시	나이지리아/아부자		
개최주기	1	최초개최년도	2001년
개최기간	2009.12.04 ~ 2009.12.00	개최규모	
전시장	Abuja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참가국수	11 개국	개최국 참가업체수	70 개업체
외국참가업체수	12 업체	개최국 참관객수	450 명
주요참가국	영국, 미국, 중국, 러시아		
전체참관객수	509 명	외국참관객수	59 명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 인프라 산업		
부스당 임차료(㎡ 당)	140,000 원		
임차료수준	조립식 부스 (\$160/s/m(indoor), Min. 30s/m) 독립식 부스 (\$100/s/m(outdoor) Min. 30s/m)		
주최기관	CW2 Associates Limited		
주최기관 담당자	N/A		
주최기관 주소	Regent House, Oyster Wharf, 16-18 Lombard Road,London, United Kingdom.		
주최기관 TEL	+(44)-(20)-79780000		
주최기관 팩스	+(44)-(20)-79780099		
주최기관 URL	N/A		
주최기관 e-메일	N/A		
전시품목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기자재 등		
비고	나이지리아 인프라 전시회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가. 정부기관, 공공부분, 비영리 단체

- Nigerian Ports Authority(NPA): www.nigeria-ports.com
- National Agency for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Control:
 - www.nafdacnigeria.org
- Central Bank Of Nigeria: www.cenbank.org
- 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NNPC): www.nnpcgroup.com
- 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NIPC): www.nipc.gov.ng
- Ghana Investment Promotion Centre(GIPC,가나): www.gipc.org.gh

나. 상공회의소, 조합단체

- Nigerian Association of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Mines and Agriculture :
 - www.naccima.com

- Lagos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www.lagoschamberng.com
- Port Harcourt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Mines & Agriculture :
 - www.phccima.com
- KADUNA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MINES AND AGRICULTURE:
 - kadccima.net

다. 금융기관, 투자회사

- First Bank of Nigeria Plc : www.firstbanknigeria.com
- Union Bank Of Nigeria Plc : www.unionbankng.com
- Standard Chartered Bank Nigeria : www.standardchartered.com/ng
- Intercontinental Bank Plc : www.intercontinentalbankplc.com/portal/products
- Eco Bank : www.ecobank.com

라. 언론기관

- Guardian Newspaper : www.ngrguardiannews.com
- Vanguard Newspaper : www.vanguardngr.com
- This Day Newspaper : www.thisdayonline.com

마. 기타

- Online Nigeria : www.onlinenigeria.com